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 옆) 종로구 수송동5번지 원일빌D 3층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12월 2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56 호

"내가 이 세상에 태어 났을 때 나는 울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 하였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나는 웃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슬피 울고 괴로워 하였다."

인간의 생사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이 말은 티벳의 큰 스승(린포체)들이 어린 제자들에게 즐겨 들려주는 말이다.

불법에 비추어 인생을 깊이 들여다 본 분자라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음을 깊이 참회해야 한다.

인간을 태어나게 하는 에너지가 감각적인 욕망과 질투, 진리의 가르침에 대한 무지이기 때문이다.

탐·진·치 삼독을 다스리지 못하는 범부는 생각 생각 죄업의 씨앗을 뿌리면서 끊 없는 윤회를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현 장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티벳의 불자들은 생일잔치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일보다 죽을 날을 알 수 있도록 수행에 힘써야 한다는 스승들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한다.

"태어난 인간은 늙지 않을 수 없고, 늙은 인간은 죽지 않을 수 없고, 죽은 인간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전은 말씀하신다.

그래서 불교수행의 근본은 생사윤회로 부터의 해탈, "다시 태어나지 않는 공부"에 있는 것이다.

몇해전 평생을 불화만 그려오신 부산의 석정스님을 찾아 뵈었던 적이 있다. 송광사 어른 스님들의 안부를 물은 스님께서는 송광사의 가풍으로 전승되어온 일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송광사 스님들은 나이 60이 되어 환갑을 맞이하면 스스로 세 가지를 실천했는데, 첫째 60이 지나면 몸에 좋은 보약을 먹지 않는다.

둘째, 평생 모아진 재산을 처분해서 본사에 필요한 불사를 한다.

셋째, 자신의 장례비용은 스스로 준비한다.

스스로 죽음과 내세를 준비하고 해탈을 위해 정진하는 일, 이것이 참회할 원인을 줄여가는 일이 아닐까?

〈보성 대원사 주지〉

"죽음과 내세를 준비하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구독 · 광고 문의 (02)737-8881

열린마당 종교와 정치의 만남 21면

'성보보존법' 낡고 허술

25년간 그대로…문화유산의 해 '무색'
관리인력 · 도난 방지시설 의무화 '절실'

'성보보존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교계 안팎에서 강하게 대두돼고 있다.

문화유산의 해였던 올 한해동안 매월 한건씩의 성보도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성보보존법이 1972년 제정된 이후 25년간 한번도 손질되지 않은채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총5장 15조로 구성된 성보보존법의 가장 시급한 개정사항으로 꼽히는 대목은 성보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명기하는 조항의 신설이다.

조계종은 97년 한해동안 성보도난과 관련 7명의 전현직 주지에 대해 '승려법'을 적용, 공권정지와 문서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징계는 잃어버린 도난성보의 중요도에 비해 가볍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성보보존법에 보다 구체적이고 경중의 구분이 뚜렷한 징계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학계와 종단 일각의 주장이다.

교구본사 종무원 가운데 본말사의 성보를 책임있게 관리할 주체를 정하는 것도 성보보존법 개정의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본사단위로 성보박물관이 건립되고 있는 현실에서 본사 7직중 한 부서를 본말사의 성보관리 주체로 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본사에 따라 교무국장이나 사회국장, 박물관장이 관리를 맡거나 아예 관리 주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성보관리 전문가의 양성과 도난방지 시설의 의무화, 총무원 문화부내에 성보관리국 편성, 성보보유사찰의 분사에 대한 심의등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는 '성보보존위원회령'을 제정, 불사심의와 성보관리 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따뜻한 세밑 경제한파로 어느해보다 나눔의 정(情)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세밑이지만 16일 지비의집(회장 동광스님 · 도선사 주지)이 마련한 송년 노인잔치는 따뜻했다. 어려운 매월수록 이웃과 함께 나누려는 동체대비의 훈훈한 정이 가득 묻어나는 가운데 강북구 지역노인 2백여명은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이날 노인잔치는 삼각산 도선사 봉사모임인 '보리수회' 회원 500여명이 음식과 선물을 마련, 눈길을 끌었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종 강원 4년학제로 통일

3년제 학제로 운영되던 조계종 강원이 내년부터 4년제로 통일된다. 전국교직자연합회(회장 수진 · 해인사 강주)는 16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제1회 교직자연찬회를 열고 법주 · 백양 · 통도사 강원을 여타 강원과 같이 4년제 학제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는 4년제 강원을 마치지 않을 경우 구족계를 수계할 수 없는 계단법에 따른조치다. 또 모든 강원에서 학적부를 만들어 학적변동의 참고자료로 삼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지운스님(송광사 강주)과 탁연스님(봉녕사 강주)의 비구 · 비구니강원 학사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기조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삼우화학피해 호소문 종단협, 전국사암 게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효강스님)는 13일 유한킴벌리 불공정거래에 의한 삼우화학의 부도피해를 알리는 호소문 1천부를 제작하고 각 종단과 조계사 등 서울시내 대형사찰에 부착했다. 또 대불련 지회를 통해 전국 대학에 배포했다.

대통령 당선자 불교공약 20면

'97 불교 사건과 인물 11면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당선

"IMF 돌파하고 종교갈등 해소"



제15대 대통령에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대중후보가 총투표자의 40.3%의 지지를 얻어 38.7%의 한나라당 이회창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고 공식집계를 발표했다.

5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이룬 김당선자는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경제위기 국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위기의 한국호에 함께 탄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 돼 거센 파도를 헤쳐나갈 것을 국민에게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3 · 20면〉

"불교현실에 지속적 관심갖길"

새 대통령당선 교계반응 "문화예산 2%로"

불교계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안정과 화합속에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지역 계층 종교간 갈등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21세기를 여는 대통령으로서 경제난국과 더불어 가치관의 혼란을 막아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특히 문화예산을 2%로 늘려 국가발전의 기틀을 다져달라고 제시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연등회 의원들의 불교계 관심이 돋보였다"면서 "앞으로도 불교현실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스님)은 19일 성명을 통해 "새롭게 들어설 정권은 종교간의 화합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방송 이사장에 도후스님

중계소 9곳 설립키로…성초 · 혜담스님 이사에

불교방송 재단이사회(이사장 작대 엄담스님)는 15일 제29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 이사장에 도후스님(신흥사 주지)을 선임했다. 〈관련기사 3면〉

이로써 지난 4월 이후 8개월여를 끌어오던 불교방송 직무대행체제가 해체됐다.

98년 예산등 상정된 7개 안건 가운데 지방국 설립에 대해서는 재정 문제로 대전 창원 전주 춘천 충주 울산 강릉 제주 진주 등 9개 지역 중계소 설립안이 통과됐다.

신임이사에 성초 봉리원장(진각종), 감사에 혜담스님(불교방송후원회장)이 각각 선임됐고, 청주지국 분사무소 등기, 공보처 정관 개정안에 대한 사후 승인의 건 등이 결의됐다.

이밖에 98년 재단 · 방송 예산심의 승인과 사장 선임 등 2건은 다음 이사회로 미뤄지고 조계종 이사 사퇴의 건은 보류됐다.

한편 이사회 시작 직전 불교방송 노동조합(위원장 선상신)은 이사회장 앞에서 '출연금 미납 이사 자진 사퇴' '이사회 각성' '공금횡령 책임자 종하 영담스님 즉각 사퇴' '이사장 사장 선임'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용성스님, 98년 '3월의 독립운동가'



보훈처는 20일 내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용성스님(1864-1940)을 선정, 발표했다.

스님은 1879년 해인사 화월스님을 은사로 득도, 지리산 금강대 송광사 삼일암 등에서 수행했으며 1911년 4월 서울 종로구 봉익동에 대각사를 창건 선학원을 세워 대중포교에 나섰다.

특히 스님은 1919년 3 · 1 독립운동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사람으로 참여하는등 독립운동등을 하다 일경에 체포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1921년 4월 출옥한 스님은 대각교를 창립하고 삼장역회를 조직 〈화엄경〉, 〈금강경〉, 〈기신론〉등 30여 경전을 번역하는등 역경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三寶正財를 守護하는 三寶金庫 福田函!

최첨단기술로 제작되어 파손 및 도난을 방지하는 불교계 최초의 금고형 복전함! 미려한 외양과 견고한 내부를 자랑합니다.

● 금고 복전함의 특징 ●

1 신뢰성 혁신적인 기술로 첨단 컴퓨터 회로로 구성된 초정밀 제품으로써 믿음직한 제품입니다.

2 편리성 스위치 하나로써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한 번호를 쉽게 자유자재로 1단위부터 8단위까지 번호를 바꿀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3 안전성 틀린 번호를 3회이상 누르면 경보음이 울리며 컴프락 기능이 마비되는 이중안전장치로 삼보정재를 지켜 드립니다.

4 견고성 삼보금고의 원자재는 강도높은 강관으로 사용하여 반영구적이며 외부로부터 파손할 수가 없습니다.

5 디자인 상·하 연화문양으로 조각 · 주조되어 외형을 장식되었으며 현대감각과 불교미술적 조화를 이루는 콤팩트한, 중후하고 세련미를 자아냅니다.

의장등록 제 25848 호



모델 A101
· 높이 550
· 가로 545 × 세로 360
· 중량 67 Kg
· 가격 ₩880,000

모델 A102
· 높이 605
· 가로 545 × 세로 360
· 중량 71 Kg
· 가격 ₩980,000

모델 A103
· 높이 605
· 가로 605 × 세로 395
· 중량 79 Kg
· 가격 ₩1,050,000

모델 A104
· 높이 605
· 가로 760 × 세로 395
· 중량 83 Kg
· 가격 ₩1,150,000

모델 A105
· 높이 690
· 가로 655 × 세로 425
· 중량 95 Kg
· 가격 ₩1,250,000

모델 A106
· 높이 695
· 가로 910 × 세로 545
· 중량 110 Kg
· 가격 ₩1,380,000

불교미술관 三寶金庫 삼보금고 ■ 상담전화 : 02)739-2991/733-4800 ■ FAX : 02)739-2992

사 설

대통령 당선자에게

새 대통령은 하루빨리 선거분위기를 떨칠 것을 당부한다. 승리의 환호에 도취될 계제가 아니다. 승자와 패자 사이의 골을 메꾸고 국민적 화합과 단결을 시급히 도모해야 한다.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선거 와중에서 불거진 감정의 앙금들이다. 승자는 패자를 다독이는 겸허를 보여야 하고, 패자는 결과에 승복하는 금도를 보여야 한다.

새 대통령은 의리와 정실에 연연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정치란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하고 일정한 세력이 필요한 게임이다. 그러나 일국의 운명을 걸머진 대통령이라면 자신을 지지해준 특정 지역과 계층, 혹은 세력을 과감히 부정하는 용기와 결단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체적 국난을 극복할 온 국민의 일치된 단합과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에 입각한 패거리정치를 청산하고 유능하고 책임감있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정에 참여시키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없다.

새 대통령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대중은 자신의 복리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불특정 다수이다. 그들은 자신의 좁은 경험과 한정된 시야에 묶여 있다. 대중들에게서 이기적 자아를 넘어 보편적 가치에 착목하는 시민적 덕성과 문화적 교양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들의 선택을 입어 지도자가 되었지만 이제 그들을 잊어버려야 한다. 표를 의식해 남발했던 수많은 공약들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한다. 대통령 앞에는 이제 실제상황이 펼쳐져 있다. 그 문제들은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구성원들의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국가부도의 위기상황이다. 대통령은 내키지 않는 대중들의 걸음을 설득하며 이끌고 가야할 악역이다. 지도자란 고독하고 외로운 직책인 것이다.

새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국가주도형 모델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줄 것을 당부한다. 해방 이후 반 세기에 걸친 근대적 가치와 관행의 훈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랜 농경사회의 유습에 젖어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를 단위로 하는 폐쇄적 율타리이다. '우리'라는 말은 밖으로는 배타적 적대감을, 안으로는 비합리적 일체감을 고취한다. 그것이 정치적 권위주의를 가능하게 한 심리적 요인이었다. 전체의 관단과 의사가 주도하기에 개인은 무책임과 무비판, 그리고 타자의 존을 피할 수 없다. 전체의 목표를 정하고 동원의 계기가 마련되면 이 모델은 예상못한 폭발력을 갖는다. 이 점에서 박정희의 선택은 옳았다. 그러나 성장이 한계에 부닥치거나 지도력이 부재할 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와 공황을 몰고 온다.

정부는 그 동안 모든 일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조정해왔다. 정보가 공유되고 자본의 통로가 자유로와지면서 개방화 국제화가 진전되는데도 옛적의 사고와 관행을 고집하면서 위기는 다가왔다. 정부는 시장을 무시하고 환율과 주식시장을 통제하느라 귀한 달러를 허비했다. 기업의 부도를 책임져주고 은행의 파산을 막아주며, 개인의 투자를 보호해주느라 동분서주했다. 그 부담은 억울하게도 국민 전체에게로 전가되었다. IMF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원칙은 투명성과 자율성이다. 정부는 자신의 독점을 포기하고 권한을 민간의 자율에 이양하는 혁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의 각 단위에게 행동의 주체성을 보장해주는 한편, 그 선택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합리적 가치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그것이 위기극복의 초석이다.

군종교 형평성 논란 다시 일듯

3당 '1인1종교' 지지…"개신교 우위 제도적 보장"

군종장교 장군 가능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이 군내 1인1종교갖기운동을 지지하며 군종병과 최고책임자의 장군계급 부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3당은 16일 개신교측 군선교대책위원회가 각당에 보낸 군종정책 질의서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따라 군내 종교편향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군선교대책위 질의에 △1인1종교갖기운동은 정신전력 증강 정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유지하도록 하겠다 △군종병과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장군계급부여와 정책회의에 참석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군내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1인1종교갖기운동도 이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군종병과 최고책임자의 계급은 군내 타병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신당은 △장병 1인1종교갖기운동은 그동안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전개하였던 만큼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군종병과장도 필요하다면 장군진급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군법사(대위)는 각 정당의 1인1종교갖기운동 지지와 군종병과장의 장군진급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군법사는 "현재와 같은 군종장교 수의 불공평이 지속되는 가운데 1인1종교갖기운동과 군종병과장의 장군진급은 개신교 우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법사는 117명, 군목은 330명, 군신부는 70명이며, 군종병과의 최고책임자는 국방부 군종실장인 박성대신부(대령), 육군 군종감은 박욱병목사(대령, 군종목사단장)이다.

조계종포교원은 3당의 주장에 대해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군종장교 수의 형평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국방부의 군종장교 수 조정(2002년까지 불교 180명, 개신교 260명, 천주교 66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장병들의 종교현황 조사도 군종장교들의 보고에 의존하지 말고 부대장이 직접 조사해 실수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한나라당과 국민회의의 당시 이회창 김대중후보는 본지의 종교정책 질의서 답변에서 각각 "1인1종교갖기운동은 권장사항이다. 일률적으로 종교를 갖도록 강요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1인1종교갖기운동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종교를 안 가질 권리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보문종 총무원장 혜일스님 재선출



보문종 제10대 총무원장에 현 총무원장 혜일스님이 재선출. 90년 이후 3대째 연임하게 됐다. 보문종은 15일 보문사 선불장에서 제25회 정기종회를 열고 총무원장에 혜일스님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하고, 공석중인 원로원장에 혜월스님(전주 정혜사), 부원장에 지성스님(보문사)을 새로 선출했다.



◇월주스님을 비롯한 6대종교지도자들은 15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기업 근로자 언론 종교인들의 각성과 합심을 촉구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국민단결 경제위기 넘자"

불교등 6개 종교지도자 대국민 호소

불교 천주교등 6개 종교 대표자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기업, 근로자, 언론의 자성과 합심을 호소하고 나섰다.

월주 조계종총무원장 , 김수환 천주교서울대교구장, 최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김홍도 한국기독교회협의회장, 최근덕 유도회중앙회장, 김재중 천도교교령, 조정근 원불교교정원장, 한양원 한민족종교협의회장 등 6명의 종교지도자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어 종교지도자들은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예산 질감, 정부조직 축소등 뼈를 깎는 아픔으로 솔선수범할 것 △기업은 근원적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실시할 것 △근로자는 임금인상 억제등 고통을 감내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 △정치권은 무분별한 정쟁을 즉각 중지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언행을 자제할 것 △언론은 보도경쟁과 과소비 조장을 지양하고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할 것 △모든 경제주체들은 구조조정과 소비절약에 합심, 국민대합의를 이루어 낼 것 등을 호소했다.

종교지도자들은 또 "종교인들도 근검 절약,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솔선하여 국민화합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종교지도자협 이사회 27일 내년 사업등 심의

종교지도자협의회(의장 월주) 이사회가 27일 오전 7시30분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결산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심의한다. 종교지도자협의회는 금년 재단법인 인가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인간성회복을 위한 실천운동 등 각 종교별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갑사, 경내지수용 중토위에 이의신청

계룡산 갑사는 13일까지 토지계약체결을 통보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갑사경내지 수용결정에 대해 전면 거부키로 하고 23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경내지에 청소년 야영장이 건설함으로서 발생하는 전통사찰 수행환경의 파괴와 개발이전에 해당사찰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을 명시한 개정 전통사찰보존법의 위반"을 지적했다.

한편 중앙토지수용위는 갑사 토지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토지보상비 16억여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조계종 포교대상에 정련스님

공로상에 현진스님 · 현각스님 · 임장수씨

조계종포교원은 17일 제9회 포교대상 공로상 원력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종정상인 대상에는 어린이 및 유아포교에 공로가 큰 정련스님(부산 내원정사 주지, 인터뷰 4면)가 선정됐다. 공로상(총무원장상)에는 현진스님(여의도포교원장), 현각스님(원주 성불원장), 임장수씨(서울구치소 불심회장)가 영예를 안았다.

현진스님은 선재유치원과 광명어린이집 일요불교학교를 개설해 유아·어린이포교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현각스님은 원주시립복지관을 운영하며 핸려자의 자활을 돕고 영세민자녀 어린이집 3곳을 운영하고 있다.

임장수씨는 서울구치소 불심회를 창립하여 주요사범 및 5백여명의 시국관련 사범들에게 불심을 심어주는 등 활발한 교화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원력상(포교원장상) 각 부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지역포교-승우스님(청교련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청소년-고우익(동대부고 교법사) △청소년-이용의(전주중앙여고 교사) △직장-왕경태(방송인불자연합회 사무총장) △방송·연예-이은하(가수) △호법-홍성덕(육군특수전학교 훼불 폭로) △군포교-전창응(육군보병학교 군법사) △신행단체-조순종(경주 불국다보회장).

조계종 새 포교사 405명 탄생

포교원 합격자 발표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17일 제3회 포교사고시 합격자 4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11월 23일 실시한 이번 포교사고시 수석합격의 영예는 김호철씨(군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인터뷰 4면)가 안았다. 차석 및 최고령, 최연소 합격자는 김은경(국군벽제병원 의무사령부 근무), 권영상(72), 김미영씨(23, 광주 남구복지회관 근무)로 밝혀졌다. 합격자는 출신 불교대학에 통보된다.

포교원은 내년 1, 2월중 각 포교지단별로 합격자 대상의 연수교육 실시 후 포교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이번 포교사고시에서 수석과 차석합격자 모두 동산불교대학 졸업자들이 차지했다.

포교부장 원혜스님은 "예년에 비해 응시자 수가 가장 많았고, 면접을 통해 강한 포교의지를 확인했다"고 이번 포교사고시를 평가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경제살리기에 함께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香(냄새)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로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퀸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뇌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줌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출(創出)시켜줄것입니다.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내분비계가 문란해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뭉치게 되면서 혈맥소통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오래되면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흡족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0) 하십시요.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15.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6. 변비가 있다. ( )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인천시 북구 산곡동
저는 58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등을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더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신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내적 충실…대사회 역할 미흡

'97 4대종단 성과와 아쉬움

대사회적 역할의 증대와 종단내 산적된 현안문제 해결에 분주했던 97년. 조계 태고 천태 진각종의 한해를 되돌아 보며 성과와 아쉬움을 점검한다.

조계종 국내외 전법 거점사찰 지정
태고종 종단위상 강화 주력했지만…
천태종 4년만에 새스님 51명 배출
진각종 '닫힌 종단' 이미지 벗기 노력

조계종 올해를 '전법의 해'로 정하고 전법의 기틀을 다지는데 전력했다. 서울 봉은사와 광주 향림사 등 6개의 사찰을 전법시범도량으로 지정하고 인천, 목포를 전법거점지역으로 정하는등 전법의 기초를 세웠다. 미주 유럽등 세계 5권역에 전법거점사찰을 선정한 것도 전법의 세계화를 위한 중요 포석으로 꼽힌다. 또 전법 의지의 결집과 확산을 위한 종단 지도자회의를 개최해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마련, 종책의 지표를 도출해 내는 노력도 보였다.

7월초 종단의 국립공원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인상 방침과 관련 국립공원관리긍단이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분리징수하면서 시작된 '국립공원 입장료 분리징수문제'는 법주사의 산문폐쇄 단행과 종단 각 기관의 강경대응으로 3개월간 정부와 갈등관계를 유지했다. 결국 10월 14일 종단과 정부가 합의, 전면적인 산문폐쇄의 고비는 넘겼으나 정부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충돌할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조계종의 가장 큰 수확은 불교관계법의 개정이 이뤄졌다는 것. 종단과 국회정각회등의 공동 노력에 힘입어 3월 국회에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10월에는 시행령이 공포됐다. 또 11월 정기국회에서도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종단의 자주권이 상당부분 확보됐다. 그러나 전통사찰의 농지소유를 가능케 하는 농지법 개정안은 국회차원에서 다뤄지지 않고 농림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법개정의 내용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이에대해 종단 안팎에서는 적극적인 법개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태고종 올 한해를 종단발전을 위한 활로모색의 해로 정하고 발전적 변화를 시도했으나 별다른소득은 없었다는 평가다. 태고종은 연초부터 지도부의 인식변화를 토대로 한 종력결집, 분규종식, 교육체계 확립 등을 내세워 종단중흥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종단위상에 대한 위기감과 '변화 불가피론'의 내부욕구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에는 선암사에서 종단 간부·중진 연찬회를 열고 조계종으로의 종명환원, 동방대 선암사내 설립, 사찰분규 완전종식 등을 천명하는 등 예년에 볼 수 없던 굵직한 사안들을 현안으로 떠올렸다.

그러나 이후 종명환원 의지는 실종됐고, 동방대 건립문제는 지난 11월 중앙종회에서 '수도권 일대 제2의 장소에 건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또 지난 9월 실시된 행자소양시험에서 종단사상 최초로 38평을 탈락시키는 등 교육체계 확립 및 승려의 잘적향상을 꾀하는 듯 했으나, 불과 한달새 이들을 모두 합격시킴으로써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했다.

천태종 지난 8월 4년만에 수계식을 열어 51명의 스님을 배출하고 내부조직을 강화했다.

포교분야에서 단위 사찰별 활동이 약진하는 성과도 보였다. 특히 포교, 복지등 종책의 다원화와 사회적 역할 모색에 대한 욕구가 내부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은 향후 천태종의 변화를 예측케 하는 대목으로 꼽힌다. 종단최대 불사인 서울 관문사 불사는 예정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진각종 창종 50주년을 맞이해 '닫힌 종단'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개방'의 다리를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한 해를 보냈다는 평가다. 지난 10월 사회복지법인 설립방침을 밝히고, 북한동포돕기와 '팔만대장경에 새생명을'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등 외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천태·진각 두 종단 모두 내적 충실도 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것과 반대로 불교계나 대 사회적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은 면키 어려울 듯하다. 학술, 문화, 예술, 교육, 복지 등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종교적 기능과 함께 종단간의 화합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임연태·한명우 기자



◇조계종과 선학원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해를 넘길 전망이다. 사진은 11월20일 온양에서 열린 선학원 전국 분원장 회의.

입장차 못좁히고 '양극화'

해 넘기는 조계종 선학원 문제

조계종, 연내처리 방침속 행보주시
선학원, 19일 이사회 '정관개정 불가'

조계종·선학원 문제가 양극화 기류만 심화시킨채 해를 넘길 전망이다.

선학원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개정등의 조계종 요구사항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선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20일 온양에서 개최한 분원장회의 참가자와 불참자에 대한 우편 설문조사결과과 대부분의 분원장들이 '조계종 정관 개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임원에 대한 징계에 행보를 같이하겠다'는 의견에 동조한 점을 감안 조계종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학원이 94년에 실시한 설문에서도 89%의 분원장들이 '정관개정 불가'의 입장에 손을 들었었다.

따라서 조계종이 11월 밝힌 '일도양단'의 강경수를 철회하지 않는한 선학원은 임원에 대한 징계등 종단 방침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또 선학원은 교육기관설치, 수계제도 확립등 자구책을 강구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선학원은 선학원의 역사성과 조계종과의 관계를 감안, 대화를 통한 해결의 기대를 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지난 11월 4일 선학원에 최후통첩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뒤 13일 선학원 대책반을 구성 선학원 소속 승려에 대한 종단교육 혜택등의 권리제한과 재산환수와 관련된 법적대응, 임직원 징계등을 골자로 하는 제118회 중앙종회의 결의 사항을 시행할 채비를 갖추고 선학원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조계종의 이같은 조치는 선학원 소속 분원장들을 더욱 자극시켰을 뿐 원만한 해결점의 모색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조계종 선학원 문제는 96년 8월 26일 양측 대표의 합의문 발표에따라 구성된 실무회의가 97년 7월과 8월 두차례 열렸으나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징계'와 '자구책 강구'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분위기에서 해를 넘기고 있다. '연내 해결 방침'을 세웠던 조계종과 '종단 요구불응' 방침이 굳어진 선학원이 내년에는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연태 기자

목어

승자와 패자

동이 트기엔 이른시각, 산사의 새벽예불이 시작되는 시각, 19일 새벽3시. 역사적인 제15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은 김대중 후보의 당선소식을 전했다. 3시30분 KBS-TV는 김대중대통령당선자의 인생과 정치역정을 그린 '인동초의 고난과 승리'를 방영했다. 정치입문 43년, 대권도전 26년만에 이룬 그의 승리를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인동초에 비유했다.

"21세기 번영의 꽃을 피우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김대중대통령을 만들었다. 40대 기수로 대권에 도전하여 민주화를 열망하며 한길을 걸어온 그는 늘 역사의 한 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시대의 양심이었다. 감옥에 갇히고 다리를 절게 되는등 여러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꺾이지 않았다.

73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주장하는등 그는 앞을 내다 보았고 야당 정치인의 지조를 지켰으나 공산당으로 매도되고 폭력선동가로 낙인 찍혔다.

인간 김대중, 그의 진실은 가리워졌지만 나라 밖에서는 알려져 있었다. 민중과 국가에 대한 애정과 땀과 눈물의 결정체 평화주의자 김대중. 그는 여러차례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선정됐다.

3전4기 끝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김대중. '敬天愛人' 그는 이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한다."

KBS-TV는 김대중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을 위한 기도로 '인동초의 고난과 승리'를 마무리 했다.

이에 앞서 새벽3시가 채 못되어서 이회창후보는 당사에 나와 대국민성명을 내놓았다.

"김대중당선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지지해준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새 대통령 당선자가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풀어나가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날이 밝으면 당선자에게 축하화분을 보내겠다는 이회창후보의 '깨끗한 승복'은 나라사랑에 승자와 패자가 없음을 보여줬다. 선거전에서는 온갖 흑색비방이 난무했지만 이제 남은 일은 국민 모두의 단결과 화합뿐이다.

"분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이 온갖 고뇌를 맛보게 된다."

평화와 화합에 대한 경전의 가르침이다.



수요 인터뷰

불교방송 새 이사장 도후 스님

"경영정상화 우선 역점"

빠른시일내 업무파악 공금횡령건 마무리

불교방송 재단이사회는 15일 제29차 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장에 도후스님(신흥사 주지)을 선임했다. 지난 4월부터 8개월여를 끌어왔던 직무대행 체제를 마감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사장 도후스님에게 앞으로의 계획과 경영정상화 및 공금횡령사건 수습 대책 등을 들어본다.

- 불교방송에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사장 취임 후 가장 먼저 푸실 현안은.

▲지금 방송국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잘 모릅니다. 우선 방송업무를 파악하고 나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갑작스런 일이라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앞으로 각 부서별 업무보고도 받고 방송 전반의 문제해결에 주력해야 겠죠.

- 그동안 이사장 후보로 여러 스님들이 거명됐었습니다만, 스님은 예상 밖의 인물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려울 때 일수록 역량있는 어른이 이사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원장스님을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만 조계종 종헌 종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사장 맡을 만한 역량이나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를 추천해 주신 다른 이사들과 불교계 전종도를 위해 불교방송 거듭나기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 공금횡령사건이 발생한지 1년여가 됐습니다. 공금횡령사건 관련이사들의 문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선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이 책임질 부분인지 아닌지 파악해야겠지요. 필요하다면 재단사무국 방송국 양쪽 모두 공신력있는 감사기관을 선정해 감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제129차 종회에서 조계종 이사 전원 사퇴를 결의했는데 오늘 이사회에서 보류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조계종 파견 이사들이 사퇴하고 나면 이사회 진행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퇴 결의라는 것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라는 경책의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기도 하구요. 무엇보다 경영정상화와 공금횡령사건 수습에 힘쓰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장 선임 일정을 추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진흥원 측에서 사장 추천을 해오면 곧바로 이사회를 소집해서 사장을 선임해야죠. 늦어도 내년초면 해결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들려주시지요.

▲실추된 불교방송의 명예 및 실리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실수는 너그럽게 봐주시고 나태해질 때 채찍질을, 문제가 생기면 방향제시를 해주시고 선의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종단과 방송국이 풀어야할 문제가 있다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종단의 뜻을 잘 받들고 방송국도 잘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재단을 운영하는 위치라기 보다는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마찰을 줄이는 중재자라고 생각하는만큼 불신받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강지연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북한산 국녕사 중창불사 모연문

귀의삼보 하옵고

능인선원이 호국도량 **국녕사 중창불사**를 시작합니다.
북한산 義相奉 남쪽에 자리한 호국도량 국녕사는
기록에 의하면 86간이나 되는 대가람이었습니다.

사명대사께서는 국녕사가 흥하면 나라가 흥하고,
국녕사가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5년여의 노력 끝에 빈 절터만 남은 국유지를 불하받아
가람을 복원코자 중창불사를 발원하였습니다.

오늘의 사회가 불교계에 기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누구든지 와서 정진하는 도량,
국운 융창을 기원하는 호국의 도량 중창불사가
사부대중이 수희 동참하는 원력이 담긴
도량이 되도록 설판의 장을 마련하오니
선근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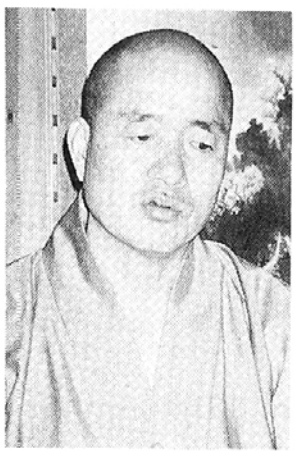
■ 중·창·불·사 ·개·요 ■

1차 대웅전, 수련원, 종각, 산신각, 일주문 건립
2차 불상조성, 목각탱화, 단청, 범종, 조경

● 기도장소 : 국녕사(북한산), 능인선원(서초동), 능인선원(포이동)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국녕사 중창불사추진위원회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국녕사 신도회, 대한불교조계종 능인선원 신도회, 재단법인 능인불교선양원, 능인선원, 능인회, 능인불교대학, 능인법사대학원
● 연 락 처 : 국 녕 사(☎ 02-387-322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16-8번지
능인선원(☎ 02-554-841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2-404번지
능인선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55번지
(☎ 02-577-5800 교환 241, 244, 245, 246 FAX. 02-577-0052)

대한불교조계종 국녕사 중창불사 추진위원장 · 대한불교조계종 능인선원 주지
재단법인 능인불교선양원 이사장 ·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이사장 지 광 합 장

"어린이 포교 보람 크지요"



제9회 포교대상 정련 스님

"너무나 과분한 상입니다. 유아교육과 복지, 사찰불사 등의 활동을 통해 포교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입니다."

20일 유아교육, 어린이포교, 경승활동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제9회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한 부산 내원정사 주지 정련스님은 그간의 활동보다 앞으로 더욱 부단한 포교활동을 펼칠 것을 피력했다.

12년전인 85년 내원정사 유치원을 설립해 어린이포교를 시작한 스님은 어린이 불교학교 개설, 어린이 유아교육을 위한 지도자 지침서 발간 등 유아교육, 어린이포교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어린이포교는 단기적인 결과물을 얻지는 못하지만 유아시절 맺은 불법과의 인연이 불국토의 씨앗이 되어 뿌리를 내려간다는 점에서 보람이 큰 불사입니다."

어린이포교에서 부모포교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스님은 앞으로 종단차원에서 유아포교, 어린이포교, 청소년포교 등에 대한 일관성있는 교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련스님은 "포교활동 자체보다 포교의 진정한 핵심은 수행자의 수행하는 모습속에 있다"며 "스님들 스스로 언행, 계율을 통해 수행자의 모습을 지켜 수행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포교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부모 포교까지 자연스레 연결 통일교재도 절실"

교육·복지 등 불교사회화 10년

사찰·재단 조계종등록 능인선원 지광 스님



능인선원 주지 지광스님이 도심포교 10년의 성과를 발판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이를위해 스님은 우선 능인선원 관련 재단과 사찰을 조계종에 귀속시키며 종단과의 유기적 관계를 정립했다. 스님은 최근 북한산 국녕사와 서초동 법당을 종단에 등록했다. 또 지난 8월 설립한 재단법인 능인불교선양원의 이사장을 '조계종 종지와 종통을 존대하는 조계종 스님으로 한다'고 못박아 종단과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했다.

88년에 설립한 포이동 종합사회복지관 법당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종단에 등록할 방침이다.

지난 10년간 하루 3시간 이상 잠자리에 들지 않았던 스님은 교육을 통한 포교가 가장 급한 일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능인선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의 7만여평 부지에 불교대학을 설립하고 충북 음성의 26만평 부지에는 종합불교타운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있다.

"교육을 통한 포교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 지난 10년간 능인선원을 운영하며 가장 보람있었고 효과적이었던 것이 능인불교학교를 통한 포교였습니다. 86년 47명으로 시작한 능인불교학교에 지금은 낮반 2천5백여명과 밤반 1천5백여명이 입교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간 능인불교학교를 수료한 불자는 6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스님은 그간 4백여명의 학인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며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후원활동, 불우이웃돕기 등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삼성병원에 법당을 열어 간병인 교육과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광스님의 포교 역량은 조직관리에서 돋보인다. 신도로 조직된 83개팀의 운영부서와 8백여개의 전국 가정법회, 7개의 거사조직 능인회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포교의 극대화를 창출해 내고 있는 것.

염불의 음률까지 세심히 연구하며 법회를 이끌고 있는 스님은 "지난 10년이 기틀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교육과 종합복지 등을 통한 불교의 사회화에 매진하는 정진의 기간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임연태 기자

교차로

새해 사업계획 논의



지선 전국불교운동연합 의장스님은 23일 전불련 법당에서 '97 송년법회를 갖고 98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독거노인에 라면 이불 전달

지홍 양양 낙산사 주지는 17~21일 관내독거노인 1백90명에게 겨울용 이불 1채와 라면 1상자를 각각 전달했다.

개금불사 1백일 기도

세민 수안사주지는 23일 개금불사 1백일기도를 봉행했다.

이에앞서 20일 수안불교대학 졸업식을 거행했다.

'경제 살리기' 결의대회



원행 동해시 불교사암연합회장스님(삼화사 주지)은 13일 천곡동 국빈관에서 '불교지도자 경제살리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전기 1등 끄기 생활화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어린이 포교교사 격려

정여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장 스님은 13일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열린 '97 교사의 밤' 행사에서 한해동안 어린이 포교 일선에서 활동해온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청송교도소서 수계법회



혜철 불교교화복지선도회 이사장스님은 16일 청송 제 2교도소에서 수계법회를 봉행, 재소자 1백명에게 계를 주었다.

유해환경 정화 캠페인

선일 인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장 스님은 13일 인천 주안역 부근에서 3백여명의 학생, 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통일 위한 종교계 역할' 토론

법혜 민족불교증앙협의회장 스님은 19일 6개 종단 지도자들과 함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회의실에서 '통일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했다.

신라토우 특별전 개최

강우방 국립경주박물관장은 22일부터 내년 2월1일까지 '신라토우 특별전'을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심장병 치유 최월향양 "도움준 불자들에 감사"



중국에서 선천성 심장병인 심장할로사증으로 치료불능 판정을 받았다가 감로심장회(회장 보운스님)와 경상대학교 의료진의 도움으로 새 생명을 얻은 교포 어린이 최월향(9세)어린이가 18일 오후 중국 요령성 신명만족자치현 흥모자향영 조선족촌으로 귀향했다.

〈본지 153호 4면 참조〉

최어린이는 감로심장회 김용필 사무장의 안내로 장춘자할머니(57세)와 함께 16~17일 조계사, 경복궁, 종묘, 63빌딩 등을 구경한 후 본사에 들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종 웃음을 띄며 즐거워 하는 최어린이는 "고국의 불자들이 저의 생명을 구해주고 따뜻하게 보살펴줘 감사드려요. 어른이 되면 반드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재〉

독립운동사뷔서 월례발표

김순석 순천향대 교수는 30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주최하는 월례연구발표회에 참석, '일제의 황민화정책과 조선불교단'을 주제로 발표한다.

인연따라 주위에 전법

포교사고시 수석 김호철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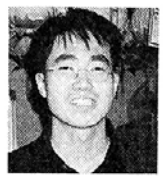
조계종 제3회 포교사고시 수석합격의 영예를 안은 김호철경감(군산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장, 동산불교대학 졸업).

"내 안의 번뇌를 다스리고자 불교공부를 했는데, 수석합격까지 안게 되다니 뜻밖입니다. '수처작주(隨處作主)'라는 가르침이 있듯이 현재 처한 상황속에서 인연따라 주위 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경감은 86년 경찰대학에 입학, 당시 이 대학 불교학생회 지도법사인 정무스님(이천 영월암 주지)을 통해 법전(法田)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운〉

교육·정보사업 전개

대불련 36년차 회장 박성철 씨



"올해가 신행혁신을 위한 준비단계였다면 98년은 신행혁신을 위한 실천의 해로 만들어 가겠다."

13·14일 대각사와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정기총회에서 36년차 회장에 선출된 박성철군(동국대 법학과 3학년). 그동안 서울지부장을 맡으며 초석을 다진 '대불련 바른자리 찾기' 방안으로 교육 및 정보통신 분야를 중점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한 대학생 불자로서의 위상과 중앙-지부-지회간의 유대강화, 젊은 불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필〉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기장중학교 1학년 3반 10,690원 △기장중학교 2학년 1반 10,600원 △이춘경 1,000,000원 △노태영 500,000원 △정서환 500,000원 △유영진 300,000원 △마경숙 110,000원 △김경희 100,000원 △방순권 100,000원 △최윤형 100,000원 △한대천 100,000원 △김수현 61,050원 △전병득 55,820원 △안병철 50,000원 △김정욱 50,000원 △김정민, 김상훈 49,000원 △김홍락 48,170원 △곽정란 48,000원 외 △한 끼 굶기운동 1,436,000원 △밥 한공기 나누기 165,000원 〈17일 현재 총 885,826,051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극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골든디스크상 받아

설운도 현숙 UP 언타이틀

'97대한민국 영상음반대상 골든디스크상에 불자가수들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6번째 본상을 수상한 설운도씨를 비롯 UP 언타이틀 이 본상을 받았고, 현숙씨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절에서 성탄축하

Focus

'성탄을 축하합니다.'

서울 강북구 화계사(주지 숭산)가 11일 절 입구이자 한국신학대학 바로 옆 대로를 가로질러 내걸은 성탄축하 현수막의 문구이다.

주민들은 "절에서 웬 성탄축하 현수막을 다 거느냐"며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그러나 화계사의 입장은 정반대.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을 표방하는 도량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화계사가 성탄축하 현수막을 내걸은 것은 95년. 국제선원 외국인스님들과 3직스님의 발의로 시작됐다. 첫해에는 불자들조차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올해는 신도회에서 먼저 나설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한신대에서 봉축현수막을 내걸을 정도로 종교간에 서먹했던 관계도 호전됐다. 화계사측은 "종교인들이 먼저 자비와 사랑의 손을 내밀 때 두터운 종교의 벽은 허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

'98 삼화불교대학 학생모집

■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야간■통신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통신		
중국어과	2년	■주간■야간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		
동양화 (禪畵)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통신		
동양 풍수과	2년	■야간		

■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야간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11 본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예정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8.2 동양화(선화)과, 동양 풍수과 개설

■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7년 12월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 5. 원서교부및문의처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511-2026~8)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8학년도 동산불교 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2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강사

1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우진정 스님(본대학학장) · 권기종(동국대교수) · 혜원스님(동국대교수) · 윤열수(동국대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 박사(상락학원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 방증(인성개발연구원장)
2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반야사상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불교 사회 복지론	· 암도스님(교육원장) · 정승석(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김영태(동국대교수) · 요주스님(동국대교수) · 장휘옥(전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97년 12월 20일~ 98년 1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6시 불교회관 및 동산빈당	통신반은 지방 거주자나 출석 수강이 어려운자만 가능

4. 입학일시 1998년 2월 7일(토) 오후 6시(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웅전갤러리 4층)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733-0333) ⊙부산 : 불서 보급사(246-4321)
⊙대구 : 삼영불교서림(425-4097) ⊙대전 : 보 문 서 점(257-0161)
⊙광주 : 불 일 서 점(232-7542)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55-2203)

※ 특전사항 : ❶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❷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우리 모임에선

불교레크리에이션 현판식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는 15일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에 새롭게 사무실을 단장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금강경독송회 정초 기도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새해 1월1일 정오 중원 미륵세계사에서 전국지회 회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초기도법회'를 봉행한다. 〈금강경〉 독송과 '미륵존여래불' 정근, 김재웅법사 법문 순으로 진행. 한편 同회는 21일 오후 11시30분부터 새벽 4시까지 '나라의 안정을 위한 철야정진법회'를 가졌다. (02)742-0172

체육공단 고산사 순례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회장 이태현)는 11, 12일 청주 고산사 및 월악산으로 창립 6돌기념 성지순례. 이번 행사는 경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기념법회 대신 치뤄졌다. (02)410-1211

한통불자회 전국연합추진

한국통신불자회(회장 김문수)는 12일 본사 법당에서 대구본부진여회 서울번호안내국불자회 충남본부불자회 등 10개 지역본부 산하 불자회 임원 모임을 갖고 내년부터 본사를 중심으로 연합회를 구성, 1년에 두 세 차례 합동·수련법회를 여는등 교류를 활발히 전개키로 했다. (02)750-5533

하불동 송년 수계법회

PC통신 하이텔 불교동호회(회장 김주서)는 14일 대전 대아정에서 운영진회의를 열고 △내년 초 우수 글(50편 내외) 모음 책 발간 △운영진 주소록 작성 배포 △우수 글·자료 인터넷 올리기(자원봉사자 모집) 등의 사업을 결정했다. 한편 同회는 27일 오후 3시 대전 보현문화회관에서 대전·충청지역모임을 겸한 수계 및 송년법회를 봉행한다. (02)920-3377

동아대 동문 송년의 밤

동아대불교동문회(회장 이양환·부산시청공무원)는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은행 9층 해암뷔페 대연회장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창립1주년 기념 '송년의 밤' 행사를 갖고 결산보고 및 새해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051)816-0721

"검소한 생활과 봉사에 힘쓰자"

탐방 일승보살회

故 고익진교수의 생활불교 운동 이어
불서 7만권 보시…경전 한글화 추진

"한길(一乘)을 걸어가는 보살이여, 항상 고요한 마음에 머물러 검소한 생활과 봉사에 힘쓰라. 그 마음이 미묘하게 움직여 주리라."

깨달음을 구하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에 충실하며 사회에 봉사하고 법회를 봉행하는 사람들. 교수 교사 의사 회사원 대학원생 등 생활인들의 수행모임인 일승보살회(회장 정하경·국민은행본점 과장)의 '한길 게송'이다.

지난 83년 10월 창립된 일승보살회는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였던 故 고익진교수(88년 입적)가 후학 및 재가불자들과 뜻을 모아 만든 신행모임. 8개반 2백여명의 회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인의 불교도량인 서울 정릉법당(916-7471)과 광주 광륵사(222-7801), 퇴계원 한길법당(0346-574-6160)에 각각 모여 경전공부와 참선정진으로 직장생활에서 쌓인 번뇌(스트레스)를 정화하고 있다.

정릉법당의 경우 매월 둘째 일요일 정기법회가 있다. 오전에는 30여명, 오후에는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지만 불심은 일당백을 자랑한다. 회원들이 교리에도 정통한 한편 참선과 기도정진을 늦추지 않기 때문. 이는 〈아함경〉 〈반야경〉 〈법화경〉을 근본삼부경으로 삼아 경전을 독송하고 참선과 기도를 곁들이는 독특한 수행법에 연유하기도 한다.

또한 회원들은 군부대 교도소 등에 이미 7만권의 불서를 법보시하는 등 포교에도 소리 없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상식 상조회장(한국가스공사 과장)은 "내년 10월 故 고익진 교수 추모 10주기를 기념해 아함·반야·법화경의 한글화 성전을 간행하고 불서 법보시를 확대하는등 대외적인 사업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일승보살회 부회장인 신춘열법사(왼쪽에서 세번째)가 신입법우들에게 〈아함경〉을 강의하고 있다.

"청정한 생활로 경제난 이기자"

서울은행 행우회 창립10돌 법회



"참된 발원은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삶에 있습니다." 최근 외국은행의 인수설이 나돌고 있는 서울은행 불교행우회(회장 이무재·특수관리1부장)는 13일 오후 본점 강당에서 창립(87년 12월 12일) 10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1백여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국가 및 서울은행 위기극복'을 위해 발원했다. 또 정우스님(구룡사 주지)은 축원에 앞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수행의 기조인만큼 불자들이 앞장서 검소하고 청정한 바른 삶을 살자"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 회원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해 잔잔한 감동을 줬다.

서울북부 불교산악회 창립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회장 손현수)의 28번째 단위 산악회인 서울북부불교산악회가 27일 오후 3시 서울 성북구 돈암동 흥천사에서 창립된다. 서울북부불교산악인회는 이날 창립법회에서 회장에 김광호씨(52·태성하우징 회장), 감사에 추용태, 부회장에 최종무, 총무에 조내철씨를 각각 선임하고 북한산 지역의 자연보호와 산행을 통한 신행과 포교를 다짐할 예정이다. 개인사업가와 회사원, 주부 등 30~50대 남·녀 회원 70명으로 구성된 회원들은 영담스님(신흥사)을 지도법사로 초빙해 월1회 사찰순례법회를 통해 심신을 정화하고 참선·교리공부도 지속할 계획. (02)921-6155

새해맞이 철야정진 대구구도회 부처님마을

철야정진으로 맞는 새해 아침.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회장 한동대)와 PC통신 나우누리 부처님마을(회장 박춘동)은 새해맞이 철야정진법회를 통해 희망찬 서원으로 새해를 맞는다.

대구구도회(053-355-1900)는 31일 오후 9시부터 구도회 법당에서 3천배정진 및 참선 등으로 송년 철야정진 법회를 갖고, 부처님마을은 31일 오후 8시부터 서울 연화사(02-962-6186)에서 새해맞이 철야정진법회를 갖는다.

소년가장·연꽃마을에 '자비의껌' 성금 전달

대구개인택시정법회

대구개인택시정법회(회장 김주본)는 28일 대구 범어동 혜림원법당에서 송년법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열고 소년소녀가장 18명에게 등록금을,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에 후원금과 물품을 각각 전달한다.

이번 성금은 370명의 회원이 고된 영업틈틈이 승객들에게 '자비의 껌'을 팔아 정성스럽게 모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서 더욱 의미가 깊다.

지난 10월26일 창립11주년을 맞은 정법회는 이미 8년전부터 연꽃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분기별로 수백만원의 성금과 물품을 후원해 왔다. (053)764-0766

'영불회' 법당마련 봉불점안식

창립3돌 맞아…환자 쾌유 발원

영남대학교 의료원 불교신행회(회장 강복수 영대의대학장)가 창립3주년을 맞아 숙원사업이던 법당을 마련하고 16일 봉불점안식을 거행했다. 영불회는 지난 10월 영대의료원 신관9층에 불교종교실을 개원한뒤 이날 봉불점안식 및 창립3돌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영불회는 법당개원 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각 지호 득도 우학 지도스님등 5명의 스님과 영남불교대학생 등이 번갈아 가며 타 종교가 독점하다시피 했던 환자상담과 임종상담 및 교리상담에 나서고 있어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법회에는 영불회가족과 병원 환자를 비롯 해인사기획실장 무관스님, 지도법사 인각스님, 상담법사 득도스님, 정상립 경대병원불자회장, 남두희 前거사림정법회장, 김즉본 개인택시정법회장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했다. 강복수회장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살아 숨쉬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봉불점안식을 계기로 병고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들이 속히 쾌유되길 빈다"고 말했다.

점안식을 가진 보살상은 약 60㎝ 높이의 목조 관세음보살 좌상으로 복장에는 경전과 약재등 1백21가지의 성물이 봉안됐다.

대구=이윤호 기자



◇영남대 의료원 불교신행회 창립3돌 법회에서 무관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광주사암련 남순지장회에 후원금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상명)는 15일 향림사에서 귀순불자모임인 남순지장회(회장 김명철)에 후원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11월3일 개최된 광주불교합창예술제에서 북한동포와 귀순자모임 남순지장회 돕기 성금으로 모아진 것. 이 자리에는 천운 향림사조실, 영조 증심사주지, 상명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김명철 남순지장회장 등이 참석했다.



동국대총동창회 '동국인의 밤'

동국대총동창회(회장 황명수)는 16일 서울 소피텔앰배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6회 '동국인의 밤'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송석구 동국대총장, 유주형 충남방적그룹부회장, 유근창 청구주택고문, 안채란 동국학원이사, 구자선 태우주택대표이사, 우순이 대영실업대표이사, 선진규 봉화사수련원장, 김동정 변호사, 영화배우 한석규, 개그맨 이경규씨 등이 참석했다.



예비역 공군불자 첫 법회

예비역공군법사회(회장 성진스님)는 15일 보라매법당에서 예비역 공군 장·사병들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교육원 연구소장 밀원스님을 비롯 김홍래 前 공군참모총장, 허성구 대원불교대학 학장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했다. 예비역공군법사회 회장 성진스님(진주 총국사주지)은 인사말을 통해 "매달 한 번씩 예비역 불자들과 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1회 대한민국통일서예대전

제1회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이 15~23일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렸다. 불교서예인협회와 평불협이 공동 주최한 통일서예대전에는 최우수상을 받은 백종춘씨의 예서 '대련'등 총 3백40점이 전시됐다. 15일 개막식에는 법타(평불협 회장) 진우(불교서예인협회장)스님 김재일(동산반야회장)씨와 구당 여원구, 청봉 안병철, '계정 민이식씨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도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기능올림픽 수상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법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 표 김 옥 수 합장

축 개관

법륜사 수향회관 입주자 모집

삼보귀의 하소서!
연로하신 노인들의 아름다운 회향을 법륜사 수향회관과 함께 하십시오.



■ 완공된 법륜사 수향회관은? ■

① 아담한 한옥과 편리한 현대식이 어울린 최고의 시설과,
② 자체 농사로서 무공해 음식을 제공하며
③ 욕탕 의료, 운동시설, 휴게실등을 갖추어
④ 가족과 친지분들이 오셔서 함께 수행할 수 있으며
⑤ 지치고 얽히고 설킨 한과 고를 소멸할 수 있는 기도와 좌선 예불을 올리며
⑥ 노인 개개인의 건강과 취미에 따라 비구니 스님께서 정성껏 모시며
⑦ 특히 치매노인을 10명까지 입주시킵니다.

평생 수향 분담금 안내

남녀총인원	65명	※ 자격 및 연령제한 없습니다.
방1실 ~ 1명	평생 수향하실 분 - 3천만원	◆특혜 : 치매노인 10명 선착순 마감 (4천만원-평생)
방1실 ~ 2명	평생 수향하실 분 - 2천5백만원	
방1실 ~ 3명이상	평생 수향하실 분 - 2천만원	
고 시 생	00명	(단, 3개월,6개월 이상자에 한함 - 일부 보증금, 월30만원)
문 의 처	본찰 법륜사 0543-955-1379	
	부산 법륜사 051-331-3084	

※ 빠른 시일내에 접수마감되오니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접수마감 : 12월말까지
※ 위 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선주리 (해인사 길목, 경남·경북 경계선)

·주지: 운 봉 ·총무스님: 자 혜 ·신도회장: 이 경 자 합장

법회안내

유성 광수사 (042)823-0332

◇주지 세운스님
신도정기법회 매월3일(양) 오전11시
청년법회 매주 금요일 오후8시20분
학생·청년회 철야정진법회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8시
토요법회 매월 셋째주 토요일 저녁 11시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1시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1시
특별기도 매월 셋째주 토요일부터 3일간

법융사 (02)449-9740

◇주지 승혜스님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1시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1시

거암정사포교원 (02)379-6940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1시
교리법회 매주 금요일 오전11시
광명법등기초교리강좌 매주 금요일 오후7시
건강법회 매월 마지막 일요일 오전10시30분
화엄성중기도법회 매월1~3일(음) 오전11시

백화도량 (02)929-0829
담선법회 매주 수요일 저녁7시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1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부산 공창사회복지관은 98년 1월8~9일 중·고생 '선캠프'를 개최한다. 사진은 청보리학생회가 서울 충정사에서 좌선법회를 하고 있는 모습.

신행수첩

"마음을 다스리자"
공창복지관 청소년 禪캠프

불완전한 청소년기, 그 텅빈 그릇을 선의 향기로 채워줄 선캠프가 열린다. 다른 이보다 앞서야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하고, 물질적인 것이 우선되는 세태에서 공창사회복지관(관장 심산)이 마련하는 선캠프는 전도된 가치를 바로 잡아주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다.

1월 8일, 9일 울산 내원암에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선캠프에서 선체조, 참선, 발우공양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수련의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또한 등반, 사찰주변 정리, 〈반야심경〉 사경 등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생활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줄듯. (051)363-2063

추위이기는 용맹정진
대구구도회 선암사 수련회

'겨울 추위를 용맹정진으로 이겨내자.'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회장 권오주)는 25~28일 3박4일간 조계산 선암사(주지 지허)에서 겨울수련회를 갖는다. 매일 새벽예불에서부터 시작해 참선 강의 법문(지허스님)과 '재가불자의 신행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며, 마지막 날은 3천배 기도정진으로 회향한다. 겨울산사의 정취를 만끽하며 발심의 기회를 가질 불자는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053)355-1900

"눈을뜨고 마음을 열고"
문빈정사 어린이 인연학교

광주 문빈정사(주지 법일)는 26~28일 2박3일 동안 '눈을 뜨자, 가슴을 펴자, 마음을 열자'라는 주제로 어린이 인연학교를 연다.

어린이들의 배움마당이 될 이번 행사는 △부처님 이야기 강의 △갉은 심성 가꾸기 훈련 △집단 명상 체험 △민요 배우기 △모닥불 놀이 △수계의식 등의 일정으로 꾸며진다.

이번 프로그램은 21세기 주역으로 성장할 어린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인연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 (062)222-2202

초심자위한 불교입문
부산 선암사 교양대 개강

불교는 맹목적인 믿음의 종교가 아니다. 과학적, 체계적, 사상적 접근으로 무조건적인 믿음을 탈피, 인생의 진리인 불교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불교교양대학이 열린다. 부산 선암사(주지 원타)는 초심자들을 위한 선암사 불교교양대학이 그것. 선암사 대웅전에서 1월7일부터 3월5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목요일마다 열리게 되는 교양대학에서는 불교의 사상을 배우는 기초교리, 그 사상을 체득하는 참선, 사원예절, 기도하는 법 등을 강의한다. 원서접수는 1월7일까지. (051)803-7573

형상넘어 여래를 보자
능인선원 금강경등 강의

능인선원(원장 지광스님)은 98년 1월5일부터 6개월간 경전연구반 강좌를 개설한다.

주2회 개최될 이번 강의는 〈금강경〉 〈해심밀경〉과 불교의 본질 등을 지광스님이 강의한다.

능인불교대학 4개월의 교육과정을 새롭게 심화시켜 보완한 수행교육프로그램은 경전 연구를 통해 심오한 불법의 세계에서 쉼없이 공부하는 참불자의 자세를 가다듬어 줄것이다. (02)577-5800

새해맞이 성지순례·해돋이기행

부산불교교육원 부산불교교육원(원장 성재도)은 98년 1월 1~3일까지 '고즈넉한 산사를 찾아서'란 테마로 문화기행을 실시한다.

2박3일 일정인 이번 사찰순례는 적멸보궁인 정선 정암사와 사자산 법흥사, 충주 중앙탑, 제천 원풍리 마애여래좌상, 상주 남장사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짜여졌다. (051)466-4080

터사랑 국토문화순례 터사랑(대표 전숙희)은 98년 1월1일 대흥사와 보길도를 답사하고 우리나라의 땅끝 토말에서 새해를 맞이한다. (02)725-1284

두레 시민모임 두레(회장 김재일)는 31~98년 1월2일까지 '한려수도에서 일출을'이란 주제로 신년 일출답사를 떠난다.

이번 기행지는 여수 향일암, 광양 중흥사지, 흥국사, 보리암, 충렬사 등이다. (02)712-5812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설조스님·김윤환·유현석)은 31~98년 1월1일까지 무박2일동안 '해맞이 문화 역사기행'을 떠난다. 이번 답사에는 향일암, 흥국사, 선암사 등을 둘러보게 된다. (02)766-5390

나의 수행일기



이기향 〈한성대 교수·의류직물학과〉

불화를 테마로 의상작업

'보왕삼매론' 새기며 막힌 일 풀어

중생의 삶이 천차만별이듯이 수행 또한 각자 자신에게 인연 지어진대로 꾸준히 정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새 작품을 시작할때면 내 작품속에 부처님 말씀이 투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이 살아가는 삶속에서 불법을 시대에 맞게 풀어내고 만들어 나가는 일이 재가불자들이 해야할 대승적 수행의 길이라 여기며 정진하고 있다.

불화를 테마로 의상 작업을 해 나가다 보면 창작능력의 한계와 일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때면 언제나 사찰을 찾아가 백팔참회를 하고 〈보왕삼매론〉을 독송한다.

"일을 계획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풀리면 경솔해지기 쉽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길 많은 세월을 두고 일을 성취하라."

어느새 교만했던 마음은 경전속에 스며있는 가피에 흠뻑 젖어 사라진다.

나와 불교를 처음으로 인연 맺어 주신 분은 시어머님이시다. 미국 유학서 돌아온 1987년. 어머님의 권유로 최석호법사(법륜스님)의 기초교리 강좌를 수강하게 되었다. 불교에 대해 무지했던 나는 스스로 접해보고 불교를 택할 것인지 가부를 결정하리라 마음 먹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처음 접한 불교 강의는 뜻밖에도 아주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골치 아픈 한문경전의 해석도 아니었고 부처님께 복을 구하는 구복의 내용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였다. 삶을 편안하게 어루 만져주는 지혜로 가득찬 내용이었다. 이것이 불교라면 믿지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환희심이 자꾸자꾸 솟구쳐 올랐다.



그후 나는 여러 해에 걸쳐 인도의 4대성지를 비롯 남방불교권의 성지를 돌아보며 그들의 불심이 스며있는 불교 미술을 유심히 살펴보게 됐다. 대체로 남방불교권의 불상조각은 우리와 정서가 달라서 일까, 내 눈에는 표현이 서툴고 법당장엄에 있어서도 심미감이 부족하게 느껴져 선뜻 경건한 마음을 내지 못했던 기억이 여러번 있었다. 물론 남방불교권에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훌륭한 불교유적들이 다수 있음은 우리 모두 잘 아는 일이다.

비슷한 또 하나의 예는 우리 주변의 사찰에서도 볼 수 있다. 삼국시대 이래 찬란한 불교문화가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는 후기에 이를수록 불교미술이 쇠퇴했다. 또 일제의 불교말살 정책으로 근세에 접어들면서 불화는 고려불화에서 이어지는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원색의 사용으로 도식화, 평면화된다.

물론 이들 불교미술이 숱한 역사의 질곡속에서도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고 또 의연하게 불심을 담고 있음을 볼때마다 진한 감동과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승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새겨지고 그려질때면 왜 많은 경우 환희심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일까? 좀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친밀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항상 불법과 의복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꿈꾼다. 이 작업은 우선 불화에서 디자인을 응용해 내는 일로 시작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이에게 친밀감을 일으키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창출해 내 중생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일이다. 또 불보살의 자비정신이 옷위에 충만할 수 있도록 거듭 생각하고 표현의 시행착오를 거쳐 다른 문화권에서도 포용할 수 있는 색과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다.

불보살의 형상이 중생과 하나되고 그 옷을 입은 사람마다 환희심을 내이 세상이 더욱 맑고 밝아질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부처님 나라가 아니겠는가?

나는 그런 날이 올때까지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부처님전에 발원한다.

게 시 판

♣ 동정

□ 97년도 문체부공인 1급 청소년 지도사=△선일스님(청교련 인천지부장) △이병두(대원정사 법인사무국 부장) △김남일(동화부고 교법사) △하영태(대불련 부회장) △이미경(청교련 인천지부 사무국장)

♣ 행사

△우리는선우 송년법회 및 졸업식=우리는선우(공동대표 박광서·남지심)는 29일 오후6시 선운문답방에서 '97 송년법회 및 선운강좌 졸업식'을 거행한다.

△불교스카우트 동계수련회=한국스카우트 불교지도자회(회장 권영일)는 98년 1월10~12일까지 2박3일동안 다보수련원에서 동계수련회를 갖는다. (02)292-8502

△불국사 어린이 불교학교=불국사(주지 설조)는 98년 1월4~6일까지 2박3일동안 '어린이 겨울 불교학교'를 연다. (0561)746-1472

△불광 문화예술제=불광학생회(지도법사 본공스님)은 28일 오후 2시 잠실 불광사에서 '효-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제 '제18회 불광바라밀한마당'을 개최한다. (02)3431-7585

△백양사 참사랑 수행결사=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지선)는 98년 1월12~23일까지 2차에 걸쳐 동계 수행결사를 갖는다. 정원은 50명. 대상은 19~50세. 참가비는 7만원. (0685)92-7502

♣ 알림

△헌솜·중고 재봉틀 보시=자비의 전화(회장 정덕스님)는 군법당에 보시할 방석을 만들면서, 못쓰는 헌솜과 재봉틀을 보시받고 있다. (02)737-7378

♣ 강좌

△명리학(주역)=수효사(주지 무구)는 98년 1월9일부터 수효사 문화원에서 명리학 강좌를 개설한다. 지도는 맹란자씨. (02)313-3060

△전문직업 미리배우기=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는 98년 1월19~24일까지 청교련 협력위탁업체에서 전문직업 미리배우기 강좌를 현장에서 직접 실시한다. 대상은 중·고등학생. 수료후에는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02)852-0525

△법사회 신입생=대한불교법사회(이사장 목정배)는 98년 2월25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 '불타의 생애'(목정배) '종교학'(김항배) '불교개론'(해주스님) 등의 강좌가 마련된다. (02)266-1827

△도서 편집부원=도서출판 시공사(대표 전재국)는 불교팀에서 일할 경력 1~2년의 편집부원을 모집한다. 원서마감은 12월31일까지. 구비서류 자기 소개서와 이력서. (02)588-6592

♣ 화촉

△신연규 태고종 한국불교기자는 98년 1월10일 오후1시 인천 한국회관에서 신랑 전성수군과 화촉을 밝힌다.

♣ 모집

△장애인 직업훈련생=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건윤)은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 가능한 13~35세의 남녀 장애인을 모집한다. 훈련직종은 전산과 보석가공. 교육기간은 98년 3월부터 1년간. (0441)845-3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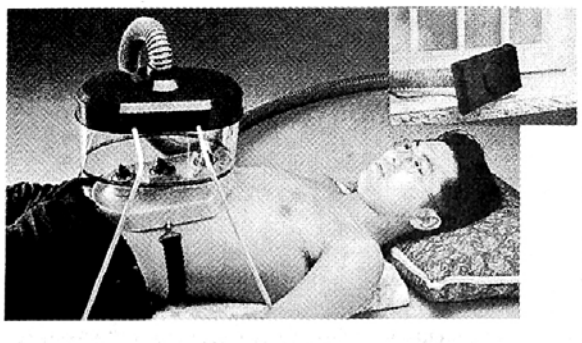
△열린학교 수강생=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98년 1월19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열린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중·고 졸업생.

과목은 간판, 벽화, 차량정비, 컴퓨터조립, 피아노조율, 요리 등이며 회비는 과목별 2만원. (032)577-0266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 보급중!

건강장수쑥뜸을 뜨게되면 유난히 많은 쑥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설치해도 잘빠지지 않고 가구나 옷등에 냄새가 깊이 배어, 쑥뜸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하며 겨울철에는 추워서 창문도 못열고 하다보니 쑥연기로 인해 쑥뜸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 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는 쑥타는 흰 연기를 완전히 밖으로 배출시켜 쑥뜸을 지속적으로 뜨시는 분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선택구입사양) : ₩ 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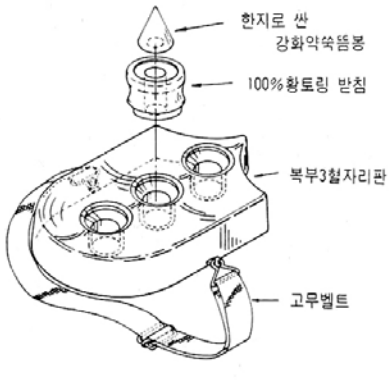
현대인의 건강長壽쑥뜸기

◎ 하루 40분씩만 복부의 단전, 배꼽, 중완 3개요혈에 장수쑥뜸을 뜨십시오 ...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뜨거운 고통과 큰 흉터를 남기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현대인의 만병(萬病)을 다스리는,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 고통없는 뜨거움, 상쾌함이 느껴지는 열자극을 복부전체에 주면서, 주로 쑥의 영묘한 약성분을 배꼽과 단전, 중완의 피부세포를 통하여 몸 속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체질개선과 함께 질병을 치유시키는 방법.

●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1) 사소한 질병이든 불치병, 난치병등 큰 병이든 몸에 한가지 병(病)이라도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2) 지금 자신의 배를 만져 보십시오. 배가 차다고 느끼십니까?
3)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십니까?

◎ 인체에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로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 장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배 주위의 3개 요혈 배꼽, 단전, 중완의 3개 혈자리만 잘 다스리면 웬만한 질병은 거의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보급가격 : ₩120,000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제조원 : 성지관음회(부설: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지역문의 서울: 종로·서대문구(02)747-7033 송파구(02)417-8922 노원구 (02)942-6430 경남: 마산 (0551)23-9016 충북: 제천 (0443)46-3023 경기도: 광주(0347)64-3172 용인(0335)36-4294 강원도: 강릉 (0391)645-2117
부산: 연제구(보문포교원)(051)864-3740 부산진구(051)867-2926 충남: 예산(0458)33-3208 보령(0452)32-5288 경북: 울산 남구(0522)74-7536 울주구(0522)85-1284 포항(0562)75-1560 전북: 익산(0653)856-8659

전통사찰 16곳 CD로 본다

유광정보통신 '한국의 고건축' 제작
"마치 답사하듯 화면 생생"

역사와 전통의 향기가 서린 곳. 우리 고유 문화의 집합체인 부처님의 땅 전통사찰 16곳이 한 장의 CD롬에 담겨 불자들을 찾아간다.

사찰을 담은 CD롬 '한국의 고건축'은 유광정보통신(사장 김연수)이 '저급향락문화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한국고유문화를 바탕으로 흡수해 새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목적 아래 기획한 '한국의 멋' 시리즈의 하나. '한국의 멋'시리즈는 총 4편이 기획됐는데 '한국의 고건축'과 '한국의 무속(굿)' 2편이 우선 출시됐다.



◇'한국의 고건축'에 담긴 금산사 미륵전. 카메라 그림을 누르면 미륵전의 원경과 근경이 한편의 비디오를 보듯 생생하게 전해진다.

'한국의 고건축'에는 법주사 부석사 은해사 화암사 선운사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등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사찰 16곳이 담겨있다.

각 사찰마다 동영상 건축 설명에서부터 가람배치도·보유 유물유적의 현황·일화·여행정보 등을 소개해줘 사찰여행 길잡이 역할도 해낸다. 또 사찰 궁궐 서원 등 한국 건축물의 전반적인 소개를 비롯해 닫집 맞배지붕 배흘림기둥 등 건축용어에 대한 건축구조 그림과 설명을 곁들여 전문적인 지식에의 접근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메뉴 사이 사이 흐르는 금강경 독경소리가 산사의 고아함을 그대로 전한다. 전통문화 맛보기의 견인차 역할을 할 '한국의 멋' 시리즈는 지두환 교수(국민대 국사학과)가 감수를 맡았다.

제작을 맡은 멀티넷팀(과장 박종석)은 "고건축의 소재로 사찰을 선택한 것은 건축학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로는 오래되고 보존이 뛰어난 사찰이 단연 으뜸이기 때문"이라며 "기존에 나와 있는 사찰CD롬은 카탈로그 형식에 그쳤지만 '한국의 고건축'은 사찰 건축에 대한 국내 최초의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CD롬"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달 안에 '한국의 멋' 시리즈의 나머지 2편 '마을지킴이'와 '한국의 풍물'도 출시될 예정이다. '마을지킴이'는 우리마을 어귀에 서있는 장승을 엮었고, '한국의 풍물'은 풍물놀이의 어제와 오늘을 담는다.

이밖에 내년에는 '고적답사'(가제) 시리즈에 착수하고, 99년까지 10여명 정도의 인물을 선정해 '인물 한국사'도 출간할 계획이다. 불화 불상 불탑 당간지주 등 총 10편으로 기획중인 '고적답사'시리즈는 내년 상반기 완간을 목표로 하는데 완간되면 국민대 국사학과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게 돼 교육교재의 새 장을 열 전망이다.

유광정보통신은 앞으로 '고적답사'시리즈가 마무리되면 인터넷과 전자게시판에도 관련 자료를 올려 전 세계에 우리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김연수사장과 지두환교수는 전통문화 수호와 우리문화 알리기를 주로 할 유광문화재단 건립도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강지연 기자

불심시심 〈112〉

하늘 땅 부숴라

任大也須從地起 크다고 자부해도 끝내 땅에서 일었고
(임대야수종지기)
雖高爭奈有天何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이 있는데야 어쩌나
(수고쟁내유천하)
焚天碎地閑無事 하늘 불태우고 땅 부수면 아무 일 없을 것
(분천쇄지한무사)
到此方稱是作家 여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내집 지었다 말하리.
(도차방칭시작가)

이 시도 묵암대사의 시이다. '선을 이해하다(解禪吟)'라고 한 8수 중 한 수이다. 지난 호에 모든 사물을 조용히 살펴보면 비어있음으로 돌아가 호말의 차이도 없다 함을 보았는데 이 시는 그렇게 되려면 이러한 포부를 가져야한다는 사물 관찰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듯하다.

사물을 비어있음의 공허로 보려하면, 사물이 비어 있어서 공허함이 아니라 보는 이의 마음 자세를 비워야 한다는 것이다. 천하에서 가장 크다 하는 수미산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땅에서 솟은 것이다. 또 사물에서 높다는 수직의 한계는 하늘로 극한을 삼는 것이 우리 평상인이 갖는 인식의 극단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높다 라는 극상을 상상하더라도 이 하늘을 뛰넘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높다 크다의 한계는 하늘과 땅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유형의 공간속에 갇혀 있는 범속인의 인식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이런 한계된 인식의 틀을 벗어나려는 것이 지난 호의 시에서도 보았던 것과 같은 정관의 관찰적 자세인 것이고, 이것이 수도의 경지로 승화된 정려요 수선의 자세인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거처하는 처소를 집이라 한다. 이 무한한 넓이의 공간과 견주어 본다면 그야말로 겨자씨만도 못하거늘 우리는 거기에 안주하며 자신의 처지의 전부로 인식한다. 따라서 집이란 나의 육신과 어울리는 제한된 공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본 시에 있어서는 하늘도 불사르고 땅도 부숴버려야 비로소 제 집을 지은 것이라고 했다. 하늘과 땅을 거부하고 나면 공간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우주를 공간 형성의 한계적 표현이라 한다면 이 우주도 하늘 땅이라는 유형의 원초에서 존재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하늘 땅을 부숴버리라 하니 공간의 부정이다. 이 공간을 부정하면 나의 유형물을 경계지을 집이라는 상식마저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상식을 초월함이 바로 나를 찾는 첫걸음인 것이다. 상식의 울에 갇혀 있는 한 나는 나 아닌 남에게의 속박일 수밖에 없으니 집을 지었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참다운 자신을 찾으려면 내 육신의 집보다도 저 무한의 공간적 속박을 벗어야만 참다운 자유를 누릴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한 작가의 위치이다. 선 수행의 길은 이 집을 지으려는 노력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사진박물관 세운다
'사진영상의 해' 사업 확정



◇'사진영상의 해' 심볼과 로고.

'98 사진영상의 해를 앞두고 조직위원회 사무처 현판식이 15일 서울 여의도 한서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조직위(위원장 임응식)는 기자회견을 갖고 △사진박물관 건립 △서울과 평양에서 여는 남북교류 사진전 △21세기 사진영상학술대회 △'98 사진영상 축전 △인터넷 사이버 갤러리 운영 △한국사진도입초기부터 현대까지 발전사를 담은 한국사진역사전 △홀로그램 입체사진 사이버스페이스 등 정지화상과 동영상의 영역을 넘나드는 첨단영상을 소개하는 사진의 시각적 확장전 △광복 50년이후 한국현대기록사진전 △전국민사진축제 등 9가지 중점사업과 △환경사진페스티발 △한국사진 다큐 제작 △독도, 비무장지대 촬영회 등 후원사업 8가지를 밝혔다.

조직위가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은 사진박물관 건립. 120년에 이르는 한국사진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박물관은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내년 1월중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자료수집과 건물확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자료수집은 각 사진단체, 언론기관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진자료를 기증받고 외국의 문서보관소, 박물관, 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진자료를 수집하는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전국민사진찾기 운동을 벌인다.

또 남북의 사진가들이 촬영한 조국산하와 동포들의 생활상을 담은 작품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교환전시하는 '남북교류사진전'은 통일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행사로 관심을 끌고 있다.

'98 사진영상의 해의 공식표어는 '순간의 기록 영원한 역사' '사진사랑 나라사랑 소중한 우리기록' '미래의 세계 사진의 세계'이다. 〈숙〉

"황룡사 복원 가능한 일"
"컴퓨터활용 가상 원형 만든다"
문화재관리국 소실문화재 '복원시스템' 추진

컴퓨터를 이용한 문화재 보수 및 복원작업이 추진돼 훼손된 성보문화재에 대한 복원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은 19일 내년 8월말까지 9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재보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작업으로 문화재 원형복원 지원시스템을 개발, 훼손이 심하거나 소실된 문화재의 원형을 컴퓨터로 복원한다. 또 그래픽을 활용하는 문화재 복원 수준을 뛰어넘어 재질 및 두께, 넓이, 축적 등 현장복원에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까지 지원하게 된다.

시범적으로 경복궁을 대상으로 소실된 흥례문, 유화문 등 옛 건축물의 가상원형을 복원하는 한편 경주 남산의 폐탑 1기와 국보·보물 중 훼손된 석탑 2기의 복원시스템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영역을 확대, 소실된 모든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복원작업에 들어간다.

현재 지정문화재 7천1백30건 중 보수정비대상은 2천여건에 이르나 연간 보수정비는 5백건에 불과한 실정. 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보수가 대개 수작업을 통해 기록 처리되고 있어 원형복원을 의심하는 경우도 많다. 컴퓨터그래픽을 활용, 가상 공간 속에서 복원과 검토 수정을 거듭하며 최선의 대답을 얻어 실제 복원에 들어간다면 문화재 복원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비용 및 시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재의 원형복원 지원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논란이 되고있는 황룡사지와 미륵사지 등 폐사지의 복원은 물론 일부만이 남아있는 석탑과 훼손된 탱화 등 문화재 원형복원작업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림사지 기념관 건립
사찰모형실·유물실 등 갖춰

백제의 대표적 사찰터인 부여 정림사지에 기념관이 건립된다. 부여군은 1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찰모형전시관, 유물전시관, 교육홍보관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갖춘 4백여평 규모의 기념관을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찰모형전시관은 정림사지·군수리사지·미륵사지 등 백제의 옛 사찰은 물론 일본 법륭사·사천왕사 등의 모형을, 유물전시관은 불상·와당 등 백제유물을 중심으로 전시, 소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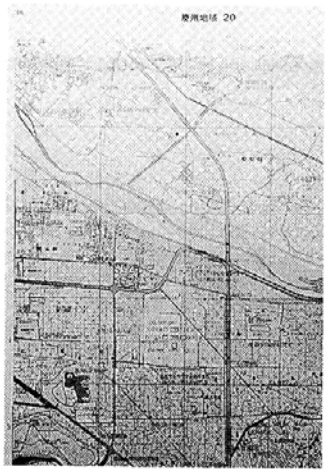
우선 내년에 국비, 지방비 등 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 및 기초공사를 실시한다.

경주 불교유적 462건
경주博 유적지도 발간…곧 '해설집' 펴내

국립경주박물관(관장 강우방)과 경주시가 최초로 경주지역 유적을 총망라한 〈경주유적지도〉1만분의 1 지도를 발간했다. 연인원 1천7백여명을 동원, 지난 2년간의 조사 끝에 선사~조선시대에 걸친 고고학, 미술사, 건축사 관련유적 중 지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1천4백33개소의 유적을 담아냈다. 지도에 따르면 경주에는 총 462건의 불교유적이 산재해 있다.

지도의 구성은 지역에 따라 경주·남산·동부·서부·북부 등 5개 권역으로, 유적의 성격에 따라 선사유적·불교유적·고분·건축·비 등 9가지로 나눠 기록했다. 색인은 지역별, 분류별로 유적명·지도색인·소재지·시대·참고 등을 수록, 유적사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 추가 발견되는 유적을 새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우방관장은 "이 지도의 발간은 경주의 유물·유적 연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경주유적의 보존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각 유적의 현재상태를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는 〈경주유적지도 해설집〉도 곧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지역 유적을 총망라한 1만분의 1 '경주유적지도'(부분).

北 문화유산 조사 본격화
16일 조사단 방북…분단이후 첫 문화교류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녹일 '북한 문화유산 조사단'이 16일 방북, 30일까지 북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을 조사한다.

북한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남북한 당국의 승인아래 이뤄진 첫 문화교류사업. 평양을 비롯 개성 중심의 황해도, 금강산지구, 백두산, 개마고원 등을 두루 살피면서 문화재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북한의 산하를 글과 그림으로 풀어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권영빈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을 비롯 풍수지리의 대가인 최창조 前서울대교수, 한국화가 황창백씨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양측은 11월과 98년 4월이후 약 보름간의 일정으로 북한 문화유산 답사 및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의향서를 교환하는 한편 협력사업을 위한 계약서에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통일문화연구소는 통일원 교류협력국에 '사회문화협력 사업자 및 사업 승인'을 신청, 10일 승인됨에 따라 방북이 이뤄진 것이다.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_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추 천 도 서
어린이불교성전
강석주 스님 증명
법 정 스님 감수
• 어린이 법회용
• 재미있는 그림
• 어머니와 함께 보는 경전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고급양장 · 369쪽 · 값 : 9,000원
총판·운주사 • 720·9372~3, 735·9170
법보시는 법련사(02 · 733 · 5322)로 문의하세요.
도서출판 달이숲
Tel. 267 · 8101 Fax. 263 · 3002

이·세·상·에·감·춰·진·진·정·한·우·리·의·행·복·찾·기
바우이야기
고통과 행복의 틈, 좌충우돌하며 진정한 삶과 행복을 향하는 끊임없는 구도의 여정을 불교적 관점에서 시의 형태로 표현해낸 아름다운 서사시이다. -이남산
대단히 고급스런 문체에다 내용이 아주 깔끔해요. 음악으로 치자면 명상음악 같은 음율을 지닌 멋과 맛이 있는 책이에요. 근래에 읽은 도서 중 가장 정성을 다하여 읽었습니다. -서인 김정수
'바우이야기'는 삶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우쳐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책이다. -서인 양정자
"전국 유명서점에서 구입하세요."
지은이·적 정
정 가·7,500원
도서출판 한 길
전화 0346·574·5565 팩스 0346·574·0808

'97 불교출판 결실 10

97년 불교출판가는 96년에 이은 장기적인 불황 가운데서도 기획출판등 미미하나마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올 한해 출판가 이슈를 10가지로 정리하고, 책방 여시아문 선정 '97 베스트 불서 20을 순서대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직지인쇄본 찾기운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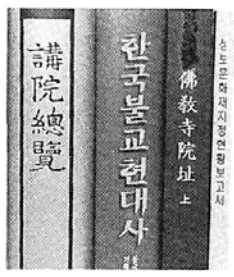


문화유산의 해인 97년 청주시민회를 주축으로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불조직지심체요절〉을 찾기위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청주시민회는 전화카드 10만매를 제작해 전국에 홍보하고, 직지찾기에 1천만원의 현상금을 거는 한편 정부와 교계에 '직지찾기'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직지찾기운동과 때를 같이해 〈직지〉 〈불조직지심체요절〉 등의 번역본이 발간되기도 했다.

■ 기도관련서 출간 '붐'

〈기도〉 〈생활 속의 기도법〉 〈관음신앙관음기도법〉 〈49재 공덕과 의미〉 〈사십구재란 무엇인가〉 등 기도관련서들이 다수 출간돼 올 한해 동안 불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일타스님의 〈기도〉는 일본어로 번역돼 일본출판시장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 일반인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킨 〈불교다이어트〉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 〈한국사찰음식〉 〈환경과 종교〉 등 실생활과 연계된 불교실용서들은 불서의 대중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모색으로 평가받고 있다.

■ '강원총람' 등 불교자료집 잇달아



조계종이 전국에 산재한 불교사원지를 조사 정리한 〈불교사원지〉, 문화재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다양한 통계를 산출한 〈성보문화재 지정현황보고서〉, 광복이후 50년간의 한국불교 역사와 신행, 문화·출판, 포교등을 분야별로 정리한 〈한국불교 현대사〉, 전국 강원의 모든 것을 담은 〈강원총람〉,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고려불화를 연구조사해 모두 묶어낸 〈고려불화〉, 산재해 있던 불교미술, 사원, 문화재등 분야별로 정리 결집한 책들의 출간도 올해 불교출판가의 큰 특징으로 꼽힌다.

■ 계율서 다수 선보여

여러 가지 사건사고의 발생등 혼란한 사회분위기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며 승가계율의 중요성을 역설한 〈사분율〉 〈한국계율사상연구〉 〈정심계관법〉등 불교계율 관련서가 다수 선보였다. 내년초 시공사도 〈마하박가-율장대품〉등을 출간할 예정이다.

■ 중진스님들의 기념 논총


◇녹원스님


◇월주스님


◇혜성스님

직지사 회주 녹원스님이 고희기념 학술논총 〈한국불교의 좌표〉을 통해 21세기 한국불교의 나아갈 바를 제시했고,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화갑논총 〈보살사상 보살정로〉를 통해 '보살사상으로 사회를 정화하자'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등 중진스님들의 주제가 있는 논문집은 학문발전은 물론 신행의 이정표가 됐다. 호국지장사 회주 혜성스님도 화갑 기념문집 〈이 마음에 광명을〉을 펴냈다.

■ 인도·티벳 관련 책 열풍

우리사회의 인도 티벳에 대한 관심이 출판가에도 그대로 반영돼 올 한해 출판가는 인도티벳열풍이 그칠줄 몰랐다. 류시화의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을 필두로 박완서의 〈모독〉 〈인도에는 카레가 없다〉 〈히말라야의 수행자들〉 〈티베트에서의 7년〉 등 십여종 이상이 선보였다.

■ '빛깔있는 책들' 2백권 돌파

우리문화 총서이며 대표적인 문고시리즈로 자리잡은 대원사의 '빛깔있는 책들'이 2백권을 돌파했다. 으리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기치로 89년 5월 첫 출간이후 불교문화, 민속, 고미술, 음식일반, 건강식품, 건강생활, 즐거운 생활, 한국의 자연, 미술일반 등 9개분야에서, 잊혀져 가는 우리 문화의 향기를 일반인들 속으로 깊숙히 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빛깔있는 책들은 5백권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 노학자들 저술활동 활발

노학자들의 왕성한 저술활동이 후학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 올해 동국대학교를 정년퇴직한 인환스님, 김영태 교수, 오형근교수 등이 기념 논문집 〈한국불교계율사상연구〉 〈한국불교사 논집〉 〈유식사상과 대승보살도〉 등을 이영자교수가 화갑논총 〈천태사상과 동양문화〉를 발간했다. 또 학계의 원로들인 진홍섭박사가 미수기념집〈신라, 고려미술문화〉를, 황수영박사가 초우전집 첫째권 〈한국의 불교와 미술〉을 출간했다.

■ 문고판 '…불교여행' 시리즈

민족사가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기 간편한 크기에 부담없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불교문고본 시리즈 '작은책과 떠나는 불교여행' 8권을 선보였다. 〈새벽삭발〉 〈인연〉 〈한국의 차시〉 〈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불교문학의 이해〉 〈사천강단〉 〈선〉 〈곰취처럼 살고 싶다〉등. 일반인들이 불교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불교입문과 역사, 문화, 고전, 학술분야에서 고루 발간된 작은책시리즈는 꾸준한 인기를 얻고있다.

■ 명상서적 출간 러시


◇류시화씨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한 사회 영향으로 그 어느해보다 명상관련서들의 출간이 러시를 이뤘다. 〈명상길라잡이〉 〈중도선〉 〈위빠사나 열두선사〉 〈마음 알기 나누기 다루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깨어있는 마음닦기〉 〈세도나 가는 길〉 등등. 특히 류시화씨의 〈마음을 열어…〉는 '97 일반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다.

정리=이은자 기자

'97 베스트불서 2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3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4	기도	일 타	효 림
5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아문
6	한국사찰음식	김 연 식	우리출판사
7	무소유	법 정	범 우 사
8	마음을 다스리는 법	김 정 빈	등 지
9	암자로 가는 길	정 찬 주	좋 은 날
10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	유 필 화	한 언
11	참선교육	수선회편집부	수선출판사
12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틱 낙 한	한 민
13	정병조의 불교강좌	정 병 조	민 족 사
14	선이야기	일 지	운 주 사
15	한글아함경	고 익 진	동국대출판부
16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	류 시 화	열 림 원
17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혜 원	가람기획
18	금강경대강좌	이 제 열	여시아문
19	네발밑부터 살피라	정 념	장 승
20	인연(작은책3)	서 정 주	민 족 사

구입문의:(02)737-0695

한자 1080자에 담은 禪의학

김윤세씨 '심신건강 천자문' 펴내



한자도 배우고 선의학 등 건강원리도 알 수 있는 〈심신건강 천자문〉(광제원 刊)이 출간됐다.

신토불이 건강법 및 수 테크 이론의 제창자이자 현재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주식회사 인산가의 대표이사 및 월간 〈신토불이 건강〉 발행인이기도 한 김윤세씨가 펴냈다. 이 책은 우리 민족의 지혜로운 의학의 원리와 역사, 양생학, 치병법 등을 1080자의 한자에 담아 설명한 신(新)천자문으로 김씨가 96년 3월1일부터 97년 4월30일까지 '세계일보'에 매일 연재한 것을 엮은 것이다. 이 천자문에서는 매일 세 글자로 이뤄진 뜻깊은 문장을 통해 한자와 한문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우주자연의 법칙에 따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전개하고 있다.

김윤세씨는 동양적 예지가 담긴 뜻깊은 문장을 매양 세 글자로 축약함과 동시에 같은 글자의 중복을 피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 책 속에 우리민족의 사상과 문화를 녹여내고 있다.

출판가소식

청소년 권장도서 35종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는 겨울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좋은 책 35종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책은 우리민족의 웃음과 미소의 흔적을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담긴 한국의 미소〉, 옛그림을 작품 배후의 정신세계를 중심으로 고찰한 〈뜻으로 풀어 본 우리의 옛그림〉, 박범신의 소설 〈흰소가 끄는 수레〉등을 비롯 11개 분야 35종이다.

'대구·경북 교계소식 총감'

불교대구방송(지사장 법타)이 개국 1년을 되돌아보며 올 한해동안의 대구·경북의 불교소식을 모아 〈'97대구·경북 교계소식 총감〉 펴냈다.

이 책은 '불교·방송관련' '정치' '사회' '문화·학술' '불교계소식' '불교계 인물' 등으로 나눠 각 종 언론에 실렸던 관련기사들을 재편집해 놓았다. 그밖에 법타스님의 칼럼도 정리했다. 〈비매품〉

극락세계 | 공파 번역

어떻게하면 극락왕생 할 수 있나

화제의 책



극락세계는 과연 있는가. 극락에 대한 세간의 모든 관심과 의문점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극락세계〉이다.

이 책은 〈불설무량수경〉을 현대적인 용어로 새롭게 번역한 것이다. 원전의 경명인 〈극락세계〉를 책제목으로 삼은 이 경전에는 극락세계에 대한 건립과 장엄,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는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불광 5천원〉

"외국불서 컴퓨터로 구입하세요"

인터넷 서점 'Yesbook' 낸 추기옥씨



"우리나라 보다 불교서적이 많이 출판되는 일본이나 미국 등 세계 각국의 불교관련 도서에 대한 정보와 구입을 도와 드립니다."

19일 여의도에 다라커무니케이션을 설립하고 인터넷서점 'yesbook'을 차린 추기옥씨(39)는 외국서적만을 취급하고 있다. 독일어동시통역사이고 외국어에 능통한 그는 정보의 바다 인터넷을 항해하면서 신청자가 원하는 단행본과 정기간행물을 찾아 받아보게 해준다.

그의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면 일반 서점가격보다 10%~30%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어려운 책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서점을 뒤져야 하는 시간상 거리상 불편함이 없다. 더구나 외국어에 익숙치 못해 갖는 부담에서 벗어나 원하는 정보와 도서를 손에 쥘 수 있다.

한편 그는 최근 불자들을 비롯해 주역에 대한 관심이 늘고있는데 발맞춰 "인터넷 역술원"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전화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주역을 배울 수 있다. 통신공간상 이루어지는 인터넷 역술원은 시간상 편리함과 직접 대면없이도 배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인터넷서점 www.yesbook.co.kr
인터넷 역술원
www.kbi.co.kr/kbi/08f/sambo.htm

구하기 어려운 책 '척척'
시중보다 30%까지 값싸

제2회 불교출판문학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이다."

신국판 / 7,000원



김현준(金鉉埈)
現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월간 《법공양》 발행인

사찰의 초입(初入)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에 간직되어 있는 뜻, 범종 등의 사물(四物), 석등·탑·법당의 구조와 변천을 상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대웅전·대적광전·극락전·미륵전·관음전·명부전·삼성각 등에 깃든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배움터》 동참 안내 *
· 매월 첫째 목요일 : 불교미술전공교수초청 특강(불상·불화·목공예 등)
· 매월 셋째 목요일 : 김현준 원장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강의
· 시간 : 오후 7시 / 장소 : 대학문화원 (장충동 앰버서더호텔 옆)
※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02) 587~6613

불교신행총서 II

관음신앙·관음기도법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불교신행지침서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대자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다수 우리나라 불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참된 기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을 일으켜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고난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1장 관세음보살 어떠한 분이신가? (관음신앙의 뿌리,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 제2장 자비관음의 여러가지 모습 (성관음·천수관음·십일면관음·육관음 등) / 제3장 관음관 (일념관법·경전 속의 관음관법 등) / 제4장 관음기도법 (관음색신관·관음염불·자광삼매기도법 등)

B6 / 160면 / 값 3,500원

경·봉·대·선·사·일·대·기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대선사.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20면 / 값 4,3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불교학계도 'IMF한파' 학술지원금 '꽁꽁'

진흥원등 내년 지원금 축소 불가피
후원회 강화 · 강좌개설 등 자구책 절실

IMF 한파의 영향이 불교학술계까지 위축시키고 있다. 사회전반에 걸쳐 긴축재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등안 불교계 학술 활동을 지원해 온 대한불교진흥원, 불교유관기업체, 사찰 등도 학술비 지원을 축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각 학술단체들이 이에 대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불교계 최대 지원처인 진흥원은 97년 11개 학술단체의 세미나와 학술지 간행 등에 2백만~1천5백만원 등 총 8천여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진흥원의 내부 사정등으로 인해 예년과 같은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또 학술단체 대부분이 회비, 사찰보조 등에만 의지하고 있어 불황이 장기화 될 경우 이 사정도 여의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불교계 학술단체들은 후원회 조직, 회비 인상, 강좌 개설 등의 자구책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타개책으로 학술진흥재단, 대우재단 등의 학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불교학회는 98년도 회비를 30%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종교교육학회도 이같은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송광사의 지원을 받고 있는 보조사상연구원은 부족한 학술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2월부터 연구원 후원회인 '목우회'(牧牛會)를 결성했다. 〈불교대사전〉 출간을 서두르고 있어 어느 학술단체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한 가산불교문화연구원도 자체 후원단체인 '회향회'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만해사상연구회도 출판 수익, 특별후원금 등의 학술기금 뿐만 아니라 '후원회' 조직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불교연구원도 원효학당 강좌를 확대해 여기에서 나오는 기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런 자구책 외에도 학술진흥재단, 대우재단 등 대규모 일반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현재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학술지 발간 지원금을 받은 불교계 학술단체는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미술사학회 등 세 곳에 불과하다. 매년 학술진흥재단의 학술비 지원을 받는 곳이 총4백여 학술단체인 점에 비하면 극소수인 셈이다. 불교는 인문분야중 종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술진흥재단의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경우 학술진흥재단에 꾸준히 지원신청을 하고 있지만 번번히 탈락했다는 것.

이에대해 신규탁교수(연세대 · 성철선사상연구원)는 "연구주제를 선정할 때 특성화와 현실화를 충분히 고려해 선정하고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활용도 제고할 때 지원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한다.

학술진흥재단은 매년 3·5·8·11월중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등의 분야에 신청받고 대우재단도 인문-사회계열 연구단체와 연구자의 신청을 받아 심의, 지원한다.

오종욱 기자

"선문염송에 신라 · 발해 · 고려 사료"

김호동박사 23칙 찾아…刻成者 28명 확인



고려 혜심(慧諶)선사가 편집한 공안집 〈선문염송 · 禪門拈頌〉에는 신라 · 발해 · 고려의 사료도 수록되어 있어 문화사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호동박사(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은 〈민족문화논총〉(18집)에 게재한 '〈선문염송〉과 진각국사 혜심'에서 "〈선문염송〉에 실려있는 공안 1463칙 가운데 23개의 공안에서 신라 승려와 신라, 발해, 고려의 역사가 언급되어 있다"며 "이것은 〈선문염송〉이 단지 선의 방법과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료적 가치도 지닌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선문염송〉은 고종 13년(1226) 겨울에 혜심스님이 조계산 수선사에서 문인 진훈과 더불어 선종의 고화(古話) 1125칙과, 이에 대한 선종의 선사의 염(拈) 송(頌) 가(歌) 등의 요어(要語)들을 채집하여 30권으로 기록한 공안집.

사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밝혀진 23개의 공안 중에서 〈선문염송〉 권24 1064칙 운문(雲門)의 초적(草賊)에 관한 고칙은 운문스님의 생몰연대가 864~949년임을 감안할 때 신라 말기 빈번히 출몰한 산적들의 주요 공격 대상중의 하나가 사찰로 당시 어지러운 상황을 전달해 준다.

〈선문염송〉 권25 1107칙인 무찰(無刹)에 관한 고칙은 중국으로부터 불법을 적극 수용했던 고려초기와 당시 관음신앙이 상당히 퍼져 있었음을 알 려 준다는 것. 관음신앙은 현실적인 고난을 겪는 대중의 어려움을 구제해 준다는 신앙이다.

또 〈선문염송〉 30권 1010장에서 각성자(刻成者) 28명을 확인한 김박사는 "〈선문염송〉 권6권 35장을 작성한 원경(元卿)은 김준이 제거당한 후 자결한 장군 손원경(孫元慶)과 동일인"이라며 "이것은 〈선문염송〉이 대장도감에서도 각성되었을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반출신인 손원경은 1237~1243년동안 대장경 각성에 참여한 인물.

인간의식에 드러나는 세계는?

조환기씨 '表象과 識에 대한 고찰' 발표

인간의 의식에 드러나는 세계는 무엇인가. 또 무엇이 이들을 드러내게 하는가.

인도철학회 연구 발표회에서 '표상(表象)과 식(識)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 조환기씨(동국대 강사)는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이란 없고 단지 식 이외에는 없다는 유식(唯識)의 표(表)와 식(識)의 연관성에서 해답을 찾아 주목된다.

조씨는 "〈섭대승론〉에서는 11식으로 바뀌어 식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며 "일종의 심리현상처럼 의식에 떠올라 분별작용의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무엇을 경험한다'는 말을 할 때, 경험은 거의 현재성을 띄고 있지만 과거 경험의 결과 없이 현재의 경험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푸른 하늘을 본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때 동작을 나타내는 말인 동사와 경험 대상들을 지칭하는 인식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과거의 푸른 하늘을 본 경험이 없으면 '내가 푸른 하늘을 본다'는 언어적 표현은 불가능 하다는 것.

그렇다면 1명의 법부에 대해 호랑이는 먹을만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성인이 보면 뼈무더기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의 대상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는 일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조씨에 따르면 산란한 의식이 지멸된 상태인 사마타(奢摩他)가 이루어진 후 이러한 심리현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조환기씨는 "사마타 후에 의식에 나타나는 갖가지 현상들에는 과거 뿐이지 대상이라는 실재가 없다는 것이 유식무경(唯識無境)의 근거가 된다"며 "따라서 유식무경이란 인식작용을 하는 근거인 식(識)의 대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드러나는 표(表)에 대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국제원효학회 워크샵

국제원효학회(공동회장 송석구)는 지난 15~20일 해인사 백련암에서 원효학 워크샵을 개최했다. '원효사상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워크샵에는 박성배교수(동국대 석좌교수)의 '원효사상을 어떻게 세계에 알릴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비롯해 '불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김용표), '불교의 논리 · 원효사상 해석방법론'(조성택), '기독교와의 만남'(전헌), '서양철학과의 만남'(이명섭) 등이 발표-토론됐다. 〈차주상보〉 〈해인사=이윤호 기자〉

학술단신

조계종 불학硏 논문공모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밀원스님)는 '근대 승가 교육사'를 주제로 △한국불교근대사에서 승가교육 △근대 교단의 승가교육 △근대 전통 강원 △일제의 종교 정책 등을 연구한 학술논문을 공모한다.

응모자격은 스님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재가불자로 내년 1월20일까지 집필계획서를 제출하고 3월31일까지 원고지 150~200매 분량의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02) 732-4921

'북한문화재 해설' 발간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는 탑, 부도, 비, 당간지주 등 불교문화재를 포함 북한지역의 석조문화재를 정리한 〈북한 문화재 해설〉을 12월말경 발간한다.

〈북한 문화재 해설〉에는 고려시대에 건립된 개성 현화사 7층석탑, 법왕대 다층석탑(조선), 유점사 9층석탑(조선), 장연사사 3층석탑(고려), 해주 9층석탑(고려) 등 석탑 67기를 비롯해 부도(16기) 비 당간지주 총 1백50여건의 북한 석조문화재에 대한 도판과 해설이 수록된다.

정영호교수(한국교원대 · 석탑) 소재구연구원(국립중앙박물관 · 부도) 등이 해설을 맡았다.

(02)737-8477

22일부터 지관스님 강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지관스님이 △선전(禪典) 강독 △한국불교 금석학 등의 특별 강좌를 마련했다.

지관스님은 '선전 강독'에서 선종서에 있어 고전 중의 고전으로 알려진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을 강의하고 〈역대고승비문〉(조선시대편)을 '한국불교 금석학'에서 각각 다룬다. 강좌는 12월22일부터 시작됐다.

(02)765-9602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수안 목 사원

태국불교 수행법은 어떤가

'수안 목 사원'은 태국불교의 사회 운동을 주도해 미국 · 유럽 불교인의 존경을 받았던 부다다사 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태국불교의 수행법을 살필 수 있는 사이트이다. 수안 목은 부다다사 스님이 1932년 태국의 남부지역 해안가 숲속에 세운 사원.

이 사이트에서는 불교적 환경관을 설명하고 있는 '정신적 생태학을 보존한다는 것', 무엇이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말해주는 '마음 병의 치유', 윤회사상을 쉽게 가르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열반', 수안 목 사원의 수행법을 알려주는 '아나파나사티(Anapanasati) 입문', 인간의 습관과 실수가 인생을 가두는 것이라고 말하는 '창살없는 교도소' 등 △외국인을 위한 교리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부다다사 스님의 법어 · 글에서는 법어뿐만 아니라 스님이 태국 불교계의 정신적 지도자로 설 수 있게 했던 '불법의 사회주의'(Dhammanic Socialism) 전문도 읽을 수 있다. 또 △어린이를 위한 구도만화(Dhamma Cartoon)에서는 도강(渡江)' 등 선만화도 감상할 수 있다. http://www.suanmokkh.org/

구미 패션계 '禪 바람'

다도와 명상 등 동양풍이 인기를 끌고 있는 구미의 패션계에 선(禪) 바람이 일고 있다.

드리스 반 노튼, 요지 야마모토, 레이 가와쿠보 등 구미의 톱 디자이너들이 주도하는 선(禪) 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은 느슨한 재단법과 무채색의 흐릿한 파스텔톤. 전체적으로 구도하는 스님을 연상시키는 차림이다.

이탈리아의 유명 브랜드인 '에트로'도 98년 컬렉션에 '선'을 도입했다. 도나 카란은 97추동시즌에 넉넉한 품의 무채색 옷들을 내놓은데 이어 98 봄여름 컬렉션에도 얇고 비치는 소재의 심플한 의상으로 '선'을 표현했다.

패션 관계자들은 "사회 저변에서 동양적 요소가 주목받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패션계에서 한동안 '선'이 붐을 일으킬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제소식

태국 세계최대 火葬

2백여명의 태국 스님들이 집전한 세계 최대 화장장례가 15일 태국 방콕에서 거행됐다. 스님들이 연고가 없는 1백여 시신과 2만1천여개의 뼈조각들을 정성껏 화장했다.

태국에서는 그동안 가족을 찾을 수 없는 시신들을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어왔다. 최근 태국 정부가 방콕의 시내 중심가를 관통하는 순환도로를 건설하자,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시신 중 가족이 없는 시신들을 모아 화장시킨 것. 이번 화장장례는 불교전통에 따라 진행됐으며 천도재도 함께 열렸다.

최신간

붓다들이 벌이는 영혼의 축제

월계수 꽃의 냄새를 맡았는가

오쇼 라즈니쉬의 이규선사 강의 · 이경옥 옮김



신국판 / 520면 / 값10,000원

아름답고 슬픈 감성의 소유자,
비범한 통찰력을 지닌 구도자 이규선사!
오쇼 라즈니쉬의 눈과 마음으로 그의 시를 듣는다.

눈물 · 웃음 · 침묵의 스승, 오쇼 라즈니쉬(Osho Rajneesh)!
그는 일본의 별난 선사 이규(一休)의 시 가운데 주옥같은 13편의 시를 선별하여 그 깊은 메시지를 쉽고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규의 시들은 진하고 깊은 인간적 삶에서 우러나온 것들로, 라즈니쉬의 깊은 각성과 사랑의 빛으로 함께 어우러져 펄펄 살아 숨쉬는 대양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이규는 별난 선사?!
1394년, 고꼬마스(後小松) 천황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술과 고기, 여색을 즐기는 등 무애행(無碍行)을 실천하며 일체의 가식과 위선을 버리고 제율마저 넘어가고자 하였다. 깨달음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에 당시 타락하고 있던 일본의 선승들을 가차없이 질타하고 매도와 독설을 서슴지 않았다.

법구경 上·下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전2권 / 각권 값6,500원

금강경

벼락처럼 자르는 지혜의 완성!
2천5백 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432면 / 값7,000원

탄트라비전 I II III IV

내 영혼이 눈 뜬 최초의 창문!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신국판 / 전4권

부처님의 유언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공파스님 역해
신국판 / 400면 / 값7,000원

판차탄트라

감로수와도 같은
다섯 토막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현명하게 바꾸어 준다!
판디트 비쉬누 샤르마 지음 / 서수인 옮김
신국판 / 440면 / 값7,0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 남전을 아십니까?

마 MATZU 조 | 조 JOSHU 주 | 임 RINZAI 제 | 남 NANSEN 전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태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대표전화927-2831 팩스924-3236

책장을 여는 순간, 명쾌하고 진한 감동이 메마르고 지친 당신의 영혼에 단비를 내려줄 것입니다.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34

육조의 의발 ③

7세기말 측천무후 연간에 신수(神秀 606~706)를 비롯한 동산(東山)의 문도들은 무후시대의 신비주의를 타고 장안과 낙양으로 몰려들었다. 포교의 중심지는 달마가 주석하고 있던 숭산의 소림사였다. 북위 시대 황실의 이궁이 있었던 이곳에 신수를 중심으로 하는 북종의 선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당시 불교계는 실차난타가 무후의 지원으로 〈화엄경〉〈능가경〉〈기신론〉 등의 새로운 번역에 몰두하고 있었고, 법장이 또한 무후의 요청으로 궁중에서 화엄의 이치를 전파하고 있었다.

무후를 이어 현종(玄宗)의 치세기로 들어서면서 북종의 선은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작업에 힘을 쏟게 된다. 양 무제 이후의 불교를 정리한 도선의 〈속고승전〉은 선의 독자적 발전에 적절한 위상을 부여해주지 못했다. (도선의 저작이 7세기 중엽의 작품임을 감안해야 한다. 이 시기는 달마를 의식한 초기 선의 태동기였고, 그래서 그는 그 새로운 움직임이 갖는 심원한 의미를 간파하지 못했다.) 〈전법보기〉를 비롯해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 등 수많은 선종사서들이 이 무렵에 지어졌다.

그 중심기조는 북종선의 발전과 사승(師承)이었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 동산의 법문이 신수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 궁중과 귀족들 사이에 광범위한 인지와 세력을 얻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엄정지(嚴挺之)가 쓴 대지선사비명(大智禪師碑銘)은 이렇게 적고 있다. "대지선사(신수의 제자인 의복)의 주장은 본디 달마에서 비롯되며, 불타의 위대한 가르침이 우리 동국으로 흘러와서 300년을 지나는 동안 오직 동산학문으로 일컬어지게 된 것이다. 그것은 혜가 승찬 도신 홍인으로부터 대통선사(大通禪師:신수)에 이르기까지 계승된 것이며 대통선사의 전법 상속자는 하동의 보적과 우리 대지선사 두 분뿐인데, 동산의 덕을 이어받기 바로 7대째가 된다."(〈초기선종사〉 37쪽, 야나기다 저, 양기봉 역, 김영사)

그런데 이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있었다. 하택의 신회(670~762)라는 사람이 바로 그였다. 왕유(王維)가 쓴 혜능의 비명과 종밀(宗密)의 〈원각경대소초(圓覺經大疏抄)〉에 의하면 신회는 본래 신수의 제자였다. 3년간 사사한 신수가 무후의 조정에 초빙된 것을 계기로 그를 떠나 조계의 혜능을 찾아갔다 한다. 그와 혜능이 나눈 문답 한둘이 남아있을 뿐 이 사람의 행적은 그동안 어둠에 묻혀 있었다. 그러다가 돈황문서의 발굴과 함께 선종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개원 20년(732) 낙양 근처 활대(滑臺)의 개운사(開雲寺)에서 무차대회가 열렸다. 무차대회란 요즘 식으로 공개토론회같은 것이다. 수많은 승려와 학자들이 운집한 그 자리에서 신회는 북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선의 정통은 남방의 혜능에게 있다. 북종은 선의 방계일 뿐이다. 그런데도 보적은 숭산에 7조의 법당을 건립하고 〈전법보기〉를 지어 신수를 정통으로 내세우고 있다."

신회는 돈황문서 〈보리달마남종정시비론(菩提達摩南宗定是非論)〉에서 달마에 연원하는 선의 전통이 혜능의 남종으로 이어지는 사정을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1) 달마가 여래선의 시조인데, 2) 중국에 들어와 양의 무제를 만나, 그의 비본질적인 불교이해를 비판했다. 3) 실망한 달마는 숭산 소림사로 들어가 면벽수도했다. 혜가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전해주었는데 이때 인가의 증표로 가사를 함께 주었다. 4) 그렇게 전해진 가사가 지금도 혜능의 처소인 조계(曹溪)에 현존한다. 그러므로 혜능이야말로 정통의 6조이다.


그림 · 이준석

신회의 주장은 즉각 반발에 부딛쳤다. "도대체 법은 가사에 있는가. 가사를 전하는 것이 법을 전하는 것과 같단 말인가." 신회는 이렇게 응수했다. "법은 물론 가사에 있지 않다. 그러나 수행자들에게 근본종지의 소재를 그르치지 않기 위해 가사를 전법(傳法)의 증표로 삼게 했다."

신회의 주장은 궁색해 보인다. 우리가 알기에 선의 정신은 언어문자 너머에서 이심전심으로 전해진 불가득(不可得) 불가전(不可轉)의 진실이 아니던가. 신회도 문제의 핵심이 가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남종과 북종 사이에 깊은 골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차이가 선의 근본정신과 연관되어 있음을 역설해 마지 않았다. 그 차이를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우선 북종이 점진적 수련을 말하는 점교를, 남종이 근원적 직각을 말하는 돈교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미리 짚어둔다.

이후 북종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 버렸다. 이후 선의 역사는 주지하다시피 남종이 주도해 나간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이 신회의 노력때문이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근본원인은 북종 자체의 생명력이 소진되고 고갈되데 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북종에 맞서 남종의 정통을 역설하던 신회 자신 또한 선의 역사에서 잊혀지고 말았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선의 역사에서 살아남은 것은 신수도 신회도 아니었다. 선의 정통은 혜능의 진수를 얻은 뛰어난 제자들의 활발발한 개성과 그들 사이의 직접적인 전승(以心傳心)을 통해,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이어졌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법이 가사에 있는가"

신수의 '점교' 북종선 역사무대서 사라져

法數로 배우는 불교

〈44〉


◇민복식作 '사색'

"세상은 꿈 · 아지랑이 · 그림자와 같다"

허공처럼 걸림없는 '청정심' 체득

바른 법을 닦는 보살이 마음에서 터득해야할 열가지 안주심 즉, 십인을 설명하는 가운데 다섯번째는 여염인(如焰忍)이다. 아지랑이는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얻을래야 얻을 수 없다. 이는 우리 중생계의 몸과 마음의 형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육신이 견고한것 같지만 잡아둘 수가 없고 지속되게 할 수 없으며 마음 역시 항상하지 못한채 일어나면 곧 스러지기를 연속한다. 마치 아지랑이가 계속 피어 오르면서도 머물러 있지 못하듯, 보살은 바로 세상법이 이와같은 것임을 알아 탐착을 여의고 안락한 경계에서 방편으로 생활을 그려나가는 것이다.

십인(十忍) (下)

여섯번째는 여몽인(如夢忍)이다. 여공은 꿈과 같다는 뜻이다. 보살은 삶과 죽음을 포함한 중생살이 모두를 꿈과 같이 여긴다. 세상을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닌 망상 번뇌가 일으키는 꿈으로 본다는 말이다. 여기에 실재는 없다. 몽매하게 전도된 중생에게 있어서 세상일이 실재할지는 몰라도 보살에게 세상은 한낱 무명심의 그림자로 보인다. 그러면 세상에 고귀한 것도 없으니 무슨 살맛이 나느냐고 반문할 지 모르지만 보살에게는 고귀한 삶도 저속한 죽음도 본래 없으므로 살고 싶다느니 살기 싫다느니 하는 것이 없다. 다만 꿈인줄 알므로 자유롭기 그지 없다는 사실이다.

일곱째는 여향인(如響忍)이다. 이는 보살이 모든 음성이나 소리를 듣더라도 메아리처럼 여겨진다는 말. 범부중생의 마음은 말이나 소리에 마음이 움직이고 끌려간다. 비방하는 말, 칭찬하는 말, 시끄러운 소리, 즐거운 소리에 혹란되어 시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평화롭지 못하다.

하지만 보살에게 있어 모든 언어와 소리는 하나의 메아리와 같은 것이다. 무슨 말을 듣고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흔들림이 없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중심을 잃거나 좇아가는 법이 없으며 흡기거나 판단하는 법이 없다. 그렇다고 모든 말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다. 마치 거울에 빨간 옷이 비친다 해서 그 거울이 빨간색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듣더라도 그 마음까지는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덟번째는 여영인(如影忍)이다. 수행하는 보살에게 진실된 법의 마음이 열리면 몸과 마음의 요소라 할 수 있는 다섯가지 요인 즉, 오온이 마치 그림자처럼 여겨지는 체험이 온다. 분명히 먹고 마시고 말하고 움직이는 자기라는 육신이 있고(色) 좁고 덥고 가렵고 아픈 느낌이 있으며(受) 헤아리고 궁리하는 생각이 있고(想) 하고싶은 하기싫은 의지가 있으며(行) 잠재되어진 모든 의식이 분명히 있는데(識) 비추어보면 영화속의 그림자처럼 실감이 나지 않는 법이 있으니 참으로 신기한 노릇이다.

오온으로 이루어진 자가 오온에 걸림이 없는 이치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이치를 누가 알겠는가 말이다.

아홉번째는 여화인(如化忍)이다. 여화인은 일체가 조작된 법이라는 것을 체득한 것이다. 즉, 온갖 것은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것이어서 생멸과 변화가 막측하다. 보살은 이러한 조작된 법에 속지 않고 진실한 성품속에 안주하여 기쁨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열번째는 여공인(如空忍)이다. 보살이 얻은 경지는 허공처럼 청정하고 가없고 꾸밈없고 걸림없다. 그것은 마음에서 열리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일체가 평등하다. 모든 것이 공한 성품 공한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공을 체득하는 것은 불법의 궁극적 목표와 완성이다.

허공마음속에 허공 법계가 들어있고 일체 여래가 들어있고 일체세계 일체인연이 들어 있다는 점은 우리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이것은 신통이나 부리고 술법이나 쓰는 외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올바로 발심하고 정견에 의해서 닦아나가는 보살에게나 얻을 수 있는 보배인 것이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불교와 수학

37

인연

김 용 운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42

모든 사물 · 현상 '인연소생'… 본성은 '空'

수학의 가설이론 절대진리 찾기에 나서


그림 · 최주현

틀계학의 원리에는 정규 분포곡선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집단에 대해 기능이나 학습도에 관해 조사할 때 매우 우수한 자와 열악한 자의 수치는 비슷하게 적은 분포를 보이고, 중간 수준의 수치가 많이 나타나는 데, 이것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 종모양의 곡선을 이루는 정규분포곡선이다.

필자는 고등학교 교사 시절 학생의 진학지도를 하면서 기묘한 사실을 실감했었다. 당시는 학교의 평균화가 시작되기 전이었으므로 각 도마다 이른바 '명문'으로 불리는 고등학교들이 있었으며 명문 대학은 거의 이들 명문 고교 출신이, 그리고 명문 중학교에는 그 근방에 있는 명문 초등학교 학생들이 진학하는 것이었다. 위의 통계학의 원리대로라면 '명문'에 입학한 학생들은 각 지역의 인구 비율과 같아야 하는데 실상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특정 지역 출신들로만 이루지는 것이다.

맹자(孟子)의 어머니가 아이의 교육을 위해 학교 가까운 곳에 이사했었다는 고사는 결코 헛일이 아님을 실증하고 있는 보기이다. 아마도 그 지역의 지적 분위기가 그런 현상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같은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도 환경에 따라 대학자가 될 수 있고, 늑대 소굴에서 자라면 늑대처럼 키워지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의 밀림 지대에서는 어려서 늑대와 함께 자란 늑대 소녀가 발견된 일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공간적으로 어디에 태어나는 가에 따라서 능력이나 인간성이 결정된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연(緣)이라 이름지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무거운 인연의 올가미에 쌓여 자라고 있다. 문화적 유산, 정신적 인자까지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한편 오늘의 작은 일 때문에 내일의 자신의 처지가 정해지는 수도 있다.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일, 학습의 결과가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일 등. 이와 같이 시간의 계열선상에 원인과 결과가 얽힘이 인(因)이다. 현실세계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시간적인 인(因)과 공간적인 연(緣)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불교에서는 이 사실을 '모든 사물이나 현상이 인연소생'이라 일컬어져 왔다.

'일단 입을 열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올가미가 되어 진실과 그 말씀 사이에는 천지의 차이만큼의 간격이 벌어진다. 왜 그렇게 되는 가를 알아라'라는 임제선사의 말씀이 있다. 또 석가모니께서 '법은 문자를 떠난다. 인(因)에 속하지 않으며 연(緣)에도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갈등이 야기된다. 인연의 얽힘속에 절대적인 존재는 있을 수 없다. 인과 연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 현실의 세계이며 그 양상의 본질은 공(空)일 수밖에 없다. 그 공(空)을 몸으로 터득할 때가 대오(大悟)의 경지이다. 이 경지에 이르지 못하기에 갈등이 생긴다. 수학은 전세대의 쌓아올려 놓은 지식의 기반위에 새로운 지식을 구축함으로써 발전해 왔다. 그렇다면 과거의 지식을 전제로 하는 수학이 절대 진리, 즉 공(空)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 생긴다.

20세기 최대의 수학 업적의 하나가 게델의 불완전성원리이다. 19세기말 이후의 수학은 수학적인 진리가 무엇이냐를 추구해 왔다. 근세 이후 급격하게 발전한 수학은 서서히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수학에 절대 모순이 없는 진리가 있는가를 따지는 문제가 중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수학기초론이 형성되었다. 절대 진리의 존재를 믿고 연구해 온 수많은 수학자에게 그 존재 여부는 자신의 존재 이유에 직결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 물음에 대한 결정적인 답을 내린 사람이 K.게델이며 오랜 수학의 진리성 논쟁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아무리 수학이 발달해도 그것으로는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수학의 체계에도 진(眞), 부(否)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즉 '진'도 '부'도 아닌 것이 수학의 본질이다. 수학자가 긴 역사에서 끊임없이 추구한 결과는 수학이 절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된 것이다. '진'도 '부'도 아닌 것이라면 '공(空)'의 세계이다. 수학이 임제가 갈파한 경지에 도달한 것은 겨우 어제의 일이다. 수학자는 게델의 결론에 질색했다. 그러나 여기서 수학은 다시 용기를 내어 '진리는 가설(H.포앙카레)'이라는 깃발 아래 훌륭한 '가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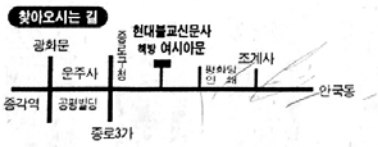
부처님 말씀을 전하세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통신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02)737-0695, 732-1521 /팩스:(02)737-0696

책방 여시아문에서 고객 여러분의 선물을 대신 보내 드립니다.
(97.12.1~98.1.31)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고객 여러분께서 선물하고 싶은 불서와 보내 드리고 싶은 분의 주소를 일러 주시면 전국 어느 곳이라도 직접 우송해 드립니다.
문의 전화:(02)737-0695

등기 우편료(평균 3,000원) 중 절반은 여시아문에서 부담해 드리므로 고객께서는 1,500원의 우편료만 더 내시면 됩니다.

찾아오시는 길


사은 판매 도서

한산시 김달진 역주 / 세계사 / 10,000 → 6,000원
동양의 지혜와 선 심재룡 / 세계사 / 12,000 → 6,000원
한 · 중 불교 문화 교류사 황유복 외 / 까치 / 15,000 → 8,000원
불교학개론 강의실 1, 2 장휘옥 / 불교시대사 / 4,500 → 2,700원
옥야경, 선생경 외 경전연구모임회 / 불교시대사 / 2,500 → 1,500원
본원행원품, 관세음보문품 외 경전연구모임회 / 불교시대사 / 2,500 → 1,500원
부모은중경 외 경전연구모임회 / 불교시대사 / 2,500 → 1,500원
행복한 마음 김정섭 / 김영사 / 5,900 → 4,000원
배꼽 밑의 주인공을 찾아라 박희선 / 심령과학출판사 / 7,000 → 4,000원
선문선답 조오현 / 장승 / 5,000 → 3,000원
초서자전 편집부 / 까치 / 30,000 → 15,000원

선물용 도서

한국사찰음식 김연식 / 우리출판사 / 12,000원
100문 100답 선불교 강좌편 상 · 하 딜지 / 대원정사 / 각 8,000원
기도 일타 / 효림 / 5,000원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 / 효림 / 3,500원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사 / 여시아문 / 7,000원
금강경 대강좌 이제열 / 여시아문 / 8,0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혜원 / 여시아문 / 7,000원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 효림 / 7,000원
인간을 생각하는 다섯 가지 주제 장승석 / 대원정사 / 8,500원
삼국유사 1, 2 일연 / 솔 / 각 8,500원
법구경 김달진 / 현암사 / 8,000원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장순용 / 세계사 / 6,000원
깨달음의 길 거해 / 담마간다 / 6,000원
석가와 크는 아이 어린이 철학연구소 / 산하 / 5,000원
붓다 - 꺼지지 않는 등불 장부아슬리에 / 시공사 / 6,000원
돼지 저금통 속의 부처님 권대웅/ 국민서관/ 5,000원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녹색평론사/ 5,000원
내 아들 딸들아 세상은 너의 것이다 윤곡 이이 편, 안장환 엮음 / 큰산 / 5,500원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 청년사 / 6,500원
돌부처 이근후 / 여시아문 / 6,500원
작은 것이 아름답다 E.F.슈마허 지음, 김진욱 옮김 / 범우사 / 6,000원
세계의 공동체 마을들 올리버 포피노 · 크리스 포피노 지음 / 정신세계사 / 6,000원
문화의 수수께끼 마빈 해리스 지음, 이종인 옮김 / 시공사 / 7,000원
진흙 속에 피는 연꽃 이슬기 지음 / 불광 / 3,500원
※달력: 산악 8,000원 / 한국의 사계 7,000원
※명상 노트:
와불 일어나시다 5,000원
날마다 크는 그리움 5,000원

성철 스님 법어집

백일 법문 상 · 하 상 6,500원 하 5,500원
선문정로 평석 6,000원
돈오입도 요문론 강설 5,000원
신심명 증도가 강설 6,000원
영원한 자유 6,000원
자기를 바로 봅시다 6,000원
돈황본 육조단경 6,000원
선문정로 4,000원
본지풍광 7,000원
한국불교의 법맥 5,500원

• 성철 스님 법어집 1질(11권 ₩63,500)을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비디오(「스님, 성철 큰스님」₩100,000)를 선물로 드립니다.

시방세계

불사의 현장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부장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 (02)738-8447~8

정법·복밭 얼마나 가꾸었나



◇ '팔만대장경에 새생명을' 캠페인이 교계 안팎에서 전개됐다. 사진은 한마음선원이 9월28일 부산에서 연 모금법회 장면.



◇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입장료 분리징수를 규탄하는 법주사 입구에 걸린 현수막.



◇ 북녘동포돕기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각계가 동참했다. 사진은 동국대학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은 쌀을 부대에 넣는 장면.



◇ 해인사에서 발견된 11점의 고려의복중 '요선철릭'은 학계에 이름만 전해지던 의류여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 육군특수전학교가 법당 주변에 인분을 뿌리는 등 훼불행위를 해 불자들의 분노를 샀다.

본지선정 '97 사건과 인물

팔만대장경을 등에 지고 성큼성큼 걸어 오는 소를 상상하며 맞이했던 정축년이 저물고 있다. 올 한해도 불교계는 다사다난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온 사찰 방화사건과 성보도난 사고에 속수무책이었던 한해였고, 잇따른 종교편향 사건에 아연해 했던 한해였다. 그렇지만 각 종단은 전법도생과 종단위상 강화의 의지로 진일보했던 한해로 97년을 기억하고 있다. 불교계 안팎에서 어떤 일이 일어 났고 어떻게 대처했는가. 누가 어떤 일로 주목을 받았는가. 정축년 한해를 되돌아 보며 올해 보다는 더 알찬 새해를 기대해 본다. 〈편집지 주〉

불교방송 공금횡령 사건

1월 21일부터 불거져 나온 불교방송 공금횡령 사건은 12월 15일 재단사무국 상무와 경리부 직원에 대한 사법처리와 신임 이사장의 선출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됐다. 총 손실금은 23억5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사건과 관련 4월부터 이사장 직무대행체제가 되면서 방송국 운영과 불자들의 후원에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

잇따른 훼불과 사찰방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육군특수전 학교가 법회에 참가하는 사병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법당 주변에 인분을 뿌리는 등 상상도 못할 훼불사건을 일으켜 불자들을 분노케 했고 국방부장관이 사과했다. 또 북한산 일대의 사찰들이 연쇄적인 방화공포에 떨었다. 방화 및 미수 사례는 8건으로 집계됐고 서울경찰청에 사찰화재 전담반이 구성됐다.

국립공원 입장료 분리징수

국립공원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인상을 막기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7월부터 입장료를 분리징수하면서 발단이 된 이 사건은 속리산 법주사가 산문폐쇄를 단행하는 사태까지 악화됐었다. 조계종 각 기관의 강경대응 방침 속에 3개월여간 갈등을 빚었으며 10월 14일 전국적인 산문폐쇄를 하루 앞두고 정부와 조계종이 합의함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성보도난 총 11건

문화유산의 해였던 올 한해동안 도난당한 성보는 모두 11건. 평균 매월 한건씩의 성보가 도난당한 셈이나 회수된 도난성보는 단 2점. 3월 도난당한 기립사 소조비로자나삼존불은 보물 제858호였으며 10월 보경사에서 도난당한 탱화2점과 옥천사 탱화는 지방유형문화재였다. 조계종은 '사후약방문' 격으로 성보도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북녘동포돕기운동 활발

연초부터 시작된 북녘동포돕기 운동은 한해동안 활기를 띠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와 북녘동포돕기 불교추진위원회가 주축이되어 범민북돕기 운동에는 3백여 사찰과 150여 단체, 각종단이 참여했다. 북돕기 성금은 총17억원 가량이 모금됐고 10회에 걸쳐 식량을 지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불교관계법 개정

전통사찰 보존법 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 통과돼 10월에 시행령이 공포됐다. 전통사찰내 경내구역의 범위 확대와 목적사업관련 건물신축등이 주요골자. 공원입장료중 일부를 문화재 수리보존비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11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전통사찰의 농지소유를 가능케 하는 농지법 개정안은 농림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수용키로 약속했다.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 발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불교도의 염원을 담은 발원문이 발표된 것은 5월 14일 부처님 오신날 기념 법요식에서였다.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발원문은 4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남북불교실무자협의에서 우리측 제안으로 발의되어 5월1일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호위원장이 최종안을 보냄으로써 발표됐다.

해인사서 고려시대 의복 발견

고려시대의 광상복 11점이 완전한 형태로 해인사에서 발견됐다. 성보문화재 연구원이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상 복장에서 발견한 고려시대 의류는 포류 5점과 적삼류 3점 삼베로 만든 소매 2점 남색 명주천 1장 등. 이중 15세 가량의 남자 광상복인 요선철릭은 그동안 학계에 이름만 전해져 오던 의류여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팔만대장경에 새생명을' 운동 확산

고려대장경 연구소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추진한 '팔만대장경에 새생명을' 운동은 불교계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동참속에 활발히 전개됐다. 12월 초까지 전국에서 3만8천여명이 동참했으며 19억7천여만원 가량의 모금 실적을 보였다. 불교계에서는 4월 불교방송이 서울시내 대형 사찰을 중심으로 생방송 현장 캠페인을 벌였으며 한마음선원은 9월 부산에서 모금법회를 봉행 3억5천만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인각사 수몰위기 벗어나

〈삼국유사〉의 산실인 군위 인각사가 댐건설계획 취소로 수몰위기에서 벗어났다. 교계와 문화 학술계의 반대여론에 힘입은 인각사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궐기대회를 개최했으며 하이텔 나우누리등 PC통신을 통한 반대여론 형성, 서명운동 등을 거세게 전개했다. 결국 군위군은 댐 건설계획을 변경했으며 인각사는 8월10일 일연스님 추모제를 성대히 봉행 인각사의 위상을 재확인 했다.



◇설조스님



◇성운스님



◇법륜스님



◇원명스님



◇김영한보살



◇전재국씨

올해도 교계 안팎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화제를 일으키며 주목 받았다.

△**설조스님**은 2월 유성에서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의 회장을 맡은 이후 매월 한차례 이상의 모임을 통해 교계와 종단 문제에 기민한 대응을 했다. 또 스님은 관람료위원회 의장으로서 공원입장료 분리징수문제에도 강경대응하며 공원입장료 폐지운동을 전개했으며 경제정의실천 불교시민연합 회장으로서도 활동하며 불교시민대학을 개설했다.

△**성운스님**은 민간법인으로 교계 최초의 전용복지관인 '인여노인복지관'을 개원해 노인복지에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법륜스님**은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를 발족 북동포 돕기에 바쁜 한해를 보냈다. 스님은 대북 곡물전달등을 위해 9번이나 중국 연변지역을 방문했으며 국내에서도 기금마련운동에 앞장서 민족동질성 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원명스님**은 외국인 선수행 공간을 강화도에 건립했다. 10월 28일 개원한 연등국제선원은 외국인 전용 선원으로서 선수행과 더불어 불교정보센터의 기능도 하게 된다.

△대원각의 주인인 **김영한보살**은 아무런 조건없이 법정스님에게 대원각을 희사하여 주목 받았다. 대원각은 12월 14일 길상사로 새단장 개원됐으며 도심 문화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서출판 시공사 대표인 **전재국씨**는 〈고려불화〉〈한국불교 현대사〉 등 비중있는 불교 서적을 출판해 주목 받았다.

조계종 종정스님 사의표명

○… 3월 10일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이 사의를 표명 교계내외의 관심을 모았다. 3월 26일과 4월 29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등이 통도사를 찾아가 사의철회를 간청했으나 월하스님은 사퇴의사를 굽히지 않아 사의표명 상태에서 해를 넘기게 됐다.

○… 조계종 교육원이 5월 강원령을 확정 강원교육의 효율화 기틀을 다졌으며 기초교육개혁 추진위는 사미(니)에 대한 의복과 명칭을 새로 구분해 승단의 위계를 바로잡는 노력을 보였다.

○… 중앙승가대학의 김포 이전 불사가 8월 용마건설의 부도로 난관에 봉착됐으나 풍림산업이 공사를 계약하며 공사가 재개됐다.

○… 조계종 전국신도회가 신입 회장에 송재건씨를 선출하고 활동에 들어갔으나 이렇다할 성과는 거두지 못했으며 사설사암연합회, 전국산악인연합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등 전국범위의 연합회가 잇따라 창립됐다.

○… 외국인을 위한 연수회가 처음으로 송광사에서 열렸다. 10월5일부터 이틀간 조계종이 마련한 연수회에는 외국인 스님 35명이 참석해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97 교계 이모저모

○… 문화계는 전반적으로 미약한 활동을 보였다. 음악공연과 전시회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찬불가의 창작의욕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조계종이 개최한 제16회 불교미술대전은 출품분야를 예배용과 감상용으로 분리해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9월에 열린 종교예술제도 영역을 영화 학술세미나로 확대 호평을 받았다. 해인사 백양사 등이 사찰내에 미술관을 개관하고 백담사에 만해기념관과 교육관이 개관된 것도 중요한 수확으로 꼽힌다.

괘불탱화 7점 국보 지정

○…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화등 괘불7점이 9월 처음으로 국보지정을 받았으며 8월에는 은해사 아미타 괘불도등 16점이 보물로 지정됐다. 또 북한의 성보문화재가 잇따라 공개돼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 안동 봉정사에서 현존 최고(最古)로 추정되는 영산회상도가 1월에 발견돼 문화유산의 해가 희망차게 출발했다.

불교 왜곡방송 여전

○… KBS와 MBC등 공중파 방송의 불교왜곡 비하 사태가 올해도 발생 불자들의 분노를 샀다. KBS는 '특종 비디오 저널'을 통해 서울대 출신 9명의 출가를 염세적 행위로 규정해 물의를 빚었으며 MBC는 PD수첩 3백회 특집에서 석용산스님의 송사문제를 여과없이 방영 불교의 위상을 실추시켰다. 아울러 스님을 소재로 하는 광고가 연이어 방송돼 그에대한 시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 연말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마련한 불교지도자 초청 간담회가 줄을 이었으며 IMF체제를 맞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불자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지침이 각 종단과 단체별로 마련됐으며 성명서도 다수 발표됐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호희품(好喜品) ②

貪法戒成 탐법계성
至誠知慙 지성지참
行身近道 행신근도
爲衆所愛 위중소애

오히려 법을 탐하고 계율 성취해
지극 정성으로 참회할 줄 알며
몸 가짐이 도에 까까우면
뭇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리

欲態不出 욕태불출
思正乃語 사정내어
心無貪愛 심무탐애
必截流渡 필절류도

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율바름을 생각해 말을 다스려
마음에 탐욕 같애 없다고하면
애욕의 흐름끊고 열반에 이른다

譬人久行 비인구행
從遠吉還 종원길환
親厚普安 친후보안
歸來喜歡 귀래희환

그것은 마치 오래전에 길떠난 사람
도에 다가감과 멀어지는 것
그가 머무는 곳 서로 다르니
도에 다가간 이 하늘에 오르고
멀어진 이 지옥에 떨어진다

분노품(忿怒品) ①

忿怒不見法 분노불견법
忿怒不知道 분노불지도
能除忿怒者 능제분노자
福德常隨身 복희상수신

분노하면 바른 법 보지 못하고
분노하면 바른 도 알지 못한다
분노를 능히 버릴 수 있는 이
복덕과 기쁨이 언제나 뒤따른다

貪婬不見法 탐음불견법
憂疑意亦然 우치의역연
除婬去疑者 제음거치자
其福第一尊 기복제일존

음욕을 탐하면 바른법 보지 못한다.
걱정많고 어리석은 마음도 그러하다
음욕과 어리석음 잘라 버린 이
그 복이 제일 존귀하다

慧能自制 에능자제
如此弊車 여지분거

그것은 마치 오래전에 길떠난 사람

"지극 정성으로 참회할 줄 알면 오히려 뭇 사람의 사랑을 받으리"

먼길 좇아 무사히 돌아와서
친척과 벗들이 두루 편안하매
반갑고 기쁜 것과 같다

好行福者 호행복자
從此到彼 종차도피
自受福祚 자수복조
如親來喜 여친래희

복된 선행 언제나 즐기던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널갈때에
스스로 지은 복 제가 받나니
어버이를 맞아 기쁜 것과 같다

起從聖教 기종성교
禁制不善 금제불선
近道見愛 근도견애
離道莫親 이도막친

거룩한 가르침을 좇아 일어나
선하지 않은일 금하여 억제하고
도에 다가감을 사랑하고
도를 떠난 이 가까이 말라

近卑不近 근여불근
所住者異 소주자이
近道昇天 근도승천
不近墮獄 불근타옥

是爲善御 시위선어
棄冥入明 기명입명

성내는 마음 스스로 억제하길
네 닫는 수레 멈추듯 하면
그는 바로 훌륭한 조어장부
어둠에서 벗어나 밝음에 들리라

忍辱勝에 인욕승에
善勝不善 선승불선
勝者能施 승자능시
至誠勝欺 지성승기

욕됨을 참아 성냄을 이기고
선한 행으로 악함을 이긴다
이기는 이 능히 베풀수 있고
지극한 정성은 거짓 속임을 이긴다

不欺不怒 불기불노
意不多求 의불다구
如是三事 여시삼사
死則上天 사즉상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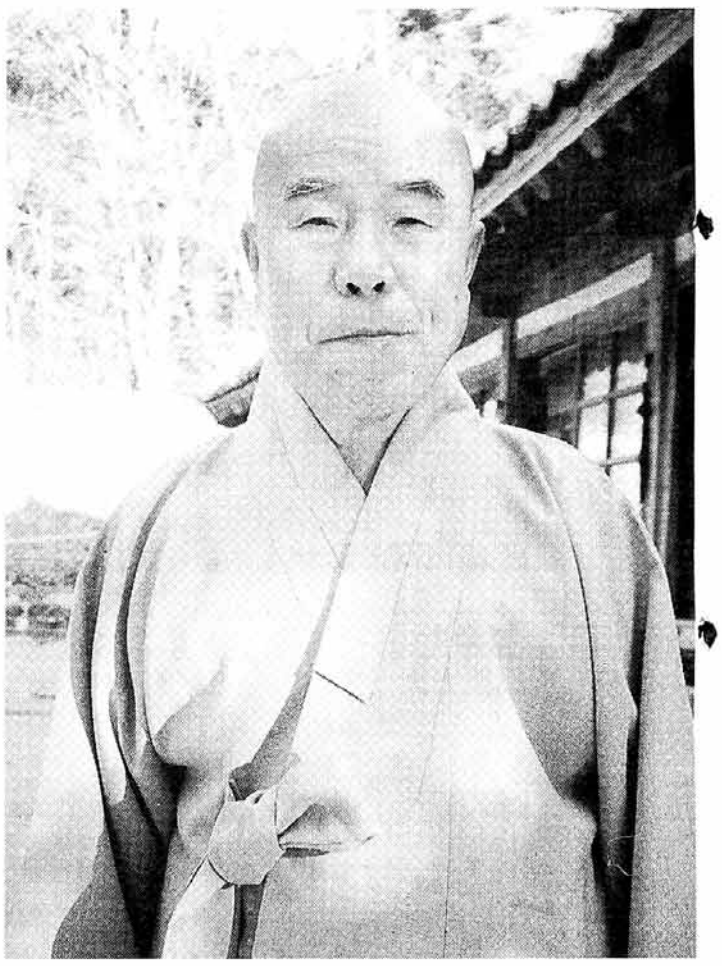
속이지 않고 성내지 않고
마음으로 많은 것 욕심내지 않으니
이와같은 세가지를 일삼으면
죽어서 곧 천상에 오른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잘못의 근본뿌리 알고

도견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만나서 얘기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진면목 알 수 없듯
불법에 빠져보지 않고는
그 속에 담긴 우주의 진리 몰라요"**

약력
- 25년 강화 生
- 44년 지월스님 은사로 득도
-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역임
- 해인사, 대흥사 주지 역임
- 現 조계종 원로의원, 해인사 율원 주석

가끔씩 스님이 돈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럴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없고, 이보다 더 좋은 법이 없는데 무엇을 후회합니까"라고요. 만나서 얘기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참진면목을 알 수 없듯이 불법에 빠져보지 않고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고, 그 법칙 속에는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부처님 법은 바로 그 세상법칙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나는 56년간을 부처님과 함께 해오면서 불법(佛法)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부처님 법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하나의 계율에 우주의 질서가 담겨져 있는 이치입니다. 범부들은 이런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닫기 어려운 것입니다. 절에 뺀질나게 드나들며 꽤나 독실한 신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일에는 빠지지 않고 열심이고, 스님 말씀도 진지하게 듣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그럴듯하죠. 그런데 절 문만 나서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를 받고 불교신도라고 말만하면 뭐합니까. 불법은 부처님 말씀 그대로 계(戒)·정(定)·혜(慧) 삼학을 닦아 깨달음을 얻게 하는 공부처입니다. 이중에서도 계를 철저히 수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절에 다닌다고 모두가 다 신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불법을 따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불살생, 불음행, 불투도, 불망어 근본 4계를 지키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승가에서도 계율을 현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율을 현대사회에 맞게 고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인거죠. 물론 불교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새로운 포교방법을 연구하고 불교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근본을 무시한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처님 계율이 바뀐다면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이 나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의 근본인 계율을 가지고 이래야 한다느니 저래야 한다느니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계행을 지키지 않으면 불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설사 깨침이 깊어 계에 걸림이 없다하더라도 계를 어겨서는 안됩니다. 계율은 수행함에 있어 게으름과 잡념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지처입니다. 불법은 계율의 기초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국민들 모두 항하사 같은 마음자리 찾으면 반드시 살기좋은 나라 됩니다

나는 18세에 출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인연이지요. 불심 깊으셨던 속가 어머니께서 나를 가지시고 꿈꾸신 태몽을 자주 말씀해주셨어요. 고려산 꼭대기에 부처님 한 분이 앉아 계시고, 또 산 중턱에도 부처님 한 분이 앉아 계신 것이 내 태몽이라고요. 내가 태어난 경기 강화군 화전면 부곡리 뒷산에 고려산이라 불리는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려산에는 고려시대의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장군이 외적의 침입을 받고 고려산에서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 연꽃이 피었답니다. 그런데 그 연꽃잎중 하얀 잎과 붉은 잎, 청색 잎이 각각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연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절을 짓고 잎색깔에 맞게 백련사, 청련사, 적석사라 칭했답니다. 어머니는 그중 하나인 백련사의 화주보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일처럼 백련사일에도 열심이셨습니다. 그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를 따라 백련사엘 다녔습니다. 비록 어머니를 따라다니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무엇엔가 이끌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전생의 나는 스님이었음이 분명합니다.

17살때 마침내 출가를 해야겠다는 발심으로 지리산 영원사를 찾았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차올라 걷기조차 힘든 한겨울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일제치하에서 먹고 사는 것이 그야말로 화두였던 그런 시대였지요. 그래서인지 영원사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엄사를 찾아갔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낙망 끝에 칠불사를 찾아갔는데 칠불사에서는 나를 징병기피자로 오인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이 젊은 사람들을 강제징집해가는 바람에 젊은 사람들이 절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스님은 끌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뜻밖에 거기서 속가 형님을 만나 집으로 다시 끌려 왔습니다. 형님은 내가 출가하는 것을 극구만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출가해야겠다는 내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대산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그리고 동관암이란 곳에서 혼자 수행하시는 스님을 만나 거기서 행자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님은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 지월스님이셨습니다.

마음 맑히는 책들 ①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33분/큰스님/법어/모음집

현대불교신문 엮음
신국판 342쪽
값 7,000원

이 시대에 빛이 될
현존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법어집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고 하신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마음 맑히는 책들 ②

삶은 苦가 아니다



삶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대행/ㅅ님/법어집

해외 엮음
신국판 208쪽
값 6,000원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
중생 사랑이 빚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수행을 위한 경전 공부 ①

수행자를 위한
금강경 대강좌



경전 읽기의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이제열 지음
신국판 360쪽 / 값 8,000원

팔만 사천 경전을 가로지르는 통쾌한 해설!
불교 교리 전반의 이해를 돕는 풍부한 비유!
경전에 입각한 수행 방편의 제시!

사람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 났으며, 정법을 만났다. 이제 남은 일은 성취하는 일뿐이다. 그러므로 나아가야 한다. 가다가 산이 막히면 넘고, 강을 만나면 건너야 한다. 순경과 역경을 건너고 미망과 집착을 깨뜨려야 한다. 무엇으로 건너고 무엇으로 깨뜨릴까? 반야의 배(般若船)로 건너고 금강의 칼(金剛劍)로 깨뜨려야 한다. 반야의 배요, 금강의 칼, 그것이 바로 금강경 사구게이다.

— 본문 중에서 —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 737-0695 (영업부), 737-0691(편집부) 팩스 : (02) 737-0696

큰스님 수행한담

제대로 고쳐야 난국 극복"

"잘못은 잘할 수 있는 근본"
오늘의 경제위기 극복
고치고 줄이고 아끼는
전화위복 지혜 필요



◇92년 대흥사에서 천일기도를 회향하고 신도들과 함께 기념촬영 했다.

스님을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는 순간 체증이 내려가듯 무엇인가 시원히 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찾는 것을 얻을 수 있을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월스님이 내게 내려주신 커다란 가르침 두 가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보통 보름에 한 번 목욕을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스님께서는 내가 목욕하는 도중 벗어놓은 옷을 빨아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지월스님의 도반스님인듯한 스님이 찾아와 그 광경을 보고는 내게 호된 꾸지람을 내리셨습니다. 세상에 스승이 상좌옷 빨아주는 법이 어디있느냐고요. 그때까지는 사실 절에서 그렇게 하는줄로만 알았던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큰 잘못을 저질러 왔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지월스님께서는 몸소 가르침으로 나를 깨우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천수경〉을 외느라 불에 솥을 올려놓은 것을 잊어버려 밥을 까맣게 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큰일났다싶어 스님께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 경위를 설명드렸더니 스님께서 파안대소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잘못하는 것은 앞으로 잘할 근본"이라고 하셨어요. 참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꾸지람대신 깨우침을 주신 거예요.

지월스님에게서 1년간 경전공부를 하고 난 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스님에게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년간 공부하면서 한암스님께 사미계도 받았구요. 한암스님에게서는 주로 〈금강경〉을 배웠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금강경〉 서문은 지금도 외고 있고 후학들에게도 〈금강경〉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특히 함허득통선사가 쓴 〈금강경〉 서문과 주석에는 그야말로 불법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함허스님의 〈금강경〉 서문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함허스님께서는 강화 전등사 옆 정수사에 계실 때 서문을 지으셨는데 그 서문을 축석쌓는데 넣고 돌담을 쌓으셨나봐요. 그런데 스님께서 돌아가시고 그곳에서 밤마다 방광을 해 꺼내보니 스님께서 지은 〈금강경〉 서문이 나왔답니다. 중국 어느 총림의 방장이 누워서 시자가 읽어주는 스님의 서문을 듣고 화들짝 놀랄 만큼 훌륭한 서문이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서문 처음에 "有一物於此(유일물어차) 하니 一物(일물)이 何物(하물)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이 물건이 무슨 물건인고"라는 뜻입니다. 또 그 뒤에는 "凡有事物이 小不能大하고 大不能小로대 此則反是하야 能小而細入隣虛하고 能大而廣包法界라"(범유사물 소불능대 대불능소 차즉반시 능소이세입인허 능대이광포법계)는 구절이 나옵니다. "무릇 온갖 사물들이 작은 것은 능히 클 수 없고 큰 것은 능히 작아질 수 없으나 이것(한 물건)은 사물과 반대로 능히 작고 미세하여 인허(분자정도의 작은 것)에 들어가기도 하고 능히 커서 법계를 널리 에워싸느니라"는 뜻으로 한 물건은 작았다 능히 크지 못하고, 컸다 능히 작아지지 못하는 세상물건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물건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름아닌 마음경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歷千劫而不古(역천겁이불고)하고 亘萬歲而長今(선만세이장금)이라" 천겁을 지나도 옛이 아니고 만세에 뻗쳐있어도 항상 지금이 마음자리요, 그것은 우리 마음자리에 있는 항하사같은 성스런 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볼 때면 마음이 후련합니다. 이 글을 보고 크게 웃을 수 있다면 아마도 불법의 이치를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한암스님께 경전을 배운 후 선을 공부하기 위해 해인사로 갔습니다. 마음자리를 깨쳐 도를 이룰 때까지 나오지 않겠다고 각오를 가지고서요. 가자마자 3년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반쯤 지나서 6.25전쟁이 나는 바람에 결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견성하기까지 산문을 나오지 않겠다던 다짐이 무너졌으니까요. 내 근기가 모자랐던 탓은 아니었지만 한참 공부에 60이 다됐는데 주지노릇을 하라고 하데요.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것은 뭐하러 하겠느냐고 뿌리쳤는데 성철스님께서 권하시길래 하는 수 없이 2년반정도 소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요즘 나라살림이 말이 아니지요. IMF인가 뭔가하는데 의지해서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들었어요. 위정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된 데에는 위정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라가 이지경이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마음을 바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예요. 항상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달을 추구하다보니 나라가 이꼴이 돼도 책임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국민들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정자들이 속임수를 써도 이를 바로 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질 못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절약정신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흥청망청 과소비를 일삼았으니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잘못은 잘 할 수 있는 근본"이라는 지월스님의 가르침대로 이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뜯어고칠 것은 뜯어고치고, 줄일 것은 줄이고, 아낄 것은 아껴야 합니다. 예로부터 조사스님들은 절약정신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제는 승가든 속가든 과거 스님들의 검소한 생활을 본보기로 삼아 난국을 극복해야 합니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잘못의 근본 뿌리를 알고 시급히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지노릇을 마치고 나서는 함허스님의 서문이 담긴 〈금강경〉을 1천부나 인쇄해 해인사 율원에서 교재로 쓰게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음자리를 바로 찾아 부처님법을 이해하고 따르라는 뜻에서지요. 지금 시국도 마찬가집니다. 위정자나 백성들 모두 항하사같은 근본 마음자리를 찾아 열심히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자연적으로 이 나라는 살기좋은 나라요, 불국토가 될 것입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계율은 수행 의지처…개정 있을 수 없어"
"근본계율 안지키면 말로만 불자일 뿐"

나와 경전 35

백유경



김 성 규
영남대 의대 교수

칠, 팔년 전 〈불교직 깨달음과 과학적 깨달음〉이라는 책을 세상에 처음으로 내놓았다. 불교와 과학을 접목시킨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라 자부한다. 쉽게 쉽게 할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다. 그 해 겨울 우연히 〈팔만대장경〉을 보다가 〈백유경〉 부분을 보게 되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단순한 주제로 보이기도 했지만 어린이 청소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방학 내내 연구실에서 밤 늦게까지 번역을 새롭게 하고 해설을 붙인끝에 그 해 겨울 〈지혜는 어리석음을 먹고 자란다〉를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다.

〈백유경〉은 백가지 비유에 의해 불교의 실천도를 설한 매우 평범하면서도 특이한 경전으로 〈백구비유경〉, 〈백구비유집경〉 등으로도 불린다. 인도의 승려 상가세나가 5세기경에 지었고, 그의 제자인 구나브릿디가 492년에 한역했다. 원래 범어의 명칭은 〈우파마사타카수트라〉로 치화만(癡華鬘)이라고 번역된다. 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불교의 교리를 아무리 직설적으로 설한다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비유를 드는 것을 '화만'으로 표현했다는 뜻이다. 〈백유경〉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우스개의 비유를 엮어 모은 98개의 이야기로서 단순하게 되풀이되어 전개된다. 〈법화경〉이나 〈화엄경〉처럼 뛰어나고 심오한 내용은 없지만 단순하고 담백한 것이 오히려 일미다. 추운 겨울날 가족들이 군밤이라도 까 먹으며 함께 읽는다면 할아버지같은 부처님이 옆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더욱 구수할 것이다.

우화집 〈백유경〉이 이루어진 인연은 다음과 같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작봉죽원이라는 동산에 머물고 계셨다. 그 때 그곳에는 많은 보살들과 바라문 오백명도 함께 있었다. 한 바라문이 일어나 "사람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사람은 곡식에 의해 생겨나고 또 살아가느니라."

"곡식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곡식은 네가지(흙, 물, 불, 바람) 작용에 의해 생겼느니라."

"네 가지 작용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네 가지 작용은 허공에서 생겼느니라."

"허공은 어디서 생겼습니까?"라고 계속 묻는다.

이러한 바라문의 물음에 비유를 들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알게하여 더 열심히 수행정진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백유경〉이다. 그렇기때문에 이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과 결부시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써 대중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고 있다.

'먼 옛날 두 사람의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장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한 사람은 순금을 팔고 다른 한 사람은 '툴라'라는 솜을 팔았습니다. 하루는 금을 사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순금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 불에 태웠습니다. 이때 솜을 팔던 장사꾼이 불에 달구어진 금을 몰래 훔쳐서 툴라솜 속에 감추었습니다. 금이 시뻘겋게 달았기 때문에 솜이 모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둑질한 사실이 탄로난 솜장사는 솜과 금 모두를 잃고 말았습니다.'

불에 달구워진 금이 솜을 태우고 금의 모습을 드러내듯이 진리는 아무리 감추려해도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세상의 부패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부패를 거름삼아 정의는 스스로 싹을 틔우는 법이다.

세상의 부도덕이 높으면 높을수록 양심의 골짜기 또한 깊게 패여 진실의 강을 이루고 만다. 세상의 탐욕이 끝이 없어 여기저기 전쟁이 끊일 날이 없다 하더라도 무소유 정신은 평화와 자유의 깃발을 더 높이 휘날릴 것이다. 성내는 마음이 지옥까지 이르러 온 세상을 병들게 한다 하더라도 자애로움은 성내는 마음을 촛물 녹아내리듯이 녹여낸다.

진리는 무적이며 지혜는 어리석음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이 〈백유경〉은 생활의 비유로써 가르쳐준다.

재미있는 비유로 어리석음 일깨워
일상생활과 관련된 98가지 이야기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돕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켄스님 번역 (끝)

나와 남을 똑같이 생각하자

"일체중생 내 어머니" 미워할 사람 없어
육바라밀 실천 보리심 키우는 대승의 길

대승에 들어가기 위한 발심

심사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보리심(깨달음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우리는 초발심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대승의 길로 가야만 한다. 대승의 길은 바로 상사도의 보리심을 배우는 것이다.

보리심의 10가지 이득: 첫째, 대승불자인지 아닌지는 자신의 마음에 보리심이 생기고 안 생기고에 달려있다. 보리심이 없으면 어떠한 수행을 하게 되더라도 대승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 우리는 주로 참선, 염불, 밀교에 의지해 수행하고 있지만 보리심이 없으면 삼독만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리심에 의지하지 않고서 명상이나 진언을 외우는 것은 고행만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윤회세계라는 감옥에 묶여 있지만 보리심이 생기게 되면 그 순간부터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보리심이 없으면 미래를 아는 신통과 공성 등을 공부하였더라도 대승불자가 아니다. 셋째, 큰 신하들도 왕의 어린아들에 비할바 못되듯이 보리심을 발심하게 된 이는 성문이나 연각들에 비할 바가 못된다. 이렇게 8만4천대장경의 핵심은 보리심이다. 넷째, 보리심이 생기면 윤회세계의 신이나 인간들이 절하게 되며, 공양을 받는 최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공덕을 쌓는데는 보리심보다 나은 것이 없다. 보리심으로 하나의 향을 피우더라도 백명의 중생을 생각하여 피우면 백명이 향을 피운 공덕이 생긴다. 염불이나 절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여섯째, 자기가 지은 죄를 없애는데는 보리심이 최고이다. 참회를 해서 없어지지 않는 큰 죄들을 보리심으로 없앨 수가 있다. 일곱째, 보리심이 생기면 현재와 미래의 의미있는 일들이 모두 잘된다. 여덟째, 보리심을 가진 이들은 사천왕이나 신장들이 밤낮없이 지켜준다. 아홉째, 보리심 없이 공성만으로는 지혜의 덕을 쌓을 수 있지만 복덕을 쌓을 수 없다. 열번째, 부처님은 보살에서 생기며, 보살은 보리심에 의하여 생기므로 일체중생의 행복의 뿌리는 보리심이다. 시방삼세 부처님들중 보리심 없이 깨달음에 이르신 분은 한 분도 안계신다. 보리심 없이는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다. 보리심에 대하여 입으로만 하는 것은 보리심이 아니다.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따라야만 보리심이다.

보리심 생기게 하는 가르침

일체중생을 위해 부처가 되고 싶다는 발심을 하기전에 남의 짐을 모두 자신이 들 수 있다고 하는 결심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일체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불쌍하게 여기는 자비심이 생기지 않으면 결심이 생길 수가 없다. 이런 자비심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그 아들을 귀중하게 여겨 사랑하듯이 일체중생에 대한 자비의 마음이 생겨야 한다. 또 자기 친척중에서 제일 친한 사람은 어머님이다. 따라서 일체중생 모두를 자기 어머님과 같이 여기자. 발보리심을 얻기 위해서는 7가지 인과를 순서대로 알아야 한다.

일체중생을 어머님으로 알자: 우리는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등의 평정한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 친척과 원수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평정한 마음을 지니는 명상을 실천하여야 한다.

원수를 생각할 때 미워하고 화가나고 하는 마음의 원인을 살피게 되면 전에 자기를 해롭게 한 이유 때문이다. 원수는 전생에 친척이었던 적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여 미워하고 화내는 마음을 없애야만 한다. 친척 역시 전생에 셀수없이 원수였던 적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여 좋아하는 마음을 없애야만 한다. 원수와 친척과 그 중간 사람들의 세가지에 마음이 평정해지면 일체중생 모두에게도 마음이 평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평정한 마음을 지니지 않고 보리심은 생길 수 없다. 일체중생을 어머님과 같이 생각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보리심을 얻을 수 없다. 찬탁이나 원수 등도 전생에 어머님였을 적이 많았다고 명상하면 도움이 된다.

은혜를 알아야 함: 일체중생들이 어머님이었을때 매우 은혜로웠다는 것을 명상하여야 한다. 모든 힘을 모아서 자식의 고통을 없애주는 그 은혜는 한량이 없다.

은혜에 보답해야 함: 일체중생을 어머니로 생각하여 지옥의 큰 불벽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 고통의 짐을 들어줄 사람은 자기뿐이라고 명상해야 한다.

자애심: 일체중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애심이다. 위의 세가지 원인에 대하여 명상을 잘하면 자애심은 저절로 생기게 된다. 지금 중생들이 행복이라고 집착하고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다. 그러므로 일체중생들이 모두 행복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행복하게 되어야 한다는 마음,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마음을 명상해야만 한다.

자비심: 자비심은 대승불자도 만들며 발보리심의 뿌리도 되며, 또 씨앗처럼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보살행을 할 때의 나태한 마음을 없애주는 정진의 물과 거름도 된다. 깨달음을 얻을 때에도 남의 일을 도와주는 것에 열매로 사용할 수가 있다. 보리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자비심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자비심이 생기면 일체중생의 고통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큰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염려하는 어머님의 마음과 같다.

확고한 결심: 어머님을 봉양하듯이 중생의 고통의 짐을 자신이 들고 깨달음을 얻게 하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해야 한다. 자애심과 자비심은 성문·연각에게도 있지만 확고한 결심은 없다.

발보리심: 발보리심은 남을 위해서도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보리심이 생기면 바로 대승의 가르침의 길로 들어선 것이며 깨달음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자타를 평등하게 여기는 마음: 인과의 순서를 알아 발보리심이 생기면 여기서 더 힘을 얻기 위해 자타를 평등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한다. 먼저 자기와 남을 똑같이 생각해야 한다.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자기와 남을 똑같이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행복을 바라고 슬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자기와 남이 똑같다. 자기만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원수같이 여겨 이기심의 허물을 벗어야 한다.

보리심이 생겨 부처가 되는 것은 중생들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하고 보시할 수 있게 하고 계율을 지키게 하고 인욕할 수 있는 대상은 모두 중생들이다. 때문에 반드시 남을 귀하게 여기는 이타심의 이득을 명상해야 한다.

다음엔 남을 나로 바꾸어 생각한후 그 생각에 의지하여 주고 받기를 명상해야 한다.

보리심이 생긴후…

시방삼세 부처님들은 6바라밀에 의지하여 깨달았다. 발보리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동이 필요한데 그 행동이 6바라밀이다.

보시: 자신의 몸과 재물 공덕 모두를 주고싶다는 마음이다. 자만심, 아까워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익을 위해 보시하면 안된다.

지계: 하사에 나오는 10계를 지키는 것과 6바라밀 실천이 모두 지계바라밀이다.

인욕: 자기를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인욕이다. 화를 내는 것은 악행 중에 가장 나쁜 것이다. 화나는 마음을 버리면 원수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므로 원수를 다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신병자가 의사를 때리면 의사가 화를 내지 않고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고 그의 반뇌를 없애주는 행동을 해야 한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 인욕에 대한 명상을 하게 해줬기 때문이다. 행복에 집착말고 고통이 자신을 가꾸는 악이라고 생각하자.

정진: 6바라밀에서의 정진은 선행과 수행을 완전하게 하는 최고의 기술이다. 게으름은 정진을 방해한다.

선정: 물통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선정이 없으면 수행이 제대로 안된다. 지혜가 생기려면 흔들리지 않는 선정이 필요하다. 선정을 위해서는 조용한 장소가 있어야 하고 욕심이 없어야 하며, 만족하는 마음으로 계율을 잘 지켜야 한다. 의미없는 일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

지혜: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듯, 선정과 지혜가 같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다. 또 보리심의 방편과 공성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 공성의 지혜를 명상하려면 복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알고, 스승에 의지하여 지혜를 배워야 한다.

티벳 쫑카빠대사의 〈보리도차제(菩提道次第·깨달음의 길로 가는 올바른 순서)〉는 내년 2월 도서출판 여시아문에서 단행본으로 발간됩니다.

10주년 기념 특별할인판매

귀의 삼보하옵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불법홍포를 위해 노력하시는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성불불사**에서는 「**창사 10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유명 출품작들을 확보하여 특별 봉사가격에 주문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찰과, 불자님들의 가정과 사무실에 1품씩 소장하셔서 불심을 항상 곁에 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발원하옵니다.

(※ 한정된 작품이오니 선착순 문의 바랍니다.)

- **성불불사** 합장 -

▼ 액 자



잉 어: 높이 90cm × 14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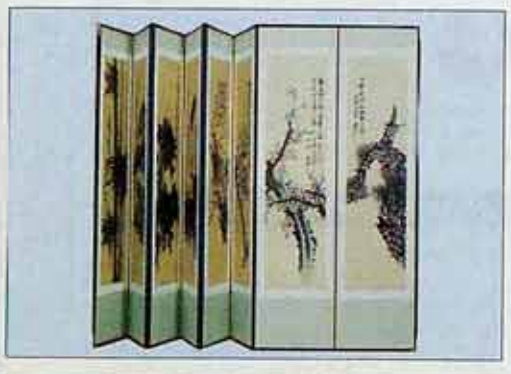
사계절꽃 : 높이 90cm × 14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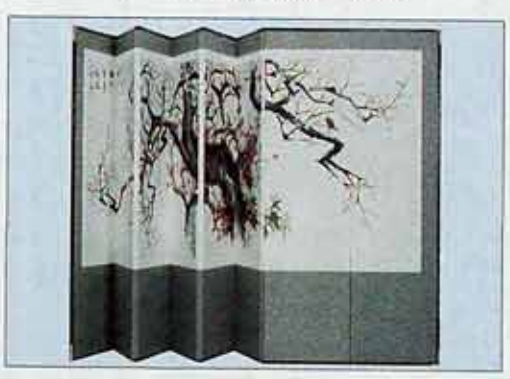
달 마: 높이 90cm × 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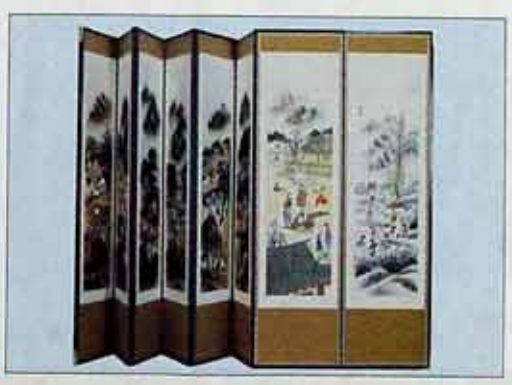
가리개: 높이 155 cm × 120 cm













◀ 병 풍

(후면-스님께서 직접 쓰신 천필 반야심경)

: 높이 5.5尺 × 8폭(12尺)

● 문의처 : 02)831-2848 ~ 9
02)831-7075

● 수신자부담전화 : 080)284-2848

● 팩 스 : 02)831-2849

"누구나 개성과 특성 있는데…"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12〉

개인차와 대기설법(對機說法)

사람은 서로 다르다. 얼굴 모습, 몸집, 몸무게, 지능, 적성, 성격, 사회성 등에 있어서 똑같은 두 사람은 없다. 교육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크도록 도와주는 작용이다.

다른 사람들을 학교라고 하는 기관에 수용하여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으로 육성한다면 이는 교육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글을 읽었기에 이에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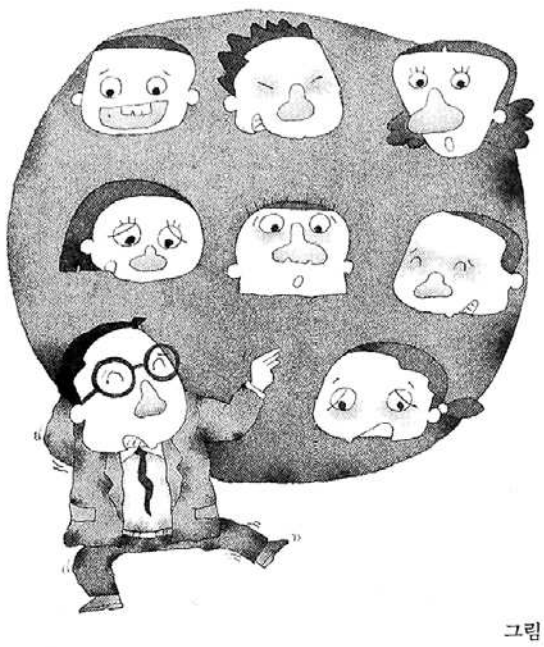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한때 동물들이 학교를 다닌 일이 있었다. 그 학교의 과정은 달리기, 기어 올라가기, 날기와 헤엄치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모든 학생들은 위의 네 과목을 모두 이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오리는 헤엄치기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의 선생보다도 더 잘 할 수 있었으며 날기는 낙제를 면할 수 있을 정도이나 달리기에 있어서는 전연 자신이 없었다. 그는 달리기 과목이 형편 없었기 때문에 이를 연습하기 위하여 방과 후에 남았고, 또한 잘하는 헤엄치기도 등록을 취소해야만 하였다. 헤엄치기는 평균정도의 점수에 만족하고 등록을 취소한 후 달리기 연습을 계속하였다. 평균이라는 점수는 무관한 성적이며 따라서 헤엄치기에서 평균을 맞는데 대하여 오리를 제외하고는 누구 하나 근심을 표시하지 않았다.

독수리는 문제학생으로 여겨졌으며 그에 대한 훈육은 대단히 엄격하였다. 그는 기어 올라가기에 있어서 다른 학생들보다 늦었으나 그가 나무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는데 있어서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토끼는 달리기에 있어서는 최우수생이었으나 하지 못하는 헤엄치기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만 정신 이상이 되어 학교를 그만 두어야만 했다.

다람쥐는 기어 올라가기에서는 뛰어 났으나 나무 꼭대기에서 내려올때 날기 선생님이 날기의 초보적인 원리와 방법으로 내려오도록 가르쳤다. 그래서 다람쥐는 나뭇가지에서 다른 나뭇가지로 날 때 너무나 애를 써서 그만 다리에 경련을 일으키고 말았다. 이 때문에 기어 올라가기는 'C' 달리기에는 'D'의 성적을 받았다.

사람 사귀는데 능한 학생
도덕적 행동의 모범생
수학능력이 뛰어난 학생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
⋮
교육은 개인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해야 한다

부처님은 중생 근기따라 설법 달리해
획일적·주입식 학교교육 비판 당연

항시 실제적인 효과를 누리는 땅쥐들은 학교 간부들이 땅파기의 과목을 첨가 할 것을 거절하자 그의 자식들을 두더지에게 보내어 개인교수를 받도록 하였다.

학년말이 되자 헤엄치기는 잘하나 달리기, 기어 올라가기, 날기는 약간 흉내만 낼 수 있는 비정상적인 뱀장어가 학생대표로서 고별사를 읽었다.

대단히 흥미 있는 비유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학교는 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똑같은 특성의 인간으로 만드는 획일적 교육,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지적능력 중 일부인 암기력검사 결과를 점수화 하고 이 점수를 가감 승제하여 석차를 산출하는 교육은 인간의 잠재적 능력의 발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선 점수화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국어에 0점을 맞았으면 그 학생은 말 한마디 못 하고, 글 한 줄도 읽지 못하는 국어의 백지 상태라고 보아야 할 터인데 그러한 상태란 있을 수 없다. 반대로 국어에 100점 맞았으면 그 학생은 국어 능력이 완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체육에 90점 맞고 음악에 80점을 맞은 경우 그 평균을 85점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을지? 체육에서 재는 능력과 음악적 능력은 전연 다른 능력인데 이 둘을 합쳐서 둘로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균 85점은 과연 무엇인지? 체육점수도 아니요, 음악점수도 아니며, 더우기 '체음'이라는 교과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마치 '90㎝+80g'과 같은 논리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 의심없이 점수화하고 서열화하여 한 줄로 세우는 잘못을 저질러 왔다.

교육은 개인마다 다른 적성과 잠재적 능력을 찾아내어 최대한의 자아실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이기 때문에 점수화하여 한 줄로 세울 수는 없으며 만일 줄을 세운다면 수십, 수백의 줄을 만들어서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등상은 모든 학생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사람 사귀는데 능한 학생, 도덕적 행동의 모범생, 음악의 우등생, 수학능력이 뛰어난 학생,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은 모두 우등생이다. 따라서 교육의 방법이나 평가의 방법도 개인에 따라 달라야 한다.

이러한 교육의 원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 부처님은 문자 그대로 위대한 스승이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설법하는 것을 달리하셨다. 흔히 말하는 대기설법(對機說法)을 하셨다. 또한 똑같은 설법이라 하여도 개인마다 받아 들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셨다.

〈법화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삼초이목(三草二木)의 비유는 개인차를 설명한 적절한 비유이다.

두터운 구름이 하늘 가득히 펼쳐져 있어서 삼천대천 세계를 구석구석 덮어 동시에 비를 골고루 내려 모든 초목, 총림, 약초의 작은 뿌리·줄기·가지·잎을 가진 것, 중정도의 뿌리·줄기·가지·잎을 가진 것, 큰 뿌리·줄기·가지·잎을 가진 것을 적신다. 많은 수목의 큰 것, 작은 것은 그 성질에 따라 저마다 받아 들이는 물기가 달라서 동일한 구름에 의하여 비를 맞지만 각각의 종류 성질에 적합하게 자랄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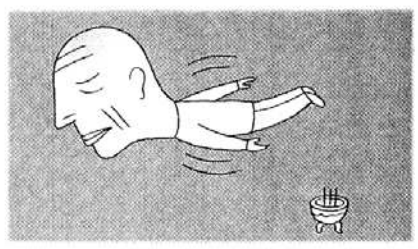
오늘의 교육은 걸핏하면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잎을 가진 풀이나 나무를 큰 뿌리, 큰 줄기, 큰 잎을 가진 풀이나 나무같이 자라게 하려고 잡아 당기고, 때에 따라서는 짓밟기도 한다. 또한 풀이나 나무가 '각 종류의 성질에 적합하게' 자라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자라도록 강요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만사천 법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중생들의 능력, 성격, 소질에 따라서 법문 내용을 달리함을 말한다. 팔만사천이라고 하는 수치는 '수없이 많음'을 의미한다고 볼 때 개인차에 알맞은 교육방법의 제시라고 볼 수 있다. 흔히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불법을 가르칠 수 없다", "당신은 너무나 활동적이기 때문에 불법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너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불법을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돈을 너무 밝히는 성질이 있으므로 불법을 모를 것이다" 등의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분명히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가르쳐야 함을 말씀하셨다. 즉 대기설법(對機說法)을 실천하셨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건달(乾達)

날아다니며 제석천 아악 관장
일하지 않고 빈둥대는 사람

하릴없이 빈둥대는 사람을 '건달'이라고 한다. 일하지 않고 먹으면서 이것 저것을 참견하는 사람을 건달이라고 한다. 또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없이 허풍을 떨며 다니는 사람도 건달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백수건달을 싫어하는 것이다.

건달의 어원은 불교의 건달바(乾達婆)에서 유래되었다. 건달바는 제석천(帝釋天)의 아악(雅樂)을 관장하는 신이다. 이 건달은 고기나 밥 등의 음식은 먹지 않으며 향(香)을 먹고 산다. 건달은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즐긴다. 그러니 건달은 건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습성을 갖추고 있다.

건달은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중유(中有)'의 인간이다.

불교에서는 '사유(四有)'라 하여 생명의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누고 있다. 새 생명을 받아 태어나는 단계를 '생유(生有)' 태어나서 살고 있는 생명을 '본유(本有)'라 하고, 죽는 것은 '사유(死有)'라고 한다. 사람은 죽은 뒤 중유를 거쳐 본유 때 지은 업(業)에 따라서 생명을 받는다. 네 단계의 생(生) 중에 중유의 생을 건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건달은 역시 확실성이 전혀 없는 불안한 존재이며 허공에 뜬 존재라 할 수 있다.

또 경전에서는 건달을 소재로 인생의 무상(無常)함을 드러내고 있다. 〈대지도론〉은 무상한 인생을 '건달바의 성(城)'에 비유하며, 인생은 허깨비와 같으며 산을 울리는 메아리와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건달이 쌓은 성이란 쉽게 말해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것으로 건달의 성이든 신기루이든 모두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애착하고 욕심부리던 것들은 마치 건달의 삶과 행위와 행위의 대가처럼 무상한 것이다. 불자의 도리는 세상이 이런 것임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야단법석'

감·로·심·장·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 · 안면기형 · 안과 (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주간불교 1997년 11월 25일 화요일

인터뷰

건강식품 3종 출시
시연스님, '원기대보탕' 등



◇대구여래한방병원장 시연스님

대구 여래한방병원 원장이며 최근 건강식품 '불로화장'을 특허로 출연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연스님이 이번에 또 다른 건강식품 3종류를 상품화시켜 시판하고 있다.

이번에 시판하는 건강식품은 '원기대보탕'과 '보혈청신탕', '한방식초'.

스님은 "'원기대보탕'은 중국 고대 신선도의 수행자들이, 원기를 도우기 위해 먹었던 것으로, 계피 같은 구기자 대추 등 30여가지 한약재를 써서 만든다"면서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방식초'에 대해서 스님은 "검은 쌀밥에 농주(農酒)를 붓고 상황버섯 검정깨 감 누릅겉질 등 40여가지의 한방약재를 넣어 발효시켜 만든 것"이라면서 "정력을 증진시키고 노화를 억제함으로써 성인병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약을 복용하면 대변색이 누렇게 변해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혈청신탕'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혈압으로 인한 질병이나 신경통 손발저림 등에 효과가 있지요."

스님은 이번에 개발 판매하는 3종의 건강식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면서 건강식품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한방병원 설립에 쓸 계획이라고 한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 무료예식장과 락아소도 만들어 이웃을 위한 자비실천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신상품·신경영 화제

원기대보탕(元氣大補湯)

중국에서 고대로부터 신선도(神仙道)의 수행자들이 원기(元氣)를 도우기 위해서 30여가지의 한약재를 써서 만든 「원기대보탕」은 몸의 원기를 왕성하게 함으로써 질병예방과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있다 . 이번에 시연스님이 비전된 명약의 처방을 얻어 약을 만들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일이다.

▤내용량 : 60봉지(2個月分)
▤용 법 : 1일1봉지(아침식후30분복용)

▣ 가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

한방식초 (韓方食醋)

검은쌀(黑米)밥에 농주(農酒)를 붓고 상황 버섯, 검정깨…등 40여가의 한방약재를 넣어 발효시켜 만든 「한방식초」는 명문대가(名門大家)의 비전된 신비의 명약으로 정력을 증진시켜 노화를 억제함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한 난치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특효가 있다. 약을 복용하면 누른 대변이 나오는 것이 치료효과를 확인 시켜주는 현상이다.

▤내용량 : 1.8ℓ (약0.6되)
▤음용법 : 1일2스픈(공복시 복용)

▣ 가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

보혈청신탕(補血淸神湯)

우리나라에서 이름난성씨의 종가에서 대대로 비전된 명약인 「보혈청신탕」은 보혈강장(補血强壯)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을 맑게하여 정신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내용량 : 4.2ℓ (약2되)
▤음용법 : 1일 1봉지복용(공복시복용)

▣ 가 격 : 30만원 (2개월분)

※ 특이한 자연향료 냄새와 엄선된 우리농산물(약초)로 정성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 시험준비생, 참선수행자, 노약자, 건강한 사람도 꼭 필요한 명약입니다.

▣ 입금구좌 : 우체국 704148-0019991
卍 여래한방병원
▣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생활속의 모든 정보!
불·자·정·보에서 만나세요.

함께 나누는

불·자·정·보

불자정보 광고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됩니다.
광고문의 전화 (02) 732-1522(直)
FAX (02) 737-0697

관 건 강 관

◆한 방 암 정 보◆
02)700-6366

승가 전통의 손맛…
온돌방 컨통메주
〔음식조리용 장군죽염〕



마음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 **보리가족**
02)3141-1011/011-786-0817
▶ 재래콩 메주에 음식조리용 죽염으로 담근 죽염 된장, 간장은 영양가와 약성이 풍부한 무공해식품이 될 것입니다.
· 온돌방 전통메주 소두1말(斗) 5개 값 39,000원
· 음식조리용 죽염 특별포장 5Kg(1) 값 35,000원

밀교 수행자
연락처 011-337-0353
당뇨 · 간경화 · 비만관리
※ 3~7일간 치료 저도 ※
能仁 看病會
011-337-0353
015-8487-3674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처료 불가병.
- 불시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 원 합장
0415)63-0749 / 011)453-8611

전문시술원 張 三 洙
목 허리 디스크 **중풍 좌골신경통** 오십견 · 비만
퇴행성 · 류마티스관절염
압구정역 (주)543-7306
(야)711-4370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완치 책임보장
치료후 병원 검사경과 및 의견상 완치가 아니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TEL : 0552-82-8128 · 8118
H. 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수맥(水脈)을 바로 알면 건강해지고 집안이 홍해집니다!
- 공부 잘하던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 원인도 없이 시름시름 앓고
- 애사 의욕이 없고 무한이 잦은시며
- 집안에 송풍이나 치매환자가 있다면…
※ 수맥상담 및 출장 탐사
FAX로 집구조, 방향, 주소를 적어 보내시면 수맥 감정해 드립니다. (이중은 ₩20,000)
실로암수맥연구회
02)362-8466/392-8621
FAX 02)392-8621
국민은행 011-21-0595-462 (이 준 수)
농 협 059-01-247105 (이 준 수)
※수맥연구원 양건철 회장

◆ 그린파워녹즙기◆
· 길동 02)470-3102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 관 단 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0593)34-1115~6
012)598-1015

관 강 좌 관

◆지장경 독송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현대불교신문 강 동 지 사
0391)43-5599

신 생 아 작 명
역 학 개 인 지 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혼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월 4회 실시- 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까지)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직응법 지도

명상 개인지도
현실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고통 **선(禪)**으로 풀어드립니다.
"철저한 생활위주 방법과 방편"
氣明絲妻好 地水火風
02)897-7731
016)340-4459

학생모집
▶ 포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역학지도
▶ 유아교육과 : 유아놀이, 아동미술, 생활미술
▶ 종무 행정 : 상담실무, 상담행정, 생활상담
1. 수료후 수료증 수여 및 자격증(포교사, 법사, 음아지도자, 창작놀이사, 불음법회사, 상담사, 역학사) 취득가능
2. 소형버스 통학가능
3. 출퇴근산에서 월 2회~4회 강의
4. 수업기간 : 2년
(02)931-6075~6
(0582)535-1987
(교육청 인가 57호)
만대교학대학

백련문 **풍류도**
풍류도란 호국무예의 한류로서 고조선시대 조의선사로부터 전해되어온 한국고유무술의 뿌리로서 입선, 기공, 검법, 봉술등의 전통무예로 내면의 세계를 밝히며, 내면의 세계란 자신의 몸을 양면 몸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시원 : 신라의 고운 최치원 선생이 풍류도를 두고 현묘지도라 할 정도로 극찬하였고 서산대사, 사명대사,징묵대사,역승대사등이 풍류도의 고수들이었다.
◆대도시의 공해 · 스트레스로 심신이 피로하신 분들께 알맞게 정통 풍류도 수련비법을 체계화하여 수련생을 지도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수련일시 : 오전9시~오후9시까지
(수련시간은 자유선택. 월~토)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빌딩 402호(조계사 부근)
■문 의 처 : 723-4260~1

선암사 불교교양대학
제2기생 모집 안내
다 음
■대 상 :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분 (초심자 환영)
■기간 및 시간 : 1998년 1월 7일 ~ 3월 5일 매주 수 · 목요일 오후 2시~4시(3개월간)
■장 소 : 선암사 대웅전
■개강식 : 98년 1월 7일 오후 2시
■인 원 : 70명
(접수순으로 접서서 남는 인원은 다음기로 접수함)
■교육내용 : 기초교리전반, 참선, 사경, 사원예절, 사찰탐방, 기도하는 법, 수계식 등 초심자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 실시
■원서접수기간및 접수처 : 1998년 1월 7일까지 **선암사** 종무소 051)803-7673, 803-7522
■입학금 : 구안친경
(입학금, 교재대금, 수강료 포함-분할납부가능)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 주지 원 타 합장

관 구인 · 구직 관

◆수양 · 공부 · 기도 모집◆
청 학 사
0595)83-2933

공양주 보살 구함
불심 돈독하고 신체 건강한 30대이후 보살님을 구합니다.
0373)374-1765(저녁 8시이후)
강원도 **극 락 사** 주지 합장

관 불교용품 관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금강경 10폭 병풍 법보시◆
천일기도 원력으로 이룬 금강경 병풍(경판 108장품) 꼭 소장하고 싶으신 인연있는 불자님을 모십니다.
02)845-0760

◆보련각서점◆
견지동 02)733-9537

◆예 진 솔 ◆
견지동 02)736-5160

◆견지불교사◆
불교서적 · 어린이용품 전문점
견지동 02)739-3032

◆大 福 田◆
佛 敎 用 品
견지동 02)737-0969

◆여 래 사◆
견지동 02)730-6939

◆太成佛敎社◆
불교 · 단청 · 개금
견지동 02)732-7375

◆ 아전전통칠기공방◆
목발우 · 제기 · 다기잔
· 소반 · 주방생활용품
옻칠공예 지정문화재 수리 기능인 작품
▶전화 : 494-0520
※ 삐삐 전화주문 가능

관 불교 미술 관

부처님조성 · 석탑 · 석등 · 석비 · 부도 · 불사건축 · 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귀의 삼보하옵고
석불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석조물과 조각등 분 이나리 어려운 현장 직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라옵니다
김 인 호 합장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 불 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 양 삼 성 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승도선원
-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상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불좌상 수출 (그외 다수)
주소: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 전시장 (0357)542-1527
야 간 (0351)874-4685
공 장 (0357)542-1528

佛 心 **여래미술원**
*탱화 *개금
정 우 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92-1 (봉선사 입구)
사무실
0346)571-5537
0346)575-5133
011-324-5133

大圓佛敎美術院
金魚 李 鍾 春
*불화 조성 전문
13.15.16회 물이전 입상
0346)571-6581
(화실)
011-737-6581

탁자, 달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 주요불사업적 ◇
- 합천(해인사) :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 대웅전 수미단 달집 문짝
- 서울(백화사) : 법당 수미단 응각 복전함
- 울산(삼보사) :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 대웅전 문짝 달집
- 포천(약천사) : 대웅전 문짝 달집
- 단양(천진사) : 대웅전 수미단 달집 경탁 경상
- 서울(학림사) :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92-4609 자 택 02-249-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최 貴 玉 합장

관 사찰안내 관

전국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하실 분이나 운영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광 진 불 사

포교당 안내
◇ 위 치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 평 수 : 50평
◇ 가 격 : 보증금 3천만원(월 50만)
02)242-6187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 정릉(북한산 국립공원)
◇국유지 사용권 : 3,000평
- 대웅전, 산신각, 칠성각, 주지실, 요사, 석굴
◇계곡과 기암괴석, 서울시내 조망 가능
◇가격 : 6억 5천만원
(02)547-4554

사찰안내
◇ 위 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 대 지 : 48평
- 임법당 18평, 방 2칸,
- 입실부엌, 목욕탕, 거실
◇ 가 격 : 1억 5천만원(절충가능)
02)937-3729
011)302-3729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천호 2동 파이롯트 4거리
◇ 평 수 : 30평 (6층건물 2층)
◇ 가 격 : 6천만원 (보증금·시설비포함)
◆ 보신 후 절충가능
전 화 02)485-2952
휴대폰 011)335-2952

사찰 및 부지
◇ 위 치 : 경남 진주시
◇ 부 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 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법 당 : 정토작업 완료
◇ 기 타 : 약 1,000평 작설차 나무 식재 전화 · 전기 · 도로 있음
◇ 특 징 : 공원에서 제외된 산속요지의 엣사찰터(건축등 허가 됨)
016)589-0560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 평 수 : 1,200평
- 법당, 요사채
◇ 가 격 : 1억 8천 5백만원
직접 보신후 상담요망!
◆ 나병환자도 낳았다는 유명한 약수물 있음
0597)63-7175
0597)62-2029

사찰 · 포교당 안내
◇ 위 치 : 전남 해남군 옥천면
◇ 평 수 : 임야 - 800평
전 - 112평
답 - 700평
◇ 건 물 : 대웅전 - 10평
산신각 - 3평
용왕각 - 3평
요사채(2동) - 40평
창 고(2동) - 20평
◆ 가격절충 가능
0634)33-9861
062)224-6696
(광주해동불교백화점)

사찰 안내
◇ 위 치 : 서울 중랑구 면목4동
- 4층건물 2층 30평
- 방2개, 주방, 법당1
- 보증금(시설비 포함) 2,700만원 원50만원
※ 가격절충가능
02)438-2973
0344)64-4827
017)263-6908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초역 100미터, 법원 건너편 3층건물 지하 60평
◇ 현재 사찰 3년째 운영중
◇ 대법당(삼존불 및 지장불)
◇ 방3, 거실, 주방 및 식당 완비
◇ 시설 투자비 2,000만원 소요
◇ 건물 임대 보증금: 3,000만원(월임대료: 120만원)
◇ 뜻있는 분에게 임대 보증금만 받고 무상 양도합니다.
◇ 시설 개조 및 변경도 가능
02)583-0014

사찰 및 포교원
◇ 건평(총평수)32평
◇ 법 당 : 1칸(최고급자재로 시설완비)
◇ 거실(방) 2칸, 주방(부엌) 1칸
◇ 화장실 및 사원장 1칸
◇ 현재 재적신도 : 약 300가구
◆ 양도금 총액 2,800만원중 건물보증금 1,000만원(월세 55만원 별도)
◆ 시설물인수금 : 1,800만원
서울 미포구 성산2동 200-57호
02)374-5295/011)742-2955

사찰 운영하실 분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부 지 : 125평
◆법 당 : 33평
◆가 액 : 1억 3천만원
◆시 설 : 시설일체 무상 기증
◆특 징 : 서울에서 40분거리에 소재한 사찰로서 입주즉시 법회할 수 있는 기도 도량으로 정법대로 불교 중흥을 위하여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신속하게 연결하여 드립니다.
양도의 사찰 법물, 세무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단, 스님 외 일반인 상담이나 대리 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불교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동 국 불 사 불사담당 : 조법사 합장
상담전화:012)1648-6334
(24시간 호출중)
서 울 본 사 :02)3705-4447
※ 출장중이 많사오니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사정상 급매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수리산 밑
◇ 평 수 : 대지 45평, 건평 25평
◇ 가 격 : 1억 2천만원
◇ 방2개, 거실 15평, 목욕탕
(최근에 수리 · 신식시설)
※ 스님 직접 ※
0343)66-5018
011)271-0669

사찰부지 안내
◇ 사찰부지 : 10,000평
◇ 대웅전 : 33평(완전 목조 7조립)
◇ 요 사 : 40평×방5
◇ 매 가 : 5억
◇ 위 치 : 원주에서 20분거리
(바위가 어우러진 암반위로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끼고 있는 진입로를 따라 노송이 우거진 산중턱에 자리잡은 곳으로 기도처 및 복지시설로 최적지)
⊙ 보십시오 절대 실망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 사찰부지 500평~수만평까지, 사찰 5천만원~10억까지 많이 확보하고 있사오니 연락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EL :0371-762-0101
011-466-1802 / 012-397-6003
(주)천 운 한 상 철 합장

전국 사찰부지 · 포교당
양도하실분, 매입 운영하실분 연락주시면 성심연결!
02)486-2343
019)234-0417
신안개발 성 운 합장

도심 포교당 하실분
◇ 위 치 : 서울 송파구 잠실 (석촌호수 부근)
◇ 평 수 : 40평 (옥상사용가)
◇ 가 격 : 2,500만원(보증금포함)
◆ 사정상 급매합니다.
02)423-6446

관 승 복 관

◆ 대 성 승 복 ◆
대표 임 현 호
(단체주문 우대)
견지동 02)739-6287

◆ 가 람 승 복 ◆
견지동 02)739-0080

관 여 행 사 관

◆ 불교성지순례 ◆
(주)성문관광
종로구 청진동
02)722-2233(代)

◆ 스마트여행사 ◆
당산동 02)631-9412

관 장 의 관

- 불교장례대행 -
◆ 대한불교연화회 ◆
불교식 장례를 불자들 손으로~
02)732-9618~9

관 필 방 관

◆ 大興堂筆房 ◆
대표 권 대 일
견지동 02)732-7326

◆ 大新堂筆房 ◆
견지동 02)732-2830

◆ 安國筆房/書籍 ◆
견지동 02)732-4846

◆ 丹 陽 筆 房 ◆
대표 신 태 식
서예도구 일체
공평동
02)720-9991

관 표 구 관

◆ 성 신 표 구 ◆
인사동 02)734-2344

◆ 낙 원 표 구 ◆
인사동 02)734-2972

◆ 명 륜 표 구 ◆
인사동 02)736-1712

◆ 박 당 표 구 ◆
인사동 02)735-5696

◆ 고미당 표 구 ◆
인사동 02)735-2037

◆ 신신표구사 ◆
인사동 02)735-2710

◆ 서 광 표 구 ◆
인사동 02)720-7442

◆ 은실화랑표구 ◆
광명시 02)682-7536

관 화 랑 관

◆ 용정 콜렉션 ◆
중국미술품
02)735-2700

◆ 금 성 화 랑 ◆
인사동 02)733-2462

◆ 가 람 화 랑 ◆
인사동 02732-6170

◆ 경인미술관 ◆
인사동 02)733-4448

◆ 대호고미술전시관 ◆
답십리 02)212-8777

◆ 예 림 화 랑 ◆
인사동 02)732-3318

◆ 대 림 화 랑 ◆
고서화. 한국화
인사동 02)733-3738

◆ 갤러리 대아 ◆
서 양 화
02)517-2558

◆ 동 원 화 랑 ◆
인사동 02)736-3852

관 학 원 관

◆ 시사일본어사 ◆
- 1집 초, 중급편
- 2집 고급편
- 3집 LIVE편
NHK 일본어
국내독점 라이센스 시사일본어사
02)720-3690

관 기 타 관



도원불교수련원
지암정사(智庵精舍)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 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 潭 合掌
전화: 0374-32-7464
FAX: 0374-33-7464

제7차 **충효사**
겨울수련회 모집안내
불법의 진리를 깨닫고, 충효사상의 도리를 배울 수 있는 깨달음의 장에 당신을 초대합니다.나눔의 장은 당신의 미래를 바꾸어 드립니다.
1. 모집내용 : 1차~8차 (초심반) 20명
2. 회 비 : 18만원
3. 수련내용 : ①묵 언 ②염불진언 ③참 의 ④마음나누기
4. 연 락 처 : 042)841-4101
파 련 중 앙 수 련 원
파련중앙경제연구소
파 련 합장

제137차 수련모임
인간완성, 현세해탈, 완전건강
시민참선수련 전문지도
선(禪)은 수십세기의 경험이 축적된 가장 확고한 정신풍일법이며 인간완성법(깨달음)입니다. 참선공부는 인간내면을 정화롭게 하고 외면을 아름답게 하며 긴장과 경쟁이 극심한 현대인에게는 최선의 심신건강법이기도 합니다.
본회는 1981년에 부산 대구에 도장을 개설 명상수행과 도가의학을 함께 지도해왔습니다. 이번에 서울도장을 개원하게 되어 참선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종교종파를 초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수련종컨 / 좌법, 호흡법, 명상식사법, 도인체조, 단식법
◆지 도 자 / 이성담(李星潭) 선생
●장 소 /본회 서울도장
〈강남구 포이동 225-1 영풍B/D 2층〉
한국참선명상협회
도가양생학술원
도장 : 서울:02)575-0130/
부산:051)501-8335~6 / 대구:053)742-9194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일체를 다 놓는다면 그대로 滅·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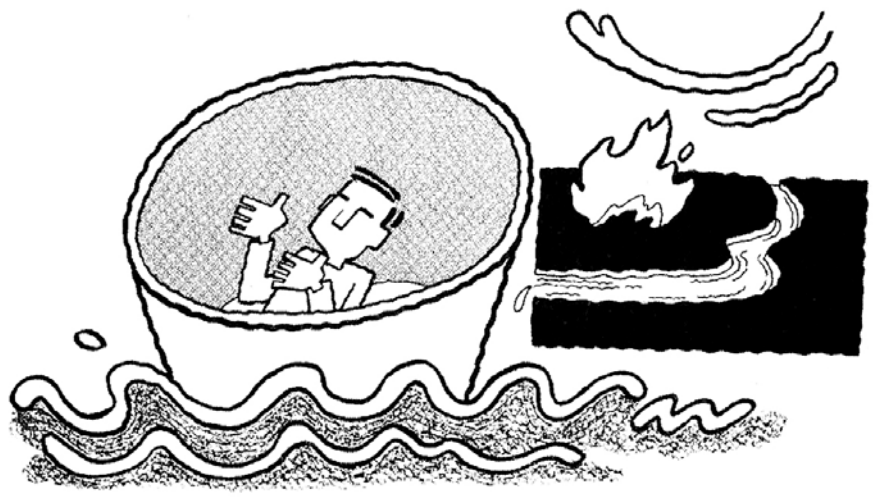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말을 해도 한생각 잘못하게 되면 한데 떨어지니 진실되게 합시다 함부로 말하면 구업이 됩니다"

"자기 근본을 못믿으니 반쪽삶 살게 돼"
"욕심·집착하는 마음 버리면 편해집니다"

옛날에 어느 선지식께서 말씀하시기를 "쓰레기통이 돼봐야 쓰레기의 이치를 아느니라. 금은보화 담은 창고가 되지 말고 쓰레기통이 되거라."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셨는가 곰곰히 생각을 해봤더니 쓰레기통에는 별의별 게 다 들어있더군요. 그리고 쓰레기통이라는 것은 고귀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그냥 팽개쳐져 있죠. 쓰레기통 노릇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기를 때에도 쓰레기통의 이치와 같아서 쓰레기통이 되지 않는다면 자식을 올바르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쓰레기같은 거는 자기가 갖고 좋은 것은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부모의 심정은 부처님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노랫말에도 있지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쓴 것은 어머니가 삼키고 단 것은 뱉어서 자식에게 주죠. 커서도 그저 고생없이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부모의 조그마한 소망, 소망이야 크고 작은 게 있을망정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생의 자부로서, 알로 낳고 태로 낳고 습한 데서 낳고 화해서 낳는 그 사생들을 전부 자기 몸 아님이 없고 자기 아픔 아님이 없고 자기 한 도량에 있지 않음이 하나도 없고 죽고 사는 것도 자기 아님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부모가 한 가정에서 자식들 생각하는 것과 부처님이 사생 자부로서 일체 만물만생을 생각하는 바가 모습에 있어서 크고 작을 뿐이지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물물과 바닷물이 물은 같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대해 항상 자기 주인공 뿌리에다가 모든 것을, 좋은 것은 감사하게 놓고 언짢은 것은 '언짢지 않게 하는 것도 너니까 잘되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굴리면서 지혜롭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신통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가고 오는 것, 또 내가 어디서 나온 줄 아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모두를 볼 때 잘 되는 건 감사하게 놓고, 안되는 것이 있어도 구정물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맑은 물도 거기서 대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다 놓으라는 얘기죠.

탐진치 삼독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사성제가 있는데 그 '苦集滅道'도 근본적으로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고가 생기는 것은 집착에서 오는 것이니 스스로서 원인을 알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자리에 놓는다면 멸이 됩니다. 일체를 다 놓는다면 일체가 다 멸이 됩니다. 그렇게 놓고 실천을 해가다 보면 도에 이르게 됩니다. 멸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생활속에서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 것을 믿고 놓을 때에 바로 멸함이 생기며, 멸에 들어가면 도가 있고, 도심이 생기면 바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넓게 볼 줄 알게 되고 넓게 들을 줄 알게 되고 넓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둥글게 나오게 되겠죠.

둥글게 나오는 반면 둘이 아닌 까닭을 알게 되며, 그것을 잘 굴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물물이나 바닷물 이나 똥물이나 핏물이나 흙탕물이나 다 똑같이 젖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 저것 무슨 물인지 따지지 않고 젖는 이치를요. 어디든지, 어떠한 물에도 젖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젖는 그 자체는 이 말을 안하면 그 이치를 모르겠기에 방편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젖는 이치만 안다면, 여러분이 주인공의 그 뿌리에 모든 것을 놓는다면 하나에 젖을 뿐이지 이것 저것 가리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가리는 게 없는 반면에 젖는 걸 알고, 젖는 걸 아는 반면에 그 젖는 것 마저도 공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은 최상승의 얘깁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해나가는 게 뭡니까. 이익이 없다면 할 것도 없죠. 할 것도 없다는 걸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이익이 충분하고 나와 남이 다 이익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면서 끝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젖는 도리마저도 공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세상 이치가 그렇게 천차만별의 굴림이 있겠지만 단 한군데서만이 굴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전체가 단 한군데서만이 통할 수 있다는 사실, 상대하고 나하고 통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한군데서만이 찰나찰나 나투어 죽은 사람의 영혼이든 산 사람의 영혼이든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살았어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죽었어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불로 가고, 물로 가고, 흙으로 가고, 바람으로 가고 그렇게 정돈을 잘해서, 만약에 기계 하나를 이 세상에 다시 내놓을 때 쓸모있는 기계로 내놓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재생이죠. 그런데 재생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 뭐냐하면 끝없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진화되고 형성되면서 또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과정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함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다함없이 한 마음조차 없거든요. 그러나 다함 없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자식이 잘 사는 걸 원하듯이, 또 죽음까지도 대신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뭘 갖다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함이 없이 할 수 있다면 하라'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석금이라고 비유를 하죠. 예를 들어 자식이 죄를 지어 갇혀있을 때 부모가 보석금이라도 주고 빼내오는 것처럼 수억겁 광년을 거쳐오면서 남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게 됩니다.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살면서, 먹고 먹히고 또 뺏고 뺏기면서 살아왔던 그 과보들을 제거해주고 빚을 갚음으로써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해서 거둬들일 수 있게끔 해드리는 역할입니다. 그게 또 한번 추수를 해들이면 그걸로써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부모와 조상과 자식이 한 차원으로 한 염주에 꿰어져 있으니 그것은 어머니가 자식에게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가 바로 오늘이니까요.

때로 어떤 분은 형편이 어려운데도 한푼 두푼 모아서 가져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내 가슴은 찡하고 아픕니다. 그러면 그 간절한 마음에 내가 아파 견딜 수 없을 때, 내 마음과 그 마음이 둘이 아니기에 때론 내 마음 편하고자 만원이든 이만원이든 떼놓고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도 그 사람은 값어치를 충분히 했거든요. 돈 있는 사람 몇천만원 보다도 그 사람에게는 더 값진 돈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는 거죠. 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파도가 일면 물이 잔잔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를 이루지 못합니다. 파도가 일면 이는 대로 태연하게 '인생이란 이런 거지. 파도가 없으면 죽고 사는 것도 생사윤회도 없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놓으십시오. 재주가 있는 사람은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넘어갑니다. 넘고 또 넘고 이래도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갑니다. 파도친다고 아우성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보이는 세상에서는 파도가 치나 마음엔 파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상세계에 닥쳐오는 것이 잔잔해진단 얘깁니다. 자기 마음에 파도가 일지 않기 때문에 그 파도도 그만 스러져 버리죠.

이 모두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그 욕심내고 집착하는 마음 하나 내버리면 편할 것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파도가 이는 거죠. 그러나 돈을 벌지 말라든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든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자기 분수에 맞게 산다면 그걸 어찌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을 잘 새겨들으세요.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해도 한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한데 떨어지게 되니 진실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내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하게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최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51)

산 정상을 날아서 오르고 싶은 사람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있다 없다를 논하지 말고 닥치는 대로, 오는 것 막지 않고 가는 것 잡지 않으면서 내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

생활에서나 행동에서나 욕심부리지 않고 분수에 맞게 절제해 나간다면 어떤 원치 않는 일이 닥쳐 나를 괴롭게 한다 해도 나의 참뜻은 빛을 보게 된다.

나쁘면 어떻고 나쁘지 않다면 어쩌라 하는 마음으로 내 발걸음 걸음마다를 다스려 가면서 진실하게 꾸준히 걸어가라. 그런 묵연한 마음이면 인연 지어진 주변 사람들이 돌아서서 나를 돕게 되고, 오히려 바라지 않았건만 완성이 나를 찾아온다."

삶은 곧 목표를 향한 도전이라고 한다. 그 목표가 어떤 것이 되었든.

허랑하게 떠돌며 세월을 보내는 낭인(浪人)이 아닌 다음에야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목표가 있다. 그리고 누구나 그것을 위해 땀을 흘린다. 바로 생명의 에너지가 약동하는 모습이다. 삶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까닭도 거기에 있다.

목표는 세상을 발전시키고 사람을 진화하게 하는 요인이다. 목표를 잃은 삶은 무위도식, 죽은 삶이다.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도전한다. 산의 정상에 오르려는 등산가가 날짜를 잡고 장비를 챙기고 코스를 정한 다음 길을 떠나듯이 준비를 하고 기간을 잡고 일에 착수한다. 그리고 대개는 목표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아 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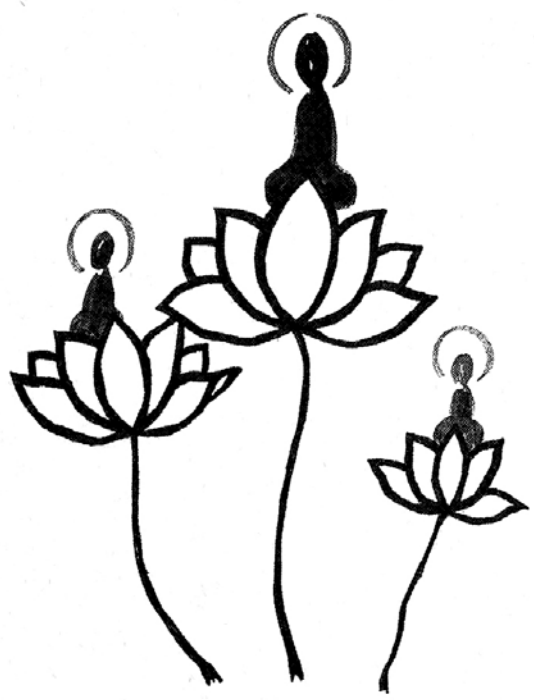
등산가가 정상정복을 바라듯이 목표달성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성공과 실패가 교차한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실패한다.

삶의 긴 여정에서 보면 이 성공과 실패는 자리바꿈을 하며 갈아든다. 애절한 일이지만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니, 극히 드물다.

그는 바로 결과보다도 과정에 충실한 사람이다.

여기 지리산 정상에 오르려는 등산가가 있다. 그가 장비를 꾸려 산을 오르기 시작한다.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내딛는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그의 발걸음은 산을 오르기 시작할 때나 능선에 다달아서나 늘 같다.



뛰는 법도 없고 조급해 하지도 않는다. 쉬어야 할 때는 쉬고 걸어야 할 때는 걷는다. 그는 알고 있다. 서두르는 마음이 그를 정상에 올려 놓는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묵연한 행보만이 그를 정상에 다다르게 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앞지르는 사람에 개의치 않는다. 나의 행보와 그의 행보가 다를 수 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뒤처지는 사람을 조롱하지도 않는다. 사람마다 자기 체력 이상으로 힘을 쓸 수 없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평화롭다. 마음이 쉬고 있기에 그렇다.

누가 이 등산가를 못난 사람이라 하겠는가. 누가 이 사람이 정상에 오르지 못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토너도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다만 자기의 페이스를 지키며 꾸준히 달릴 뿐이다. 서두르다가는 낭패를 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누구나 본래는 늠름하고 밝아서 서두르지 않아도, 결과를 미리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다 자기의 삶을 값지게 엮어 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이 장보러 간다고 덩달아 따라 나선다. 남들이 달리면 자기도 달려야만 사는 줄 안다. 모두들 전전긍긍하며 산다. 바쁘고 바쁜 것이다. 어서 빨리 목표를 이뤄야 하고 어서 빨리 남 보란듯이 되기를 바란다. 욕심에 쫓기며 사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조금만 삐끗해도 근심 걱정에 휩싸인다. 안절부절해 하며 신세 한탄, 팔자운명 탓을 하게 된다. 황소걸음이 천리를 간다는 사실은 아예 잊고 산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천리를 가는 법이다. 고로 과정은 허송도 아니고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목표보다 소중하다. 아니, 목표란 본래 없는 것이고 과정이 곧 목표인 것이다. 내가 세웠던 목표는 과정이 있음으로써 달성되어지는 인과의 산물일 뿐이다.

과정을 건너뛴 결과는 없다. 그럴진대 차라리 목표를 지워버려라. 목표를 없애고 지금·여기를 보라. 나는 올바른 등산가인가.

협 찬 : 임태수 · 유현숙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마음의 파도 없으면 현상계 잔잔"

☞ 17면에서 계속

되면 그야말로 진짜 구업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나왔으니 종교를 떠나서 이 공부는 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상대가 어디 있으며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없다면 모두가 무효가 돼 버려요. 내가 있으므로 세상도 있는 거니까 주처는 바로 여러분 각자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생명의 근본이 있습니다. 뿌리없이 싹이 자랄 수 없듯이 싹은 자기 뿌리를 밑어야만 공덕이 된다 했습니다. 자기 근본을 믿지 않고 타인을 믿고 기도하는 건 도깨비짓과 같은 겁니다.

"마음은 좋게쓰면 좋은 일이 되고 나쁘게 쓰면 나쁜 일이 됩니다 그러니 생각을 좋게 돌리세요"

출가가 망설여 집니다

문 저는 5년 전에 몸이 아픈 것을 계기로 스님을 처음 뵙게 됐는데 그때 스님께서는 전화기를 비유로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내 집에 먼저 전화를 놓아야 걸려오는 전화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과 관하는 걸 일러주셨는데 저는 그때 이해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척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불교와는 계속 인연이 깊어 어느 큰 사찰에 출가를 하게 되었는데 버리지 못한 인연이 많아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사 스님 말씀이 소금씩 마음에 와 닿으면서 결혼을 해야 할지 출가를 해야 할지 매우 망설여집니다. 몸도 아프니 한편으로는 출가해서 다시 나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스님, 가르침 주십시오.

답 항상 얘기하지만 마음공부는 출가를 하든 안하든 그걸 떠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만 하는 공부예요. 그리고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출가는 마음으로 하는 출가죠. 그리고 사람이 말이예요. 미우나 고우나 한철사는 인생을 짧은 여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죽은 영혼이나 산 영혼이나 똑같아요. 50%가 산 영혼이라면 50%가 죽은 영혼이죠. 보이지 않는 영혼이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평등해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리고 현실로 이렇게 수억겁을 살아나온 그 과정의 모습들을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몸 아픈 것도 말입니다. 사람 몸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그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만이 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관해주어야만 나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낫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척을 보더라도 '아 정말 그러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믿고 진실히 관하면 될텐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뿌리의 차원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자기 뿌리를 믿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음 속에 갈등이 나오는 것도 결국 당신 영혼의 근본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을 믿지 않고 자기가 산다고 하니까 50%밖에 모르는 거죠. 몸 속에 있는 생명들의 의식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여진 인연들입니다. 거기에서 갈등도 나오고 화도 나게 하고 길을 잘못 들게도 하고 잘 들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떠한 게 나오더라도 의식에서 그러는 거니 거기에서 속지 말고 모든 걸 주인공 자리에 몰록 놔라 했습니다. 내 몸 속에는 천차만별의 생명들의 의식이 살고 있는데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도와주지만 나쁜 인연은 사사건건 방해를 합니다. 우리 현재 사는 모습과 똑같죠. 나쁜 인연들을 예로 들면 뇌물 먹은 문지기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망쳐놓는 것과 같아요. 즉 말하자면 간장 공장이나 위 공장이나 방광 공장이나 척수 공장 콩팥 공장 이런 부서마다 문지기로 있는 인연이 있어 뇌물을 먹으면 깡패를 들여놓아 싸우고 시끄럽게 만들고 병이 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평등하게, 차별을 두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건 다 그냥 주인공에다가 맡겨놔라 이 소립니다.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거기서 다스리는 사람 하나에다 다 맡기는 거죠. 진짜 자기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고, 자기만이 자기를 이익되게 할 수 있고, 자기만이 자기를 이끌고 갈 수 있고, 자기만이 자기를 고쳐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 마음의 선장이라는 놈을 진짜로 붙들고 믿어봐요. 당신 몸뚱이를 당신이라고 붙들고 늘어지지 말구요. 그래야 통신이 됩니다.

스님께서 호두알 건네줘

문 이년 전 어느날 스님께서 저에게 호두 한 알을 건네주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환희심에 차서 한시도 그 호두를 제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기를 한 2년, 그 호두도 제 손때가 묻어서 보기좋게 윤이 났습니다. 얼마 전 문득 진실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그 호두를 깨어서 속을 맛있게 파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모르게 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보니 웬걸 거기에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뭐라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아, 스님은 어디에든 계시는구나. 또 무엇이든 하고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풀 한 포기 바람 한 점에도 평등공법으로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나왔습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답 내 모습으로 보였다고 하셨죠? 나로 보일 때도 둘이 아닌 까닭에 모습만 나로 보였지 실제는 당신이예요. 당신으로 보였든 나로 보였든 그건 당신한테로 하나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공의 가르침의 과정이니 스님은 어디에도 다 계시는구나.' 하는 것도 옳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때로는 찰나에 '부'가 되고 찰나에 '자'가 되는 도리가 있거든요.

한 생각 하기에 따라서 말이예요. 그리고는 부와 자가 하나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도리만 알면 자유자재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게, 어느 거 하나 내 아님이 없다 하는 도리도 그 까닭이죠. 하여튼 호두도 깨먹은 건 잘 깨먹었어요. 언제고 모습이라는 건 없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먹어치우기 마련이예요. 부처님께서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라고 그러셨단 말이예요. 그게 무얼 먹는 걸 말하는지 아시죠? 부처님도 대신 못 깨우쳐 주니까 부처님을 한마음에다 흡수시켜라 이 소리거든요. 먹어치우라는 게 뭘 잡아먹으라는 게 아니라 '흡수시켜라, 둘 아니게 흡수시켜라, 모든 거 악한 거든지 선한 거든지 내 앞에 닥친 거면 다 흡수시켜라.' 이 소립니다. 그래서 한 번 씽긋 웃으면 꽃 한 송이 든 거와 같이 이 심전심으로 전부 통한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뼈 한 무더기를 놓고 사생이 다 부모 자식간임을 가르치기도 하셨죠.

은산철벽 넘고 싶은데…

문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살다보니 때로는 정말 은산철벽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그걸 뚫어보겠다고 송곳과 정을 다 사용해 보았습니다만 여의치 않습니다. 스님께 가르침 청합니다. 기필코 뚫고 넘어설 것입니다.

답 하하하. 꼭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은 마음은 체가 없어서 철퇴도 없고 벽도 없고 강도 없습니다. 은산철벽도 뚫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자리에서 한 생각을 내면 미국에도 통하고 은하수에도 통화고 저 우주에도 통하는 겁요. 빛보다 빠르죠. 죽고 사는 문제를 탁 놔버리고 겁내지 말아요. 자식이 어떻게 될까, 부인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하지 마시고 다 맡겨 놓으세요. 오히려 다 놓게 되면 심부름꾼이 생겨요.



그림 · 최주현

방역살생 · 전쟁에 대해…

문 스님께 살생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국가정책상 방역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곤충과 벌레들이 죽게 됩니다. 그것도 살생인지요? 그리고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상대방 군사를 죽이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요?

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미물이나 생명은 하나라 그 도리를 모르고 그냥 죽이게 되면 살생이 되지만 주인공 선장한테 놓고 죽이게 되면 그건 살생이 아니라 새로 탄생을 시키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을 시킬 때 그 모습으로 재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벌레가 만 마리라 할 지라도 한데로 모아서 한 차원 높게 재생을 시키죠. 옛날의 선지식들께서 소 한 마리를 잡아도 그건 소를 잡은 게 아니라 무명을 벗겨준 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그것 또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식구가 많아 집안이 좁아지면 집을 늘릴 수도 있고 식구들이 흩어져 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과일 나무를 심어도 너무 많이 열리면 열매가 굵지 않게 되니 일부러 몇 개를 따버리죠. 또 배추 씨를 심었을 때도 싹이 너무 많이 나면 서로가 잘 자라지 못하니 솎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치가 있듯이 우주 제불세계에서도 이게 솎아내지 않으면 안되리만큼 돼 있거든요.

그러니 넓게 본다면 굶어 죽는 나라나, 물로 죽고 불로 죽는 그런 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죽어도 죽는게 아니거든요. 진화가 돼서 또 나오게 돼 있어요. 한편 생각하면 오래오래 고생하며 죽는 것보다 단 한 칼에 고통없이 죽는다면 그것도 방법이죠.

누구나가 한번은 다 죽어요. 현생에 조금 더 살고 덜 살 뿐이지 다 합쳐서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누구를 죽였다든가 살생했다든가 하는 생각을 남겨두지 말아요.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고 그것도 자연의 이치니까요.

스키장서 이상한 일 체험

문 저는 작년에 강원도에 스키를 타러 갔었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잠깐 스키장에 다녀왔더니 제 차가 본래 물리적으로 헤드라이트가 켜지지 않게 되어 있는데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었습니다. 순간 '아, 이건 산에 올라가지 말라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회가 자주 없는지라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눈 썰매장에 있었는데 장갑 한 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저는 차에 놓고 온 줄 알고 주차장엘 갔습니다. 그런데 새 장갑이 놓여있는지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당장 필요한 터라 '고맙다' 그러구선 들고와서 아이에게 주었더니 마침 손에 꼭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장갑을 어디선가 찾았거든요. 하도 이상해서 '주인공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네가 가르쳐다오.' 하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차에 헤드라이트가 켜진 것 하고요, 물건이 놓여져 있던 것이 이상한데요,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의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생각을 좀더 넓고 좋도록 해보세요. 헤드라이트가 켜졌으면 '아, 이건 길을 밝혀주는 거니 잘 갔다오라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생각하기에 달렸는데 왜 하필 가지 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를 좋도록 돌려 놓으세요. 그리고 장갑 생긴 것도 그래요. '내가 원하니까 내 졸병들이 갖다 놓은 거지.' 라고 생각하면 이상할 게 없죠.

언젠가 내가 얘기했죠. 여기 처음 오던 해에 김장을 해야할텐데 그릇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릇이 없으니 배추를 절일 수도 없었는데 이튿날 아침에 나가니까 그릇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어요. 사람들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의 능력이 있지만 마음이란 건 좋게 쓰면 좋은 일이 되고 나쁘게 쓰면 나쁜 일이 되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도 신통이 뛰어난 제자가 있었지만, 이 공부는 근본부터 가르쳐야지 자칫 신통이 도인 줄 알고 잘못 오해하고 머무르게 될까봐, 혹여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뛰어넘는다든가 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급할 때는 그런 일이 생겨도 이상하게 생각지 마시고 '이것도 주인공이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인공이라는 불성 속에서는 천차만별로 화해서 나투게 됩니다. 신장도 돼주고 해결사도 돼주고 관세음보살도 돼주고 지장도 돼주고 문수도 돼주고 보현도 돼주고 이렇게 수없이 나투어 내가 돼 줍니다.

"사람몸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끌고다니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만이 자기 이끌 수 있어요"

의사도 내 주인공 일까요

문 얼마전에 심한 감기와 함께 눈병이 났던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라는 주위의 권유를 물리치고 계속 관하고만 있었더니 아픈 것이 한달이나 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래, 병원의 의사도 바로 내 주인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엘 갔더니 눈에 뭐가 들어갔는데 그동안 더 깊이 박혀 굉장히 고생을 하며 여러 개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기를 '무의 세계로 통신하느라고 열심히 관했지만 그것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유의 세계도 같이 돌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생각을 말이예요, 좀더 넓게 해보세요. 모습은 각각 달라도 마음 자리가 둘이 아닌 줄을 안다면 모두가 내가 될 수 있죠. 천백억 화신으로 나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내 손으로 할 일이면 내 쪽으로 합해서 하나가 되고, 남의 손을 빌어야 할 일이라면 그 쪽으로 가서 하나가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병원에를 가든 약국에를 가든 그것도 자기가 있으니까 가는 것이고, 자기 주인공을 믿으니까 가는 거죠. 아픈 것도 자기가 있으니 아픈 거고요. 그러니 자기의 뿌리인 주인공을 믿는다면 그 의사나 약도 내 주인공의 보이지 않는 손인 줄 알게 되니 그것도 법이지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자재권입니다.

그리고 오계를 받을 때 술먹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나는 무조건 먹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게 바로 융통성입니다. 그러니 그건 거짓말을 했어도 거짓말이 아니되니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럴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해라 이럴 수도 없는 문제가 생기죠. 거짓말을 해도 아니되고 안해도 아니되는 그 가운데서 스스로가 알아서 융통성있게 지혜롭게 해나간다면 그대로 법이 됩니다. 그런 거와 같이 융통성있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 한마음이 저기까지 미치는구나. 보이지 않는 한마음이 찰나에 들고 나면서 남의 손을 빌리게 해주는구나. 내 주인공의 손을, 주인공이 이렇게 남의 손을 빌리게 해줬으니 그렇게 수고를 한 거 감사하고, 진짜 감사한 건 여기서 그렇게 만들어줬으니 또 감사하구나.' 그렇게 놓고 가면 되죠. 매사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언젠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내가 한창 산으로 돌아다닐 때 몰골이 말이 아니니 빨치산으로 오해를 받고 붙들렸어요. 그때 형사들이 한 다섯 사람쯤 됐어요. 죄도 없이 고문을 당하고 방에 갇혀 있자니 보통 갑갑한 일이 아닙디다. 그때 문득 생각이 '인제 나가자' 이거예요. '내 자부처가 나가야지, 저 문고리 좀 들어봐' 이래요. 그래 문고리를 잡아당겼더니 그 문설주 끼워놓은 것이 그냥 쑥 빠져요. 형사들은 다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고요. 그게 무슨 원리냐 하면 내 주인공의 원자 속에서 입자를 내보내서 딴 사람을 데려오게 해서 문을 따주게 만들었거든요.

그 상대방도 바로 나다 이 소립니다. 마침 책상에는 건빵도 있고 물도 있길래 물 한 잔 마시고 쓱 닦고는 건빵도 주섬주섬 손수건에 좀 싸들고 나왔죠. 나오면서 씩 웃고 나왔어요. 왜냐? 나를 고문한 것도 이 주인공에서 저 사람을 시켜서 한 것이니 미울 수가 없죠. 그러니 그걸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가게 하는 것도 나오게 하는 것도 먹게 하는 것도 모두가 네 놈이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맞은 상처는 아프지도 않고 금방 나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 할 일을 남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남한테다 떠넘기지 말라 이 소리예요. 남한테 물씬 맞았다 하더라도 '어허, 저 사람을 시켜서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패게 했으니 내 얼마나 저 사람 수고를 하게 했나.' 하고 생각을 돌려보세요. 수고를 시켰으니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신다면 몸은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게 돼버리죠. 죽은 세상으로 연결이 돼서 다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저 길었든 짧았든 한 순간의 일입니다. 일초 전이라 할지라도 연방 과거로 돌아가니 붙잡을 것이 없고 미래도 오지 않았으니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참나참나 화해서 공한 거를 아시고, 또 오늘이 영원한 오늘이라는 뜻을 아셔서 열심히 살아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협찬 이달호 · 이태영 · 이상기 · 이원기 · 이용기
인천시 동구 만석동 6번지

"불성은 천차만별로 화해서 나투어 줍니다" 의사나 약도 나의 보이지 않는 주인공의 '손'

◇연말연시 문화행사

구분	내용	장소	일자	연락처	비고
강좌	고3수험생을 위한 특강	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	12.29	042)488-0732	무료
	청소년민속강좌	민속박물관	12.22~27	02)734-1341	무료
	박물관교실	중앙박물관	1.5~9,12~16	02)398-5082	
	성(性)문화와 페미니즘	한겨레문화센터	매주 화	02)3272-7575	
	종교, 철학	중앙문화센터	매주 금	02)776-4414	
	참선다도교실	금강문화교육원	1월부터	02)893-2700	
	봉산탈춤 토요강습회	봉산민속극장	2.28까지	02)562-2080	
	전문직업미리배우기	인천청교련	1.19~24	032)577-0266	
공연·행사	청소년한마당	불광사	12.28	02)413-6060	무료
	송년잔치	조계사	12.28	02)734-8179	
	전통창작무	민속박물관	12.27	02)734-1341	무료
	전통의상발표회	민속박물관	1.10	02)734-1341	무료
	전통무용	민속박물관	1.24	02)734-1341	무료
	교실이데이2	소극장 오늘	1.11까지	02)762-7036	만18세이상
	삼손과 데릴라	부산문화예술회관	12.30까지	02)292-7385	
	호두까기인형	문예회관대극장	12.30까지	02)745-0745	
	세계공룡대전	한국종합전시장	1.16까지		
	용띠위의 개띠	대학로극장		051)764-6052	
	폼페이유물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11	032)830-0004	
	토기전	중앙박물관	2.1까지	02)398-5112	
	임동창콘서트	63빌딩 국제회의장	12.31		
	단장의 미아리고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32)815-9922	
	한복전시회	민속박물관	29까지	02)734-1341	
	명성황후	부산시민회관	1.9~11	02)562-5022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1.17~18	02)562-5022	
	징검다리	예술의전당	28까지	02)580-1234	
영화	티벳에서의 7년	명보극장등	20 개봉	02)267-1522	
	인어공주	씨네코아,브로드웨이	13 개봉	02)511-2301	
	아나스타샤	서울극장	20 개봉	02)277-3011	
	곡스	허리우드극장	20 개봉	02)742-1481	
	천녀유혼	미화정	1 개봉		

송년 불교방송·TV 프로그램

▲불교TV

일자	시간	내용
12월24~31일	오전 10:20	불교계 10대 뉴스
12월31일	오전 10:20	특별좌담 '97 불교계 결산'
12월31일	오전 11:10	'퀴즈특급 이뭐꼬 왕중왕 전'
12월31'일	오전 9:10	'김덕수의 코리아 환타지'
12월31일	낮 12:00	특집 리포트 '한중일 새로운 황금연대를 연다'

▲불교방송

일자	시간	내용
12월24~31일	오전 9:05	차 한잔의 선율-'97 음악계를 돌아본다
12월24~31일	오전 10:05	(가제) 전화로 물어봅시다
12월24~31일	오후 12:20	97 을해의 가수들
12월24~31일	오후 2:10	주제가 있는 불교여행
12월24~31일	오후 3:05	음악 타임머신
12월24~31일	오후 5:10	청춘년, 한해를 돌아보며
12월26일	오전 9:05	겨룩한 만남-나누는 기쁨
12월29~31일	오전 7:15	98 이것만은 바꿉시다!
12월29~31일	오후 8:05	(가제) '불효자는 웁니다'
12월24~30일	오후 10:05	청취자가 뽑은 '내가 사랑한 영화, 내가 사랑한 영화음악'
12월31일	오후 5:10	문화유산의 해 특집 '문화재 같은 사람, 문화재 속의 사람'

세밑 문화행사

가족나들이 '손짓'

한해가 다시 간다. 직장인들의 명퇴, 조퇴가 유행병처럼 번져 가족 모두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경제 한파까지 덮친 올 연말은 어느 해보다도 스산함이 더한 분위기다. 이 해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새록새록한 가족애로 새해를 맞을 방법은 없을까. 연말연시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줄 곳으로 안내한다.



◇전세계적 관심을 모으며 제작됐던 화제작 '티벳에서의 7년'.

이왕이면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인근 복지관이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박물관 등에서 마련한 각종 무료강좌에 그 묘수가 있다. 자녀와 함께 역사공부, 과학공부, 인성계발공부를 하면서 세대간의 벽을 허물 수 있다.

대전 청소년자원자원봉사센터는 29일 평송청소년수련원 소강당에서 고3 수험생(예비 대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특강을 연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마련하는 각종 역사문화 강

사찰 송년한마당·음악회·전시회 가볼만
연극 '용띠위의 개띠' 영화 '티벳…' 눈길

좌도 눈길을 끈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학부모들도 청강할 수 있어 수업 후 온 가족이 실습하고 토론할 수 있다. 민속박물관은 중고생 2백명을 대상으로 27일까지 청소년민속강좌를 개설한다. 강좌 중에는 부채만들기와 문화유적답사도 포함돼 있다.

온 가족이 연말을 절에서 청소년 불자들과 함께 노래부르고, 팽과리, 북을 치면서 어울려 보는 것도 가슴 설레이는 일일것이다. 28일 조계사와 불광사학생회에서 개최하는 송년행사는 규모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단연 화제다.

한층 격을 높여 전문 예술인들이 펼치는 공연장은 어떨지.

97년 마지막날,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임동창씨의 '피아노·사물소리와 퍼포먼스 한마당'과 28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되는 창작민족서사극 '단장의 미아리고개'도 가족이 함께 차분하고 조용하게 한 때를 즐길만한 곳. '단장의 미아리고개'에는 영산재 전수자 능화스님(인천 구양사)이 출연해 눈길을 모은다.

삼천사(주지 성운)에서 부부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에게 단체관람할 것으로 권했다는 연극 '용띠위의 개띠'는 멍퇴, 조퇴와 권태감 등의 이유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30, 40대 부부의 기분전환을 돕는다. 비록 어른들의 이야기이지만 그 동화적 모티브는 한창 커가는 어린이들에게도 짜릿한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영화 '티벳에서의 7년'은 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설계를 위한 차분한 명상에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스승이었던 하인리히 하러의 티벳 체험기를 영화화한 장 자크 아노 감독의 작품이며 20일 명보, 피카디리극장 등에서 개봉했다.

만화영화 '아나스타샤', '천녀유혼', '인어공주'와 클레이메이션(진흙으로 만든 인형들을 이용해 만든 영화) '곡스' 등은 어린이괜들로 하여금 가장들의 긴축호주머니를 열게 할 것이다.

도필선 기자

건강 365일 〈9〉 오징어 연갑


이 만 성
〈영재한의원 원장〉

식사 후에 양치를 하는 것이 상식이고 현대인들에게 에티켓이겠지만 매 끼니때 마다 양치를 하기란 여간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방법으로 구강청결제를 사용해 입을 헹궈낸다. 최근 일본의 한 공동연구팀은 구강청결제로 오징어 연갑에 충치균을 퇴치하는 강력한 항균물질을 추출해 실용화 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오징어 연갑의 항균물질은 지금까지의 충치균용 항균제와는 달리 충치균만을 없애고 다른 세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연갑에 함유되어 있는 '키토산'

충치·자궁출혈 등 치료효과 탁월
소양인에 적합…가루로 갈아 복용

때문이다.

오징어 연갑은 약명으로 오적어골(烏賊魚骨)이라고 하는데 이는 까마귀를 잡아 먹는 것이 오징어라는 뜻이다. 해표초라고도 한다.

오징어 연갑의 약성은 충치 예방에 좋을 뿐만 아니라 부인의 자궁출혈 및 대하증을 치료하며 정액을 보하여 잉태에 도움이 된다.

오징어 중에는 뼈가 들어 있는 갑오징어가 있는데 그 뼈를 갈아서 지혈제로 사용한다. 진화론에 의하면 뼈가 형성되기까지 연제동물에서 약 60억년이란 긴 세월이 걸린다. 뼈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나 대들보 같은 것이다. 뼈를 구성하는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 무릎관절염, 류마치스, 요통, 좌골신경통, 디스크는 물론 악성 대하증이 생긴다.

뼈 관절이 약해지는 원인은 또 취장의 기능이 약해져 피생산이 안되기 때문이다. 취장에 이상이 생기면 빈혈, 눈피로, 손발저림, 잇몸이 붓거나 혓바늘이 돋는다, 입이 헌다, 장단지에 쥐가 난다, 배에 가스가 찬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십이지장염이 오면서 공복시에 속이 쓰리고 뼈관절 질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히 십이지장염이 오래되면 칼슘탈출증이 생긴다.

복용법 오징어 연갑을 갈아서 차 숟가락으로 1 스푼정도 하루 2번 복용한다. 소양인 체질에 좋다.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적시는 불교 명언집!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신간!

석성우·석지현 스님 엮음

금세기 대표적 청정 율사이신 석성우 스님과
詩人 석지현 스님께서 경전을 읽으시면서
모은 감동적인 불교 명언들!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 365일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명언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지성하게 들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46판 양장/값 5,000원 *법보시 주문을 받습니다.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教史料!

'97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예약접수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97년 한해를 총집결한 합본 '97년판을 발간합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예약주문 하시는 분들께는 1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합본집('97년판) : 제109호(1997년. 1 . 1)-제 156호(1997.12.24)
- 가 격 : 60,000원(발송비 별도) ※할인가격 : 54,000원
- 예약접수기간 : '98년 1월 24일까지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代) 02)737-8881 팩스 : 02)737-0697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불교공약 '실천기대'

"종교편향 없애야 정의사회"

사찰환경보존법 개정등 '주목'

국민들은 김대중씨를 새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국민들은 새 대통령이 생존권마저 위협당하는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해주길 가장 바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1년반 안에 IMF 체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실업을 최소화하고 물가불안도 잡아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약속도 했다. 국민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불교계는 이와 함께 '불교계 공약'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대통령당선자는 10개항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김 당선자는 지난 8월 본지의 서면인터뷰에 응해 불교관련 21개항의 질문에 응답, 종교정책을 밝혔다.

〈본지 139호-8월 20일자, 인터넷 사이트 http://www.buddhapia.com 참조〉

또 10월 7일 불교방송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각 종교가 자유롭게 발전해야 진정한 정의사회"라며 자신의 종교관을 밝혔다.

〈본지 146호 - 10월 15일자 참조〉

단지 '약속했으니 이뤄지겠거니' 기다려서만은 안된다. 몇 가지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다. 불교관련법 제·개정과 사찰환경보존 관련 사항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또 '편향없는 종교정책'은 대통령 당선자 본인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공직사회에 공평한 정신이 깃들어야 가능하다. 김 대통령 당선자는 "공직자윤리로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군내 1인1종교 갖기운동에 대해 본지의 질의에는 '반대'했다가 최근 개신교측의 질문에서는 '지지'로 급변한 것은 정책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불교계의 강력한 의지가 선행돼야 이뤄지는 공약도 있다. 불교전통문화 복원,불교방송의 지방국 개국 확산은 불교계가 먼저 나서야 할 대목이다. 김 대통령당선자도 공약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해 불교계의 선행의지를 촉구했다.

IMF체제하의 긴축·저성장 기조의 여파로 문화예산이 축소되면 국립불교중앙박물관 건립 등의 사업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약(空約)'으로 끝날 것인지는 대통령당선자와 불교계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정성운 기자

불교관련 공약

편향없는 종교정책 실현 특정종교 편향행위를 근절하고 이를 전체 공직사회로 확산.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로 확립하는 방안 검토.

불교관련법의 제·개정 추진 전통사찰보존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농지법 개정 및 고도(古都)보존법 제정.

사찰환경보존 종합대책 수립 불교관련 법령 가운데 사찰환경보존의 항목에 자연경관과 함께 스님들의 수행문화환경의 보존도 법적으로 보장.

문화재관리국 '청(廳)' 승격 문화재관리국을 청으로 승격시켜 전문성과 독자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 문화재위원회에 불교계 인사 의무 할당.

불교전통문화 복원 지원 이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에 전폭적인 지원. 음악 미술 사회 윤리교육 등 전체교육에 불교를 포함한 민족전통문화의 비중 제고.

국립불교중앙박물관 건립 추진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 가운데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성보를 환수해 소장하고 여기에다가 한국불교문화의 총체적인 역사와 현황을 전시, 내·외국인에게 자랑할 수 있는 국립불교중앙박물관 건립 추진.

불교방송 지방국 추가개국 대전 창원 전주 춘천 등 방송국 4개소 신설과 충주 울산 강릉 제주 진주 중계소 설립계획 등을 적극 지원. 출력강화(현재는 5kw)도 제도적으로 보장.

국립공원입장료 제도 폐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추진하고 폐지 전까지 공원입장료의 사찰분배익을 증액.

팔만대장경 한글화·전산화 지원 팔만대장경의 한글화와 전산화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을 민족문화의 보존·전승 차원에서 지원.

남북 불교교류 지원 확대 향후 불교계가 통일을 위해 담당해야 할 역할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 자율적인 남북 불교교류의 적극적 지원.

불교의 눈

약속은 목숨보다 귀한 것

김 대통령당선자의 불교계 공약은 2천만 불교도와의 굳은 약속이다. 경전에서는 약속을 목숨보다 귀하다고 가르친다.

사냥을 나갔던 왕이 길을 잃어 산골짝에서 귀신을 만나 잡아먹히게 되었다. 그때 왕은 귀신에게 말했다.

"나는 오늘 아침에 한 도인을 만나 궁전 안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잠깐 돌아가 그를 만나고 온 뒤 너에게 먹히리라."

귀신은 왕을 놓아주었고, 왕은 궁중으로 돌아가 도인에게 보시를 한 뒤 후사를 태자에게 맡기고는 귀신에게로 돌아왔다. 귀신은 왕의 신의에 감동되어 예로써 사과하고 감히 해치지 못하였다.〈구잡비유경〉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11월 8일 불교지도자와의 대화모임을 갖고 불교계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이행은 김 당선자와 불교계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들었다

현 경제위기는 한국의 기업·정부·정치가와 관료를 믿을 수 없다는 외국인들의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높다. 기업은 결손을 감추고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양산했으며,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위장하는 등의 신뢰성 없는 행태가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 요인이 되었다. 이제는 새 리더십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를 개혁하여 대외적인 신뢰 회복에 나설 때이다. 신뢰와 믿음을 어떻게 얻어야 할 지 경전에서 듣는다. 〈편집자 주〉

신뢰 "믿음에서 모든 덕 나온다"

▩온갖 것(一切行)은 믿음으로 으뜸을 삼으니, 이것이 모든 덕의 근본이다. 〈범망경〉

▩착한 벗을 가까이 하면 신심을 얻는다. 이 신심은 보시와 그 과보를 믿음이며, 선과 그 과보를 믿음이며, 악과 그 과보를 믿음이며, 생사의 괴로움이 무상하여 소멸하는 데서 욕을 믿음이다. 이것을 믿음이라 한다. 신심을 얻음으로 정계(淨戒)를 닦으며, 보시를 늘 즐기며, 지혜를 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열반경〉

▩여러 재물 중, 믿음이 제일 가는 재물이다. 〈별역잡이함경〉

▩온갖 공덕은 믿음을 사자(使者)로 삼는다. 그러기에 보물중에서 믿음이 으뜸이다. 〈대장엄경〉

▩믿음은 더러운 작용이 없기에 청정함을 가지고 교만을 없앤다. 따라서 믿음이야말로 공경의 근본이며, 법장의 제일가는 재물이어서, 청정한 마음의 손이 되어 여러 덕행을 받아들인다. 〈화엄경〉

▩횃불을 들고 나온 초인은 사람의 형상을 띠고 나타나서, 지혜와 자비심으로 이 세상을 밝혀 주시는 부처님이시다. 그 빛 속에서 인간은 제 자신과 남들을 발견하고 인류애와 화합하는 정신을 깨우친다.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믿음에 세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다. 첫째는 재 과오를 뉘우치기, 둘째 남의 미덕을 보고 칭송하면서 기뻐하기, 셋째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기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세 가지 특성을 닦아야 한다. 자신이 실수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재빨리 알아차려서 참회하고, 남의 미덕과 선행을 보면 충정으로 칭찬해서 그 명예를 높여 주며, 항상 부처님과 같이 살면서 부처님과 함께 행동하기를 기원해야 한다. 〈금광명경〉

▩믿는 마음은 곧 성실한 마음이다. 부처님을 따라 기꺼이 불국정토로 가는 심원한 마음이다. 〈관무량수경〉

▩거룩한 가르침의 비는 처한 곳과 상황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린다. 이 비를 맞는 자는 그것을 작은 무리로 모아 조직과 생활공동체로 모아들이고 마침내 자신이 깨달음의 대양에 들어있음을 발견한다. 〈팔리 중지부〉

모국상품 구매단 발족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20여개국에 거주하는 30여명의 상공인들은 16일 서울 맨하탄호텔에서 '모국상품 구매단' 발족식을 갖고 경제위기에 처한 모국을 돕기로 했다. 구매단은 내년에 △모두 2천만달러(약 3백억원) 상당의 한국물품을 구입하며 △모국투자 활성화 △모국에 달러 보내기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10원 동전모아 이웃돕기

환경미화원들이 길에 버려진 10원짜리 동전을 모아 불우이웃을 도와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시동래구 온천동 사직동지역 환경미화원 36명은 지난 6월부터 동전을 모으기 시작, 16일 그동안 모은 10만3천9백50원을 동래구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버려진 동전을 모아 불우이웃을 도와줄 계획이다.

버려진 아이키우기 38년

버려진 영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이정례씨(67, 수원 경동원 보육사)가 한국전력이 수여하는 '97 좋은 한국인'상 수상자로 14일 선정됐다. 이씨는 59년부터 경동원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보살펴왔다. 그동안 이씨가 키워 입양보낸 아이들은 1천5백여명에 이른다.

이웃돕기 잇단 재산기증

70대 할머니와 30대 부부가 각각 20억원대의 재산을 대학과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기탁했다. 문순이(76·부산 구서2동)할머니는 17일 고려대 홍일식총장에게 서울방배동 1백40여평의 대지(시가 20억원)를 법대 장학금으로 기증했다. 윤희중(장윤 실내건축디자인 대표) 장은경씨 부부도 17일 시가 20억원 상당의 임야를 복지사업을 할 사회단체나 사단법인에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백혈병어린이에 장난감

블록완구 업체인 레고코리아(대표 이윤하)는 15일 1억원 상당의 완구 5천 상자를 백혈병어린이후원회에 전달, 어린이들의 완치를 기원했다. 레고코리아는 또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50명과 완치된 어린이 3백명을 초청해 위로행사도 열었다.

부유층 고가 외제품 반입

IMF 구제금융 한파 속에서도 일부 부유층의 외제고가품 반입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세관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적발된 밀반입 휴대품은 골프용품 7백53개를 비롯 양주 녹용 오디오 비디오카메라 등 1천여건이 넘었다.

적발건수는 예년과 비슷하나 내국인 출국자가 하루 1만2천~1만3천명에서 7~8천명 수준으로 줄었음을 감안하면 적발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내버스 결행 시민 불편

시내버스들이 적자노선이라는 이유로 결행을 일삼고 있다. 인천 불로동에서 시내를 오가는 17번과 17-1번 시내버스는 중간에서 불법 회차해 이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한 학생은 1주일에 2~3차례 지각하기 일쑤라며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인천시와 서구청은 직원을 배치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생활정보

조류독감 위험 경고

치료·예방법이 없는 조류독감이 인체에도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1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경고했다. 조류독감이 처음 발생한 홍콩에서는 각급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병아리·가금류를 만지지 말도록 지도하고 있다.

연하장 쓰레기 1천5백톤

지난 한해 동안 버려진 연하장 쓰레기는 1천5백톤. 처리비용도 12억원이 들었다. 환경부는 매년 연하장과 크리스마스카드 제작용으로 80만달러어치의 펄프가 수입되고 있다며, 버릴 때는 반드시 신문지처럼 재활용 수거함에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청소년 인터넷방송국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마을은 15일 청소년 인터넷방송국(http://koreayouth.org)을 개국하고 시험방송을 거쳐 내년 1월 4일부터 정규방송을 실시한다. 청소년대상의 각종 문화 스포츠 오락 연예 축제 등의 행사와 논술지도 등을 방송할 계획이다.

새상품

'자동차용 가습기'



겨울철 운전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 호흡기 질환과 정전기를 예방해 주는 '자동차용 가습기'가 나왔다.

자동차 시가잭에 꽂아서 사용하는 이 제품은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컴퓨터 지능 인식 장치가 부착돼 있어 아기를 태우고도 장시간 여행할 수 있다.

또 험한 주행에도 물이 새지 않는 방수구조로 돼 있으며 불쾌한 히터 냄새를 제거해 쾌적한 운행에 도움을 준다.

(주)하림. 가격은 9만8천원. (02)636-7138

예문동양사상 아카데미
98년 겨울강좌!
예문동양사상아카데미는 동양사상의 연구와 대중화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인 예문 동양사상연구원이 개설하는 강좌입니다. 학술적 품격을 유지하면서 대중들이 동양사상을 쉽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화요강좌 : 주역강좌1-동양적 지혜의 근원을 찾아서…
김충열(본원 원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봄강좌로 이어져 완결되는 강좌의 제1부. 주역의 부호체계와 괘효구조를 이해하여 易理를 궁구함으로써 心身修養과 處世應機, 事業經營에 관한 차원 높은 동양의 지혜를 얻는다.
· 1월 6일 : 주역이란 무엇인가?
· 1월13일 : 주역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1월20일 : 64괘 강독과 강의 - 주역의 자연사상
· 1월27일 : 64괘 강독과 강의 - 주역의 생명사상
· 2월 3일 : 64괘 강독과 강의 - 주역의 교육사상
· 2월10일 : 64괘 강독과 강의 - 주역의 윤리사상
· 2월17일 : 64괘 강독과 강의 - 주역의 정치사상
· 2월24일 : 64괘 강독과 강의 - 주역의 사회사상
● 금요강좌 : 동양철학, 지금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현대인이 직면한 개인적·사회적 삶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동양적 대안을 찾아가는 강좌. 우리 사회에 충만한 '우리 것 찾기'의 열기를 수용하되, 차분한 시선으로 동양사상의 현대화를 향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한다.
· 1월 9일 : 왜 다시 동양사상인가 - 이승환(고려대 교수)
· 1월16일 : 동양의 이상적 삶 - 한흥섭(철학박사)
· 1월23일 : 동양의 性의식 - 윤천근(안동대 교수)
· 1월30일 : 동양의 여성관 - 이숙인(철학박사)
· 2월 6일 : 생태문제와 동양적 대안 - 윤천근(안동대 교수)
· 2월13일 : 동양의 눈에 비친 자유민주주의 - 박원재(철학박사)
· 2월20일 : 유학은 자본주의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 홍원식(계명대 교수)
· 2월27일 : 유가적 전통에서 본 동양의 정의관 - 이승환(고려대 교수)
◎ 매 회 100분(오후 7시 - 8시 40분) 강의로 진행
◎ 각 강좌별 수강료 : 100,000원
◎ 수강료 납입구좌 : 국민은행(093-24-0317-712 홍원식)
◎ 문의 및 접수 : 925-5914 (담당 박진영)

춘천 옥산가옥의 신비!
아래와 같은 사연 수백통씨의 건강체험 사례집이 4권에 이릅니다. 성인병 난치병에는 玉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요.
변비
성명 ; 전 (36세)
주소 ; 부산 광역시 상구 어현 6동 15유2-
Tel ; 051) 636 - 원
저는 오랜 세월을 [illegible] 고생한 주부 입니다.
[illegible] 변비와 병원에서 [illegible] 입니다.
변비 증세가 어느정도 였는가 하면 10일에서 15일은
[illegible] 있는 일이고 [illegible] 가는 고통을 [illegible]
[illegible] 하면 병원에 가서 관장을 해서 해결하곤 했었다
그러던 중 [illegible] 옥변이 (옥돌이 약 (점을) 을
[illegible] 하여 반년반이 하며 [illegible] (기계같다)
[illegible] 귀찮은일 (하루 한번씩) 변을 보았다
그리고 [illegible] 배꼽을 중심 전체를 [illegible]
[illegible] 복강상이 그래서 [illegible]
어느날 우연히 손을 보 [illegible]
이렇게 효과를 보았는 바 [illegible]
꼭 한번은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불편 증상에 [illegible]
1999. 5. 15
백옥 백옥 염주 옥옥 팔찌 옥옥 벨트 옥불
※ 춘천옥이라는 제품은 수입 유사품옥입니다. 진옥은 玉山家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쁘렝땅백화점 지하상가 을지로쪽입구
玉山家 是空 合掌
777-0105 (우편판매가)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揮筆(眞品)
佛子體의 神秘를 최초로 공개


금강경, 법구, 다라니, 각종 불서, 병풍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入試家庭의 幸運을 위하여 合格 · 사업번창의 幸運을 위하여 인성지병 무병합자의 명철적 체운을 위하여 반야심경은 수지독송 시경심근하세요.
神秘한 운장법사의 반야심경은 최고의 名品, 生命의 외지처입니다.
※ 반야심경 사경수습 특별회원 모집(초심자 환영, 통신도 가능)
● 선착순 한정본(품)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 (02)242-0331 · 242-0255 (야)216-0307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 래 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송년칼럼

뒷날 위한 경책

또 한해가 저무는 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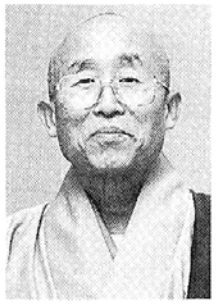
내 나이 69세이니 철들기 시작한 20세 때부터 기산(起算)하면 무려 40여회 되풀이 해 온 넋두리다.

그 숱한 넋두리가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왔지만 금년 세모(歲暮)의 그것은 유달리 진한 감동으로 마음 속 밑바닥에 깊숙히 감돈다.

얻기는 쉬워도 지키기 어렵다

그 몇 가지를 여기에 적어 하나의 추억으로, 혹은 뒷날의 경책으로 삼을까 한다.

첫째, 그 지긋지긋한 보릿고개를 넘기고 모처럼 좀 여유가 생긴다 싶더니, 어느 결에 다시 이름도 생소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급전을 빌리려 동분서주한 꼴이 되었다는 것이요,



월 운

〈동국역경원장 · 봉선사 회주〉

둘째, 특별한 의미를 갖는 대선을 치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충격적인 일들은 우리 같은 문외한이 허를 댈 바가 아닌 줄 아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대로 그 원인을 말한다면 관리부족, 인식부족에서 연유됐다고 본다.

우리는 그 동안 해방직후 좌우양파의 격돌을 지나 6 · 25를 겪었고, 자유당 독재 뒤에 다시 군부의 통치를 받았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과 민주주의로의 회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좇으면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안정을 찾아 국민소득 1만불이라는 고지를 차지했고, 모처럼 민선 대통령도 탄생시켰다. 그때의 기대는 모두 컸었다. 이른바 문민정부의 이름으로 각 분야에 걸쳐 개혁이 시도되었고, 지난날의 폐단을 소탕하는 일환으로 전직 대통령 두 분을 감옥에 가두기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1년은 정확한 개념도 모르는채 선진국 대열에 선다는 OECD에 가입했다며 떠들어댔다. 그러면서도 너무도 동떨어지게 우수수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와 함께 대통령 아들이 감옥에 가고 대통령은 여러차례 TV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읽어야 했다.

그러나 정치는 개혁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인지 이제와서 국민소득 1만불은 도리없이 환차손(換差損)에 의해 하루아침에 5천불로 평가절하되었다.

고인의 말에 '득이수난(得易守難)'이란 것이 있다. 즉 얻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평생 민주화에 헌신한 공이 인정되어 대권을 차지했던 현 대통령에게 오늘 다시 그날과 같은 박수를 보낼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있을 때 절약하라'는 경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이미 모아놓은 국부(國富)를 무슨 전리품이나 되는양 막 쓴 것이다.

여행자유, 외재도입자유 등의 조치가 얼핏 보기에는 국민들을 어떤 억압에서 풀어주는 구세주 같았지만 결국 이 지경으로 나타났으니 그간에 누리던 향락으로 오늘의 수치를 상쇄(相殺)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위정자의 탓만도 아님을 반성해야 한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던 사업가 여행자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다.

한편 국민의 손으로 뽑은 새 대통령의 출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애초부터 못살던 끝이면 그저 노력만 하면 되겠지만 비록 거품이나마 제법 부티에 눈을 뜬 국민들을 끌고 바닥에서 다시 살아나려는데 어찌 선거유세때의 공약남발하던 것처럼 달콤한 말만 가지고 되겠는가? 이 현실은 마치 환자의 환부를 떼어 내기 위해 칼을 든 의사와 같다.

새 대통령은 환부 떼내는 의사

이 꼭 필요한 고통은 참아달라고 요구할 줄 아는 위정자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민들은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뼈를 깎는 고통에 참여하겠다는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급추락한 한해였다. 이는 기업과 국민의 신뢰는 커녕 관료체제와 집권세력 내부의 신뢰조차 얻지 못했다. 대북관계도 신뢰구축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했다.

끝으로 하루하루 벼랑끝에 몰리고 있는 어려운 나라살림을 맡아 수습해야할 새 대통령이 안쓰럽고 세모가 유난히 가슴아프다.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방문한 김대중후보와 국민회의 당직자들. 공명선거 완장을 착용한 선관위 직원이 눈길을 끈다.



◇한나라당이 16일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이 필승 이회창 휘호를 내렸다"고 밝힌데 대해 이회창불교모독규탄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한나라 당사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열린마당

종교와 정치의 만남

현대사회에서 정치와 종교는 어떤 관계를 갖는가. 정교분리의 원칙은 외치지만 실제 정치와 종교는 '자신만의 길'을 걷지 않고 있다. 18일 치른 이번 제15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정치권은 끊임없이 종교지도자와 단체를 방문하고 공약을 발표했다. 종교계에서도 각종 행사에 후보 당사자나 정당의 지도자를 초청하는등 정치에 초연하지 못했다. 정치인은 종교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것이며 종교계는 정치계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들어본다. 〈편집자 주〉

"교계 냉철하자" 체질개선 필요

지명 〈청계사 주지〉

이번 15대 대통령 선거 과정을 지켜보며 아직도 불교계에는 자성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치적인 안목에 있어서 불교계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위기감마저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일부지역에서는 관습처럼 도착되어 버린 의식으로 선거에 임하는 느낌을 주었다. 유권자가 '이기는 쪽은 이미 정해졌다'는 자세로 여타후보의 정치적 비전을 고려하지 않고 바람처럼 휩쓸려 버린다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발전할 수 없다. 정치인들에게 길들여진 정치감각으로 지엽적인 이기주의에 연연하는 자세가 일부지역에서 역력했던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더구나 일부 종단의 지도자들이 상식밖의 자세로 정치권을 대했던 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이 종교를 표밭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 것도 따지고 보면 불교계와 지도자들의 얕은 정치인식에서 온 것이다. 종교계의 지도자나 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으로 힘을 표출해야 한다. 이 상식을 집단의 힘으로 확대시키려는데서 정치인들이 종교계의 문을 두드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볼때 선거가 끝난뒤 정치권은 어떤 태도를 취했던가. 그토록 간절했던 호소와 공약이 얼마나 지켜져왔는가. 누구보다 종교인이, 그중에서도 불교인이 냉철해야 한다. 정치권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생각보다는 불교계 스스로가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인재를 키우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목적갖고 이용하면 사회혼란

정천구 〈영산국제산업대 총장〉

정치인에게 종교집단은 종교적 의미보다 정치적 의미로 보일 뿐이다. 그래서 정교분리가 정책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의 원칙일뿐 현실화 되지 않게 마련이다. 종교계도 정치집단을 정치적 의미보다는 종교발전의 방편으로 보려는 시각이 농후하다. 역시 종교계가 스스로의 위상을 지키지 못할때 정교분리는 혼돈의 길에 빠지고 만다.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만날 수 있는 범위와 만나서는 안될 선을 긋는 지혜는 정치인에게나 종교인 모두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치가 종교를 지배한다는 생각이나 종교가 정치를 이끈다는 생각은 어떤 경우에건 위험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정교분리의 원칙과 서로의 이익이라는 현실이 혼돈의 길에서 방황했다. 정치인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선에서 종교는 자리를 지켜야하고 종교인에게 지혜를 구하는 선에서 정치인의 자리가 지켜지지 못했던 것이다. 그 와중에 정치인으로서의 파렴치한 행태도 노출됐고 종교인으로서의 지혜롭지 못한 처신도 드러났다.

현대사회에서 정치와 종교가 만나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서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기 위해 만난다면 사회 질서와 가치의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다. 현실적인 이익을 타진하기 보다는 서로에게 지혜와 발전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깨끗한 자리에서 정치와 종교가 만날때 공명선거도 실현될 수 있고 사회적 혼란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15대 대선 정교분리 지켜졌나

정치권, 불교계를 표밭으로 인식
교계, 당직자들과 스스럼없이 접촉

제15대 대통령 선거일을 이틀 앞둔 16일 한나라당은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이 '필승 이회창'이라고 쓴 휘호를 이 후보에게 보내왔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한 방송사는 뉴스를 통해 이를 보도했고 이에 대해 통도사가 즉각 반박성명을 냈다. 이어 이튿날 불교계가 한나라당사를 방문 항의시위를 벌였고 당측에서는 "스님께 누를 끼치게 된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어이없는 사건은 정치인들이 불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잘 대변해준 사례라는 것이 불교계의 분석이다. 즉 정치인은 종교지도자의 존엄성마저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할 뿐 종교의 신성성과 위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종교단체의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내놓으며 종교계의 표를 호소하는 것은 오랜 관례가 되어 왔다. 이에 대한 종교계의 '정치권 이용' 논리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각 정당들은 입후보 당자사와 당직자 후보자 부인등을 통해 불교계에 10건 이상씩의 공약을 내놓으며 종단 지도자와 각 사찰주지스님들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접촉했다. 불교계에서도 그들의 접촉에 스스럼 없이 응했으며 각종 행사장에 후보자나 당직자를 초청하기도 했다. 과거 특정후보의 '당선 기원법회'까지 개최했던 점에 비하면 이번 선거를 대하는 불교계의 태도는 비교적 자중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이 '속이 훤히 보이는' 목적을 가지고 사찰을 저자거리 드나들 듯 찾아 오는데 대해 아무런 검토없이 문을 열어 준 것이나 그들에게 모종의 반대급부를 바라는 태도를 보인 것은 자성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거일이 다가오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미확인 단체의 성명서가 발표되는등 불성 사나운 사례가 발생한 것은 불자들의 빈축을 사기에 충분했다.

학자들은 선거와 같은 기민한 사안 앞에서 정치권과 종교계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손 잡는데서 정교분리의 원칙이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현대사회에서의 정교분리는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임연태 기자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 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관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걸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종단소식

조계종

화엄사 교구종회 개최

구례 화엄사(주지 종열)는 16일 교구종회 및 말사주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7년 결산 및 98년 예산(안)심의를 비롯 각종 종무현안 등이 다뤄졌다. 한편 화엄사는 26일부터 30일까지 종무지도감사를 실시한다.

안일사 송년인연 법회

대구 안일사(주지 종운)는 13일 포교원 천불법당에서 '97 송년인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지역내 불우한 불자청소년 8명에게 총3백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태고종

종단간부 종무위원 회의

총무원(원장 인곡)은 24일 오후1시 총무원 회의실에서 종단간부 및 종무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단발전을 위한 특위와 종헌종법제정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며, 종단발전기금모금운동의 전개방안도 논의된다.

금담스님 영결식 엄수



9일 입적한 종회의장 금담스님 영결식이 13일 제주 보림사에서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은 추도묵념, 육성녹음 청취, 행장 보고, 영결사, 추도사 순으로 진행됐다.

법륜사 겨울불교학교 열어

법륜사(주지 철화)는 20일 대웅전에서 어린이 겨울불교학교를 열었다. 2백여명의 어린이가 참가한 불교학교는 촛불의식, 교리퀴즈대회,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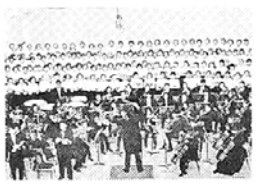
천태종

상월대조사 탄신 법요식

총무원(원장 운덕)은 27일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87주년 기념법요식을 봉행한다.

진각종

창작교성곡 '회당' 발표회



통리원(원장 성초)은 창종 50주년을 기념해 17일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창작교성곡 '회당' 발표회를 열었다.

진각종 창종주인 회당 손규상 대종사의 일대기를 음악대서사시로 표현한 이 공연의 지휘는 장한업교수(영남대)가 맡았으며, 경북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협연했다.

서원가 CD출반 법회

통리원(원장 성초)은 15일 진선여고내 회당기념관에서 서원가 18곡이 수록된 CD출반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성초 통리원장, 일정 교육원장, 혜일 종회의장, 진선여중 권영옥교장, 진선여고 이종원교장, 서울지구스승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대승종

안양교도소 재소자 위문

총무원(원장 일오)는 10일 안양교도소를 방문, 재소자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일오스님과 종단간부 등 10여명은 이날 재소자들과 함께 법회를 갖고 이들에게 〈천수경〉 5백권을 법보시했다.

일오스님은 "재소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주기 위해 〈천수경〉을 법보시했다"고 말했다.

미타종

내년예산 3억 확정

중앙종회(의장 혜봉)는 11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191회 중앙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올해 예산을 결산하고 3억7천만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또 포교당을 마련, 내년중으로 총무원사를 이전키로 하는 한편 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종단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해맞이 법회' 새신행 정착

낙산사 만등불사 촛불제 행사
향일암 음악회·영화제 '다채'

새해 첫날 사찰을 찾아 수행하고 일출도 보며 소망을 발원해 보자. 해맞이 법회는 세모의 밤 참회정진을 시작으로 타종, 원단예불, 해맞이 법회로 장장 1년짜리 법회가 회향된다. 80년초 경주 부처님마을과 향림사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해맞이 법회는 최근들어 새로운 신행풍토로 정착되고 있다. 양양 낙산사, 여천 향일암이 지난해부터 일출제를 개최하고 해돋이로 유명한 바닷가 사찰들이 철야기도를 봉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해맞이 법회는 수행, 불교문화체험, 일출조망 등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낙산사(주지 지홍)는 31일부터 98년 1월 1일까지 '해맞이 축제'를 갖는다. 이번 법회에서는 소망성취 촛불밝히기, 범종타종식, 해맞이 대법회및 만등불사를 비롯 홍련암에서는 철야정진기도법회가 진행돼 수행



◇양양 낙산사는 지난해부터 해맞이 법회를 봉행했다. 해맞이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탑돌이를 하며 새해 소망을 발원한다.

토함산 각 사찰 참회기도
보리암·상원사도 개방

을 겸해 새해 계획을 세우기에 제격이다.

여천군 향일암(주지 종삼)도 여천군과 공동으로 31일부터 98년 1월1일까지 '향일암 일출제'가 봉행된다. 이번 일출제에서는 원단예불, 일출시낭송회 등을 비롯 송년음악회, 야외영화제 등이 진행된다.

가족단위 해맞이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경주 토함산일대서도 다채로운 법회가 마련된다. 부처님마을(촌장 도문스님)은 남산 천룡사에서, 향림사(주지 법명)는 기림사와 골굴암 일대서, 한국불교사회연구원(원장 돈관스님)은 원효사와 석굴암에서 각각 송년참회기도와 해맞이 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도처로 유명한 남해 보리암, 강릉 등명락가사, 서산 간월암, 지리산 법계사, 오대산 중대 등도 철야기도와 함께 해맞이를 할 수 있도록 사찰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김중근 기자〉

거조암 영산전 6백년만에 중창

526나한 이운…매월 7일 만발삼종 공양

영산전(국보14호) 보수를 위해 나들이 갔던 5백나한이 귀가했다.

정혜결사도량이며 5백나한 기도도량인 경북 영천 팔공산 거조암(주지 혜해)은 14일 영산전 및 나한좌대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고려이후 6백여년만에 영산전을 중창했다. 4일부터 나한을 하나씩 가마에 태워 영산전으로 이운하기 시작한 거조암은 14일 나반존자를 끝으로 5백26위의 나한을 모두 영산전으로 이운했다.



◇거조암은 14일 3년여간의 영산전보수불사를 마치고 5백26위의 나한을 이운,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영천=이윤호 기자〉

95년부터 불사를 주도한 주지 혜해스님은 "요사채와 누각 선원불사까지 이룩하여 '5백나한 기도도량'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조암은 96년 11월 국비 3억원등 총 10억3천5백만원을 들여 불사를 시작, 10월말 공사를 끝내고 이날 회향됐다. 거조암은 매월 음력 7일 만발삼종공양을 올리는 나한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내년 시범운영 가상대학
동국대등 71개대서 신청

내년부터 시범운영되는 가상대학 프로그램에 동국대 등 모두 71개 대학이 신청했다.

컴퓨터, PC통신 등을 이용한 가상대학 시범운영대학에 동국대는 단독신청 형태로 교육부에 접수했다. 최종선발은 내년 2월9일 확정된다.

btn BBS 감사패 받아
이웃돕기 활동 공로

불교TV '자비의 천수천안'(PD 김오중 외)과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PD 안희경)이 17일 한강성심병원 개원 29주년 기념행사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종교벽 허문 평화의 메아리

법정스님 평화신문에 성탄메시지 발표
이해인수녀 불교방송 출연 법담 나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스님이 성탄축하메시지를, 수녀가 불교방송에 출연해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 길상사 회주 법정스님이 21일자 평화신문에 성탄메시지를 발표한데 이어 이해인수녀가 25일 불교방송 '차한잔의 선율'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법정스님은 성탄메시지를 통해 "예수의 탄생은 한 생명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낡은 것으로부터 벗어남"이라며 "우리가 당면한 시련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움터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해인수녀(부산 성베네딕트수도회)는 25일 방송되는 불교방송 '차한잔의 선율' 프로그램에 출연, 진행자 진명스님과 함께 수행활동, 종교음악, 성탄의 의미를 비롯 종교간의 화합문제등에 대한 법담이 오전 9시부터 1시간정도 진행된다. 또 이 시간에는 14·5세기 성가를 비롯 정통성가도 방송될 예정이다.

동화사 장일스님 입적



팔공산 동화사 내원암 선원장이자 전국비구니회 고문을 역임한 도림당(道林堂) 장일(長一)스님이 11일 오후11시10분 내원암에서 세수82세 법랍61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영결다비식은 14일 청해문도장(淸海門徒葬)으로 엄수됐다.

"뼈아픈 역사 교훈 됐으면…"

위안부기념관 건립비 1천만원 낸 김복동 할머니



"위안부기념관이 빨리 건립돼 커가는 우리학생들이 뼈아픈 과거를 알고 마음을 바로잡는 교육장이 됐으면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경기도 광주군 나눔의 집(원장 혜진스님)에서 살고있는 김복동(71세)할머니가 위안부기념관 건립기금으로 1천만원을 쾌척했다. 할머니가 내놓은 1천만원은 '위안부 생활보조금'과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등 매달 정부로부터 받은 25만원을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몰라 고스란히 모아온 것.

김할머니는 부산에서 부두막 노동 식당일을 전전했으며 60세에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 5평남짓한 무허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가난한 이웃을 보살펴왔다. 지역에서도 '양산할머니' 하면 모른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서는 한푼도 쓰지 않았다. 몇년동안 백내장을 앓으면서도 병원근처에도 가지않았고 먹을 것 입을 것도 아꼈다.

김할머니는 "옷도 안사입고 어렵게 모은 돈이지만 의미있는 일에 쓰게돼 기쁘다"며 알려지게돼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김할머니에게 걱정이 한가지 있다. 나눔의 집 원장인 혜진스님이 건립기탁금을 계속 안받으려 하는 것.

스님은 "차마 못받겠다. 좋은 옷도 사입으시고 맛있는 것 사드셨으면 한다"며 결정을 못하고 있다.

"정부서 받은 지원금 꼬박 모은것"

"부처님 도량에서 사니 기쁘고 더 바랄게 없어요. 스님처럼 젊고 학식있는 스님이 뭐가 모자라서 여기에 사시겠어요. 부처님 말씀처럼 살아가시는 스님에게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드리고 싶은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서 안타까워요."

김할머니는 14세때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가 8년동안 위안부생활을 했다.

김복동할머니는 내년 3·1절에 맞춰 개관할 위안부기념관 건립기금을 모금(문의 (0347)768-0064)하느라 백방으로 뛰고 있는 혜진스님이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했다.

광주=김원우 기자

예술인 법당이 상량식을 봉행하고 사부대중들에게 장엄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해명서

연예인들의 신행의 요람 예술인법당이
곧 회향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불자연예인들의 신행의 요람이 될 예술인 법당이 지난 11월11일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하고 그 장엄한 위용을 불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시작부터 難産을 거듭한 예술인 법당은 그간 교계내외의 온갖 억측과 소문 비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법당 불사를 추진해왔습니다. 수많은 불자들의 한푼 두푼의 보시는 오늘의 대법당을 건립하는데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술인 법당이 이곳 목동 본각사에 자리잡게 된 배경은 불자연예인들의 주활동 무대인 여의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본각사 예술인법당은 공식법인체로 등록할 것이며 새로운 신행단체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불자예술인연합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불법홍포에 적극 앞장서기로 하였습니다.

대한불자예술인 연합회에서는 1997년 11월경 불교계 신문에 실린 "예술인 법당 건립 폭리의혹"에 관한 기사내용에 대해 불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보도로 그동안 법당건립에 협조해 주신 교계 각사찰의 주지스님 중진스님들을 비롯한 재가불자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협회 회원 여러분 및 일부언에 인 불자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에 지면을 통해 저희 불사에 협조하신 불자들에게 알릴 것은 성구 판매 과정에서 할부유통과정상 과다한 경비가 지출되었으나 판매 수익금 전액은 법당불사금과 자비실천비용에 사용되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연합회를 모방한 유사단체들이 교계내에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 스님이나 신도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연합회에서는 그 단체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밝히며 향후 그 단체들이 연예인 법당을 앞세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속출한다면 즉저히 진상을 규명 사법조치도 불사할 것이며 아울러 저희 불자예술인연합회에서는 이후 사찰을 찾아 스님 및 신도님들에게 법당건립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도움도 일체 청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동안 옥성구 구입으로 법당 건립에 시주하신 신도님들께서는 예술인법당 회향을 앞당기는 뜻에서 대금불입에 최대한의 협조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불자예술인 연합회는 사단법인체로 등록후 예술인 법당을 비롯하여 사회복지회관 운영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부처님의 법음 홍포에 선봉장 역할을 하는 신행단체가 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불자예술인연합회



◇성북동 길상사 극락보전에서 열린 개원법회에는 3천여불자가 동참했다.



◇김수환추기경이 최초로 법회의식에 참석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맑고 향기로운 도량되길"

길상사 개원법회 대원각 시민청정도량으로

김수환추기경 종교벽 넘어 '축사'

요정 대원각이 지난해 9월 소유주 김영한(81)보살의 보시이후 5개월의 산고끝에 청정 수련도량 길상사(주지 청학)로 새롭게 태어났다.

성북동 길상사는 14일 극락보전에서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을 비롯 석주(칠보사 조실) 관응(직지사 조실)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현호(송광사 부방장)스님 등과 김영한 길상사 창건주, 박청수 원불교교무, 권익현 한나라당 고문 등 사부대중 3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이날 법회에는 천주교 김수환추기경이 참석해 종교화합의 상징 현장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추기경이 불교의식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종교를 초월한 불교와 천주교의 아름다운 이번 만남은 지난 20여년간 법정스님과 종교의 벽을 넘어 우정을 나눠온 장익주교(천주교 춘천교구장)의 건의로 이루어진 것.

흐뭇한 감동은 김추기경이 주일미사 때문에 법당에 늦게 들어서자 법정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손을 맞잡고 인사를 주고 받는데서 시작됐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치사에 이어 김추기경은 축사를 통해 "복잡한 도시생활에 자신을 돌아보며 명상하는 쉼터가 아쉬웠다"며 "길상사가 맑음과 평화스런 향기가 솟아나는 영혼의 쉼터로 정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스님은 "시대에 모범이 된 수행처는 모두 가난과 어려움속에서 신앙의 꽃을 피웠다"며 "길상사도 선택된 가난 즉 청빈함이 스며있는 가난하고 향기로운 도량이 됐으면 좋겠다"고 발원했다. 창건주 김영한보살은 "저는 죄많은 여인입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시주했습니다"고 소감을 밝혀 진한 감동을 자아냈다.

이날 행사에는 신체장애자 김선영(경기여고 1년)양이 법당에 설치된 리프트를 타고 창건발원문을 봉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개원법회 후에는 화합의 연등 밝히기 행사가 이어져 선 수행도량으로 문을 연 길상사를 밝혀 주었다.

군승단 비리 자체징계 움직임

"총회결의와 상반"…종단결정 '관심'

비리의혹 군법사 신병처리 문제로 고심해온 군승단이 해당군법사들을 종단 차원의 조사 의뢰에서 후퇴해 자체징계를 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승단(단장 이희용)은 19일 조계종 총무원에 제출한 공문에서 4명의 비리의혹 군법사에 대해 종단차원의 조사와 함께 자체징계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소장 법사들은 "지난 군승단 결산총회에서 종단에 소환키로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자체징계를 유도하는 것이다"며 "군승단의 자정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조사 의뢰를 맡은 총무원 호법부의 결정 여부에 귀추가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나라경제살리기 불교인 결의대회가 13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렸다.

영국사 성역화 사업 증심사 취벽루 복원 추진

국비지원 내년 본격화

천태산 영국사 성역화사업과 무등산 증심사 취벽루 복원이 IMF 한파로 국가적 긴축재정 속에서도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영동군이 올초부터 추진해온 영국사(주지 청원) 성역화작업은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4억원 가량의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화될 전망이다. 영동군은 올해 사업비 1억3천여만원을 들여 영국사 대웅전과 요사채 보수했으며, 내년에는 금당터 발굴조사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한국전쟁으로 파괴돼 흔적만 남아 있는 증심사(주지 영조) 취벽루를 정부의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지방비 3억원을 포함, 총 8억여원을 들여 내년부터 복원한다. 취벽루는 복원되면 불교신도들의 법회장소는 물론 시민들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이용된다.

목탁소리

서강대 신학전공 폐지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총장이 신부인 가톨릭 종립대학인 서강대가 17일 신학전공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학부제시행 이후 첫 입학생인 현 2학년 학생들이 3학년부터 시작되는 전공선택에서 신학전공을 지원한 학생이 없었기 때문이다. 학부제가 시행된 이래 지원자가 없어 전공이 폐지되는 첫 사례다.

이에 비하면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 불교학부는 그래도 다행이다. 52명중 28명이 불교학(13) 인도철학(14) 선학(1,스님포함 19)을 각기 선택해 전공폐지라는 위기를 맞지는 않았다. 그러나 군입대자나, 휴학생 8명을 제외하더라도 전과하는 학생들이 14명이나 돼 서강대 신학전공 폐지를 남의 일처럼 여길 수 없다는데 학부생과 학교의 고민이 있다.

동국대는 올해부터 불교학부 정원을 80명에서 70명으로 줄이고 불교대학원의 정원을 두배 가까이 늘렸다. 불교학을 대학원중심의 연구체제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에서다. 박부권 교무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학부에 대해 "사정이 허락하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러나 학부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불교학부 교수들은 학교측의 이같은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연구환경이나 학생들의 학업여건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교수나 학생들 모두 스스로의 새로운 방향모색과 열의없이는 불교학부의 존폐위기는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는데 견해를 일치시키고 있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내년 입시부터 종교성향을 파악해 반영하자는 의견도 나올 정도다"는 혜원스님(선학과 교수)의 말은 불교학부에 대한 내부 우려가 어느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

불교정신은 지혜를 모으고 화합하는데 있다. 학교, 교수,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동국대만이 아닌 불교전체의 중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서강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군포미화원 '폐지 온정'

매화복지관에 1년 모은 기금 쾌척

군포시 미화원들이 그동안 틈틈히 모아온 기금으로 식품을 구입하여 13일 군포 매화복지관(관장 수현스님)에 기탁,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군포시 소각장에 근무하는 김하규씨외 7명의 미화원들은 지난 1년간 소각장에 유입되는 폐지를 수집하여 매각한 기금으로 라면 10박스와 육류 2박스를 구입하여 1백여 지역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매화복지관에 전달한 것.

매화복지관장 수현스님은 "이들의 따뜻한 온정이 IMF한파로 우울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줬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에대해 군포소각장 미화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폐지를 수집하여 노인들께 물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기기증 참여하겠다" 73%

생명나눔회 수도권 시민 '인식도' 조사

일반인들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에 대해 96%가 들어보았다고 응답했으며 장기기증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73%에 달했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고 앞으로 장기기증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서울·경기지역 거주 6개직업 1백20여명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장기기증운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응답에 '하겠다'가 25%, '기회가 되면하겠다'가 48%로 73%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으며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를 공여받아야 할 경우에는 70%가 받겠다고 응답했다. 또 서양에 비해 우리나라가 장기기증에 미약한 이유에 대해 전체의 59%가 '유교적 관습때문이다'고 답했으며 '시술의 두려움'과 '가족들의 불이해'도 각 15%에 달했다.

뇌사판결에 대해서는 56%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35%에 달했으며, 뇌사이식법이 제정된다해도 장기이식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경제살리기 결의 부산 신행단체 10곳

부산불교신도회,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산여성불자회 등 부산 10여개 신행단체는 13일 부산역 광장에서 나라경제살리기 불교인 결의대회를 가졌다.

동참한 3백여 불자들은 국산품 애용, 해외여행 자제 등을 결의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뉴스 & 뉴스

김종명·박근련씨 '불이상'





불이회(회장 홍라희)가 주관하는 제13회 불이상 수상자에 연구분야에 김종명씨(동국대 강사·사진 왼쪽), 실천분야에 박근련씨(천마재활원 원장·사진)가 각각 선정됐다.

UCLA대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한 김종명씨는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동양철학적 모색' '한국불교학계의 현실과 발전방향' 등 논문을 발표, 불학연구에 매진해 왔다. 또 박근련씨는 33년간 장애자 재활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인정돼 수상하게 됐다.

시상식은 내년 1월6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거행한다.

공창복지관 장학회 발족

공창사회복지관(관장 심산)은 23일 개관 3주년 기념 및 자원봉사자·후원인 감사행사를 가졌다.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복지관 직원 등이 함께 한 이날 행사에서는 복지관 사업소개를 비롯, 부산불교운전기사회 김미란씨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또 정인경씨의 축하공연과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한편, 공창사회복지관은 22일 공창장학회를 발족하고, 후원회원을 모집중이다.

23일 속초복지관 송년의 밤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홍스님)은 23일 오후6시 속초시 아남프라자 삼성생명 대회의실에서 97년 한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위한 '작은 정성으로 뭉쳐진 큰희망'을 주제로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송년의 밤에서는 자원봉사대상, 후원대상 시상식이 열렸으며, 속초종합복지관 장학후원회(회장 최세영)가 관내학생 15명에게 1년간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참여권을 전달했다.

부산 파라미타 한돌 산행

파라미타 부산지부(지부장 성오)는 창립 1주년을 맞아 14일 금정산 산행법회를 가졌다.

중고생 회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날 산행은 범어사에서 집결해 계명암에서 금정산, 내원암에서 금정산 등의 코스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선도씨등 실형 선고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의 피의자 송병욱(前 상무)·김선도(前 경리부 차장)씨가 15일 열린 선고공판(부장판사 김길중)에서 각각 징역 2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송병욱 김선도씨 변호인측은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1600년 한국불교의 신비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비디오 출시

이름모를 산야에 흩어진 기와장 하나 돌뿌리 하나에서도
선조들의 지혜와 혼을 배우고자하는 사명감과
우리문화 바로세우기의 일념으로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고려대장경, 석굴암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뭉클한
선각자의 체취를 느끼시는 당신에게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불교를 아는 당신에겐 21세기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삼보사찰 - 불보종찰 통도사
- 법보종찰 해인사
- 승보종찰 송광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 고려대장경 Ⅰ, Ⅱ
-불국사·석굴암Ⅰ,Ⅱ

불교전통의식, 의례
- 예불
- 발우공양

불교전통문양
- 한국사찰의 꽃문



▲ 예불
깨달음과 중생구제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불교의식 장엄미의 백미인 예불의 전 과정 최초 공개



▲ 고려대장경 Ⅰ, Ⅱ
세계적인 문화유산 고려대장경의 역사적 진실과 신앙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낸 본격 다큐멘터리. 제1부 '대결집', 제2부 7백년 보존의 신비'



◀ 석굴암
불교사상과 예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석굴암 조성의 불교적 원형을 추적해 낸 역사추리극 형식의 본격 다큐멘터리

10개 1 SET ※카드결제 가능

대하다큐멘터리
티베트 불교



4년의 제작기간, 신비의 스펙타클
- 전 30부작 15개 (출시판매중)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tn 구입문의처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3272-0781~5, 706-3502~5

"2500년 불맥 밝혀졌으면..."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12월 법화사지 外

"부처님 제자가 탐라에 온 뜻"

"부처님열반 직후 부처님제자 발타라존자가 9백 나한을 거느리고 탐라국에 와 전법을 했다 〈대장경 법주기〉"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리나라 불교전래의 역사는 서기 372년이 아니라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제주도에는 부처님제자와 관련된 존자암지를 비롯 많은 사찰터가 남아 있다. '절 500 당 500'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융성했던 불교의 역사가 살아있는 제주도의 불적답사로 불교문화 테마여행은 그 막을 내렸다.



◇제주 법화사지 발굴현장에서 강창화선생이 중창연대를 나타내주는 명문기와가 나온 곳을 설명하고 있다.

고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제주도에는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주지 중원)가 가장 오래된 절이다. 13일 제주에 내린 테마여행단은 목석원에 이어 관음사를 찾았다. 4·3항쟁때 불탄 것을 지난 68년 중창한 관음사는 하얀눈으로 소복히 덮여 있었다. 제주에는 거의 눈을 보기 힘드는데 이번에 눈이 많이 와 현무암 돌탑에 쌓여 있는 눈이 무척 소담스러웠다. 한라산 등반시에는 거의 관음사를 거쳐 오르게 되는데 관음사에서 백록담까지는 16㎞.

신라말 바다의 제왕 장보고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서귀포시 법화사(제주도 지정 기념물 제13호)는 15년동안 7차의 발굴을 마쳤다. 현재 1만 3천여평이 보호관리되고 있는 법화사의 넓디 넓은 터 곳곳에 발굴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깨어진 자기, 기와편, 나란히 줄지어 있는 주초석들은 융성했던 시기의 법화사의 거대한 모습을 연상시킨다. 종합정비복원계획이 수립되어 옛 모습 그대로 가람이 장엄하게 복원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법화사는 내년봄부터 사계의 권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가운데 또한차례의 대대적인 발굴에 들어간다. 법화사 주지 시몽스님은

장보고 창건설 법화사 복원 한창
약천사 대좌불·10만불 보며 경탄

"조선의 억불정책으로 제주불교는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지만 장보고대사의 개창원력이 오늘날까지 남아 법화사가 제주불교 활성화의 중심역할을 하고있다"고 말한다.

14일 법화사에서의 정갈한 아침공양을 마치고 일행은 동양최대(대웅전안)의 좌불상이 봉안되어 있는 약천사로 향했다. 구례화엄사 각황전과 금산사의 미륵전을 역학계산해 설계해 지었다는 대웅전은 지하 1층 지상 3층규모로 연건평만도 1400여평에 달하며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대세지보살등 각 불보살들이 아름답게 모셔져 있다.

용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괴상형 화산인 산방산 중턱에는 산방굴사가 위치하고 있다. 자연암굴에 세워진 산방굴사는 천여년전 고려때 혜일스님이 창건했다고 한다. 굴안의 넓은 천장 암반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고인 약수는 노인들이 한모금만 마셔도 10년을 더 장수한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약수다.

온갖 모습의 용하루방이 모여있는 금릉석굴원을 관람하고 불탄사로 떠났다. 제주도 특유의 현무암으로 조성된 5층석탑(보물 제1187호)은 고려 충렬왕 26년(1300)에 원의 기황후가 왕자를 얻기위해 석탑을 조성했다는 이야기가 전하는 제주 유일의 보물이다.

조천에 위치한 고관사(주지 도림)의 통일불사리탑은 남방불탑을 본떠 지은 탑으로 스님과 불자들이 직접 불상을 새긴 萬장의 기와로 겉을 장엄했으며 안에는 직접 조성한 만다라를 봉안해 놓았다. 조선불교를 중흥시키다 제주에서 순교한 허응당 보우스님의 순교기념비가 반갑게 맞아준다.

눈이 많이 와 존자암지(해발 1200m)를 가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부처님 제자가 씨를 뿌린 佛脈이 면면히 이어져 제주불교가 새롭게 꽃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글=이경숙 사진=고영배 기자

참/가/자/방/담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장신과 예술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보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작한 불교문화 테마여행을 마치고 여러번 참여했던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감을 자유롭게 피력했다. 그 요지를 간추려 싣는다.

"우리문화유산 다시 봤어요"

불상·석탑등 이해폭 넓혀
사찰 옛모습 보존됐으면…
스님 법문도 가슴에 남아

- '반만년 역사'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 우리문화의 실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나자신부터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불교는 낡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불교에 대해 너무 모르고 살았는데 불교문화 테마여행에 참가하면서 새롭게 많이 배웠습니다.

- 불교신자지만 전에는 그냥 법당에 들어가 절만 하고 오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테마여행에 참석한 후로는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보살상을 구별할 수 있고 지금은 어느 절에 가더라도 곳곳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갔다온 후에는 소감을 시로도 쓰고 또 대백과사전을 찾아보며 후속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 '아는만큼 본다'라는 말을 테마여행을 다니면서 실감했습니다. 유적들의 어느 점이 빼어나 국보·보물이 되는지, 눈뿐 아니라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국사 석굴암과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가 보게 되어 좋았습니다. 직접 둘러보고 그 가치에 대해 설명을 들으니 더욱 우리 성보가 소중하고 가치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팔만대장경이 6·25 와중에서 폭격을 당할 일보 직전에서 벗어났다는 말을 듣고는 아찔했습니다.



- 5월에 초의스님이 주석했던 대둔사 일지암을 간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일지암에 가서 차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즐겨마시던 커피를 끊고 녹차를 마시게 된 것도 나름의 성과입니다.

- 내소사 갔을때 고색창연한 단청이 너무 좋았습니다. 요즘 절들이 무조건 불사를 크고 화려하게 해 거부감을 줍니다. 스님들께서 주차장을 크게 한다든지 무조건 새 불사만 할 것이 아니라 절의 본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보수에 더 역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 사찰참배에서 역시 하이라이트는 스님의 법문입니다. 사찰의 유래와 함께 삶의 핵심을 짤라주시는 스님들의 법문은 오래오래 가슴에 남아 향기를 뿜습니다.

전문가 안내

강창화
〈제주대강사·제주대박물관〉



◇현무암으로 조성된 제주도 유일의 보물 불탑사 5층석탑.

법화사는 수정사 불탑사와 더불어 고려후기 제주지방의 대표적인 사찰이었다. 불탑사는 원의 순제때 창건되었으며 현재 제주도에서 유일한 고려석탑이 자리하고 있다. 법화사 및 수정사는 그 창건연대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 사찰은 조선중기까지 계속 존속되어 제주불교의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옛 법화사는 크게 건물지와 연지구역으로 배치되어진다. 건물지는 네 단계의 변천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 시기는 탐라총관부가 설치되기 이전으로, 이 시기에 해당하는 확실한 건물지나 유물은 거의 없다. 다만 개원통보(開元通寶)와 통일신라의 질그릇으로 그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법화사의 중심시기는 14~15세기로 판단된다. 번제 제주에 원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탐라총관부가 설치된 후 원과 관련된 건물이 신축된 시기가 있었음을 추측케 한다. 이 시기의 건물군의 존속시기를 알려주는 자료로써 명문기와, 운룡문(雲龍文)·운봉문(雲鳳文) 막새, 원대화병, 이중각원초석, 이중기단석 등이 있다. 특히 '지원6년기사시중창16년기묘필(至元六年己巳始重創十六年己卯畢)' 명문기와는 이 시기의 건물이 지원6년(1269년)에 중창을 시작하여 지원16년(1279년)에 마쳤다는 확실한 연대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 시기는

불탑사 탑 제주 유일 보물
법화사 4차례 중창

법당·승방건물, 부속건물 등 6동 이상의 건물이 자리했으며 건물사이에 자리했던 보도와 경사면에 설치했던 계단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는 280명의 사찰노비가 있었고 원나라 양공이 만든 동불상 3기가 전라도로 이송되는 일이 있었던 때로, 옛 법화사의 존속기간 중 가장 안정되고 많은 건물이 자리했던 시기로 판단된다.

마지막 시기는 조선초 건물이 허물어진 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 시기는 대략 자기유물의 출토상황으로 미루어보아 15세기 중엽 이후에서 17세기 말까지로 짐작된다. 몇 채의 초가터와 화초 등을 재배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계단유구, 외곽담장, 악간의 배수시설이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구다.



◇뒷줄 왼쪽부터 이성모·김화순, 윤곤순·박현일, 김경희·최장수 부부(시계방향으로).

"대화 늘고 금슬 좋아졌어요"

화제 11회 테마여행 모두 참가 세 부부

지난 2월부터 시작되어 이번 제주까지 총 11회의 불교문화 테마여행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가한 세 부부가 주최측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부부가 함께 참가한 것도 이채롭지만 한번도 빠지지 않은 열의가 놀라운 이들 세 부부는 최장수(68·前 중학교 교장)·김경희(64), 박현일(58·한국통신 근무)·윤곤순(50), 이성모(52·한의사)·김화순(48) 부부.

독실한 불자들로 다정한 여행도반이 된 이들은 "불교를 더 잘 알기 위해 신청했는데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점도 좋았지만 부부사이에 대화가 늘어 금슬이 더 좋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은 PCS 016과 함께 하는 불교통신사업입니다.

작은 선택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PCS 016 『부다피아 포교기금』

PCS는 · 통신전문가 「한국통신프리텔」
가입신청은 ·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100년 기술이
PCS 016에 모아집니다

최고의 첨단통신 PCS 016을
현대불교신문 「포·교·기·금·부·다·피·아」를
통해 가입하시면 납입하신
통화료내의 5%가 자동적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보시금으로 활용됩니다.

■ 「포교기금 부다피아」 PCS 016 전국 가입처 ■

서울본사 02-732-1522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 주관 : 현대불교신문사 · 후원 :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소쩍새마을, (사)감로심장회